

2025 펄벅국제심포지엄 자료집

2025 PEARL S. BUCK International Symposium Proceedings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성주로 214번길 61 부천펄벅기념관
T. 032) 320-6441~3 F. 032) 668-7566 www.bcmuseum.or.kr

2025 펄벅국제심포지엄 자료집 2025 PEARL S. BUCK International Symposium Proceedings

2025 펄벅국제심포지엄 자료집

2025 PEARL S. BUCK
International Symposium Proceedings



2025 필벽국제심포지엄 자료집

2025 PEARL S. BUCK
International Symposium Proceedings

주최  부천문화재단
Bucheon Cultural Foundation

주관  부천필벽기념관
BUcheon PEARL S. BUCK MEMORIAL HALL

후원  부천시
BUcheon City

 사회복지법인 한국필벽재단
Pearl S. Buck Foundation Korea

CONTENTS

2025 펄벅국제심포지엄

2025 PEARL S. BUCK International Symposium Proceedings

- 개회 사회 - 김영주(부천시박물관 차장)
- 04 개회사 문동수(부천펄벅기념관 관장)
- 06 환영사 한병환(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 08 축사 조용익(부천시장)
권택명(한국펄벅재단 상임이사)

1부

- 13 **기조강연** 한국에 꽃 피운 펄 벅의 박애정신
- 한국펄벅재단 설립 60주년에 다시 돌아보는 '펄 벅과 한국'
Pearl S. Buck's Philanthropy in Korea
- 'Pearl S. Buck and Korea' Revisited on the 60th Anniversary of the Pearl S. Buck Foundation Korea
최종고(Chongko Choi) - 한국펄벅연구회, 서울대 명예교수
(Honorary Chairman of the Korea Pearl S. Buck Research Association, Professor Emeritu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 25 **발표1** 펄 벅과 한국계 아메라시안
Pearl S. Buck and Korean Amerasians
권은혜(Eunhye Kwon) - 한국외국어대학교(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41 **발표2** 펄 벅과 냉전의 사생아들
Pearl Buck and Children Abandoned During the Cold War
박진영(Jinyoung Park) - 성균관대학교(Sungkyunkwan University)
- 59 **발표3** 펄 S. 벅의 장편소설 『살아있는 갈대』에 재현된 조선 기독교 - 하나의 시론(試論)
An Essay on Christianity in Joseon Represented in Pearl S. Buck's Novel <The Living Reed>
정정호(Chung Chung-Ho) - 한국펄벅연구회, 중앙대 명예교수
(Korea Pearl S. Buck Research Association, Professor Emeritus at Chung-Ang University)

2부

- 79 **발표4** 그녀의 눈에 비친 한국: 펄 벅의 미래 비전(1957-1964)
Korea Through Her Eyes: Pearl S. Buck's Vision for the Future 1957-1964
Smantha G. Freise - 펄벅인터네셔널(PSBI)
- 91 **발표5** 펄 벅의 윤리적 관점: 다문화 공존의 다리
Pearl S. Buck's Ethical Perspective: The Bridge of Multicultural Coexistence
Abraham B. Latoza - 아워 레이디 파티마 대학교(Our Lady of Fatima University)
- 109 **발표6** Pearl Buck's Enduring Legacy as an Advocate for Intellectual Disability
Sophia Geng - Saint Vincent College
- 127 **발표7** 전장시(鎮江市) 펄 벅 연구와 문화적 소통
Pearl S. Buck Research and Cultural Communication in Zhenjiang
• 卢章平(Lu Zhangping) - 전장시 펄벅연구회(Zhenjiang Pearl S. Buck Research Association)
• 梁炜(Liang Wei) - 장쑤대학교 도서관(Library of Jiangsu University)

3부

- 159 **발표8** 조국과 모국의 조화로운 공존: 펄 벅의 다문화 비전
Fatherland Motherland Harmonious Coexistence
: Pearl S. Buck's Multicultural Vision
张雁凌(Zhang Yanling) - 쑤저우시 쑤저우학원
(School of Foreign Languages, Suzhou University, Education Park, Suzhou City)
- 173 **발표9** 일본 아메라시안 80년사
Eight Decades of Amerasians in Japan
佐川陽子(Yoko Sagawa) - 일본 사회디자인학회(Japan Society of Social Design Studies)

4부

- 189 **종합토론** 좌장 - 최현규(한국작가회의 부천지부)
구미리내 - 명지대학교
권택명 - 한국펄벅재단
음영철 - 삼육대학교
이희용 - 서울신학대학교
최소연 - 남서울대학교

개회사

문 동 수
부천펄벅기념관장

안녕하십니까.

부천펄벅기념관장 문동수입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국내외 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5 펄벅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부천펄벅기념관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해 심포지엄의 주제는 “다문화 공존의 미래: 한국펄벅재단 60년과 미래를 향한 비전”입니다.

이 주제는 펄 벅이 남긴 인류애의 정신을 되새기며, 그 정신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서 실천해온 지난 60년의 여정을 돌아보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공존의 미래를 모색하는 뜻깊은 초대입니다.

펄 벅은 문학을 통해 인종과 문화, 국경을 넘어 인간의 존엄을 이야기한 작가이자, 삶으로 사랑과 이해를 실천한 인도주의자였습니다.

그녀는 “사랑은 성장이 멈출 때만 죽는다(Love dies only when growth stops)”는 말을 남기며, 인간관계와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때 진정한 사랑과 공존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전했습니다.

한국펄벅재단은 지난 60년 동안 소외된 이웃과 다문화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펄 벅이 심어놓은 사랑의 씨앗을 한국 사회에서 아름답게 꽃피워 왔습니다.

그 숭고한 걸음에 경의를 표하며, 오늘 이 심포지엄이 그 발자취를 되새기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비전을 함께 그리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은 부천펄벅기념관 개관 2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념관은 지난 20년 동안 전시와 연구, 교육, 국제교류를 통해 펄 벅의 정신을 계승하고 확산하는데 힘써 왔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그 여정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역할을 더욱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미국 펄벅인터내셔널(PSBI)에서 펄 벅이 생전에 사용하던 클러치백과 귀걸이 등 귀중한 유물을 부천펄벅기념관에 영구히 대여해 주셨습니다.

이는 두 기관의 깊은 신뢰와 우정을 상징하며, 부천이 펄 벅의 정신을 계승하는 세계적 교류의 중심지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뜻깊은 결실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우리는 펄 벅의 문학과 사상, 그리고 그녀가 남긴 인류애의 메시지를 새롭게 조명하고, 그 가치를 미래 세대와 어떻게 나눌 것인지 함께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가 학문적 교류를 넘어, 서로의 문화와 마음을 이해하는 인류 공동의 장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번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오늘의 만남이 펄 벅이 꿈꾸었던 ‘이해와 사랑의 세계’를 향한 또 하나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영사

한 병 환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안녕하세요.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한병환입니다.

2025 펠벅국제심포지엄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부천문화재단을 대표하여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부천은 오래전부터 문학과 예술이 시민의 일상 속에 살아 숨 쉬는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소사회망원을 운영한 펠 벱의 정신은 ‘서로를 이해하는 힘’이야말로 인류가 지닌 가장 아름다운 언어임을 일깨워줍니다.

오늘 열리는 이 심포지엄은 그러한 언어를 다시 되새기며 국내외의 연구자와 시민이 함께 ‘공감’이라는 이름으로 연결되는 자리입니다.

펠 벱의 문학은 경계를 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한 인간의 삶을 통해 다른 문화의 숨결을 이해했고, 타인의 아픔을 자신의 언어로 옮겨 인류의 보편적 정서를 노래했습니다.

그 정신은 지금의 다문화 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며, 부천이 지향하는 문화도시의 가치와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올해는 한국펠벅재단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자, 내년 부천펠벅기념관 개관 20주년을 앞둔 중요한 시점입니다.

오랜 시간 펠 벱의 뜻을 지켜온 두 기관의 노력 덕분에 펠 벱의 정신은 세대를 넘어, 국경을 넘어 새롭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펠벅인터네셔널(PSBI)이 펠 벱의 유품을 부천에 영구 대여 및 기증해 주신 것은 문학과 인류애로 맺어진 진정한 문화교류의 결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천문화재단은 앞으로도 펠 벱의 문학이 지닌 ‘사람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바탕으로 예술과 인문이 시민의 삶 속에서 숨 쉬는 도시, 그리고 세계와 대화하는 문화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심포지엄이 학문적 논의의 장을 넘어, 문학이 가진 공감의 힘을 함께 느끼고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인류의 이해와 공존을 확장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조 용 익
부천시장

안녕하세요. 부천시장 조용익입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그리고 부천을 찾아 주신 미국 PSBI 총재님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학자 여러분, 펠벅 여사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해 온 모든 분께 깊은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25 펠벅국제심포지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펠벅 여사의 삶과 사랑이 깃든 이곳, 부천에서 여러분을 모시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올해는 한국펠벅재단 설립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펠벅 여사는 1965년 한국지부를 설립해 사랑과 나눔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또한 펠벅 여사는 “한국은 고상한 사람들이 사는 보석 같은 나라”로 표현할 만큼 우리나라를 사랑했습니다.

특히 1967년, 펠벅 여사는 부천시 심곡본동에 ‘소사회망원’을 설립하고 전쟁고아와 혼혈 아동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이 땅에 희망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 정신을 기리고자 부천시는 소사회망원 자리에 부천펠벅기념관을 개관해 펠벅 여사의 박애정신을 계승하고, 다문화 가정과 이주민이 차별 없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부천을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이 펠벅 여사의 위대한 여정을 되돌아보며, 다양성이 존중받고 누구나 평등하게 공존하는 공동체 사회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한걸음이 되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번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펠벅기념관 및 한국펠벅재단 관계자 여러분과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참석해 주신 국내외 발표자 및 참석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천에서의 시간이 모두에게 뜻깊고 행복한 기억으로 남기를 기원합니다.

축사

권 택 명
한국펠벅재단 상임이사·한국펠벅연구회 사무국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뜻 깊은 펠벅국제심포지엄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국내외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8년 한국에서 개최한 첫 국제 심포지엄의 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한 한 사람으로서, 특별히 지난 60년간 펠 벅 여사의 인류애와 박애정신을 이어가려고 노력해온 기관의 종사자로서, 이번으로 세 번째 한국이 주최하는 국제심포지엄에 동참하게 되어 남다른 감회와 감사를 느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다문화’와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수용이 필요합니다. ‘다양성’이 조화로운 ‘공존’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이해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문화 공존의 길은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지만, 그 길의 끝에는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더 코고 멋진 인류공동체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펠 벅 여사가 끝까지 간직하신 꿈이기도 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이, 함께하신 각국의 전문가와, 펠 벅 정신을 되새기는 모든 분들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소중한 장이 되어, 탁월한 선각자인 펠 벅 여사의 삶과 사상, 문학과 사회복지 등 다방면에 걸친 선한 영향력에 대해, 국제적 학제적 연구가 한층 촉진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미래의 다문화사회가 평화롭고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과 방안이 제시되고, 그것이 실천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기조강연을 비롯하여 다양하고 심도 있는 연구발표를 해 주실 발표자분들과, 토론 기타 펠 벅 여사와의 인연 등을 공유해 주실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뜻 깊은 국제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부천시 조용익 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펠벅기념관, 부천문화재단, 한국펠벅재단, 한국펠벅연구회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펠 벅 여사의 아름다운 유산을 이어가는 펠벅국제심포지엄이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하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평안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 펄벅국제심포지엄

2025 PEARL S. BUCK International Symposium Proceedings

1부

기조강연

최종고(Chongko Choi) - 한국펄벅연구회, 서울대 명예교수
(Honorary Chairman of the Korea Pearl S. Buck Research Association, Professor Emeritu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발표1

권은혜(Eunhye Kwon) - 한국외국어대학교(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발표2

박진영(Jinyoung Park) - 성균관대학교(Sungkyunkwan University)

발표3

정정호(Chung Chung-Ho) - 한국펄벅연구회, 중앙대 명예교수
(Korea Pearl S. Buck Research Association, Professor Emeritus at Chung-Ang University)

한국에 꽃 피운 펄 벅의 박애정신
— 한국펄벅재단 설립 60주년에 다시 돌아보는 ‘펄 벅과 한국’

최종고
한국펄벅연구회 명예회장, 서울대 명예교수

머리말

세월은 빨라 금년은 한국펄벅재단이 설립되어 활동해 온 지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여러 면으로 되돌아보며 축하와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있다. 이런 위대한 역사를 다시 돌아볼 때 가장 먼저 생각되는 것은 ‘위대한 역사’는 ‘위대한 정신’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새삼 펄 벅 여사의 박애정신(philanthropy)을 되새기게 된다. 박애정신이라 해도 좋고 인간애 혹은 인류애(humanity)라 해도 좋다. 그리고 세계를 한 공동체로 보았다는 점에서 코스모폴리타니즘(cosmopolitanism)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어쨌든 이런 위대한 정신이 어떻게 한국이라는 아시아의 한 작은 나라에서 특별히 발현되었는가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나는 지난 7년간 한국펄벅연구회(Korean Pearl Buck Research Association)를 조직·운영하는 동안 여러 측면에서의 실증적 연구 발표를 통해 궁극적으로 펄 벅 여사의 이러한 위대한 정신이 모든 역사와 업적의 기초였다는 사실을 절감하였다. 오늘은 그 소회를 간단히 음미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

I. 펄 벅의 한국에 대한 초기 관심

펄 벅은 개신교 장로회 선교사의 딸로 태어나 자신도 선교사 자격을 갖고 있었다. 중국 전장(鎮江)의 송실(崇實)여자중학교에서 영어교사로 가르칠 때 연미당(延薇堂, 1908-1981) 등 몇 명의 한국인 제자들도 있었다. 그리고 난징(南京)대학에서 가르칠 때도 한국인 제자들이 한결같이 반일사상에 철저한 사실을 주목하여 관찰하였다. 그의 자서전 『나의 여러 세계들 *My Several Worlds*』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한국인들의 애국심을 보면서 “한국은 자치해야 한다”는 신문논설을 발표하였다. 펄 벅은 천성적으로 약자에 대한 동정심이 강한 성격이었다. 내가 전장에서 인상적으로 본 것은 그녀의 집(선교사관)에 십자가와 함께 부처님상도 있었던 것이다. 전장의 유명한 금산사(金山寺)에도 자주 간 것으로 적고 있다.

이러한 한국인에 대한 동정과 연민은 1940년대 미국에 있으면서도 계속되었

다. 이승만, 유일한, 강용홀 등과 교류하면서, 한미연맹(Korean-American Friendship Association)에도 깊이 관여하였다. 나아가 한국의 독립에 대비하여 조직된 SOS의 중국 측 고문으로 한국 측 고문인 유일한과 돈독한 우정을 맺었다. 1943년 뉴욕에서 ‘한국인의 밤’ 행사를 개최하면서 ‘한국에 대하여 알자(Let us know about Korea)’라고 홍보하였다. 나는 기회 있을 때마다 펠 벅이 후일 알게 된 스코필드(Frank Schofield, 1889-1970) 박사가 한국 독립운동의 제34인이라 불린다면, 펠 벅은 제35인이라 불려야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 아무튼 펠 벅은 독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코리아에 대해 일찍부터 연민과 애정을 갖고 있었다.

II. 펠 벅의 첫 방한(1960)과 한국의 혼혈아동

펠 벅은 1960년 11월 1일 첫 방한에 앞서 1천 달러를 보내어 한국에서의 맹인 실태조사를 하게 하였다. 그때 최복림(후일 재미 사회사업학 학자 및 실천가) 박사 등 몇 관심자들이 YWCA에서 모여 준비를 하였다. 펠 벅은 방한 시 YWCA를 방문하여 한국 여성지도자들을 격려하고 스코필드 박사를 만나 환담하기도 하였다. 다행히 이 당시의 기록들이 <펠벅문서>¹⁾ 안에 잘 보관되어 있다.

펠 벅은 1960년 방한 시 일본인 여성 사와다 미키(澤田美喜, 1901-1980) 여사와 가마타 노부코(鎌田信子, 1933-2013) 여사를 동반하였는데, 두 여성 모두 자선사업에 관심이 큰 분들이었다. 사와다는 ‘일본판 펠 벅’이라 할 분으로 일본 오이소(大磯)에 미군과 일본 여성 사이의 혼혈아를 위한 시설 ‘Elizabeth Sanders Home(현재 사와다미키기념관)’을 세워 봉사하였다. 가마타 여사는 제일 한국인을 포함한 원폭(原爆) 피해자 조사 사업을 위해 평생 헌신한 인물이다. 이 두 일본 여성의 방한은 1965년 박정희 대통령에 의한 한일 수교 이전의 사실인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다. 어쩌면 펠 벅이 한일 수교를 이런 식으로 조용히 종용하지 않았나 추측되기도 한다.

1) 최종고, 「<펠벅문서> 속의 한국」,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14, 2018, pp. 201-210.



창덕궁 비원 앞

사와다 여사의 부군은 1950년대 한일회담의 일본 측 수석대표 외교관으로 한국 측의 수석대표 유진오(兪鎭午) 박사를 상대로 교섭하였다. 이런 인연으로 사와다 여사는 방한 시 유진오 박사의 미망인 이용재 여사와 대담하여 『여원(女苑)』지에 전면 수록되었다. 이 대담에서 사와다 여사는 초기 한국 고아들을 펠 벅 여사가 입양할 때 사와다 여사 자신이 보증인이 되어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해리 홀트의 아동보호시설 방문

그리고 펠 벅은 바쁜 일정에서도 홀트양자회의 홀트 씨를 방문하여 환담²⁾하였으며, 초기에는 입양사업을 함께 하기도 하였다.

III. 펠벅희망원(Opportunity Center)의 설립

펠 벅은 본격적으로 한국의 전쟁고아 등을 위해 부천에 양육시설인 희망원(Opportunity Center)을 세울 결심을 하였다. 그녀는 남을 도울 때 가장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었다. 이 희망원이 서는 데는 이전 1940년대 미국에서 알고 지낸 유일한(1895-1971) 박사와의 우정이 크게 작용하였다. 개원식 때 행한 연설에서, 펠 벅은 자기 생애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감개 무량해 하였다. 그녀는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혼혈고아들과 함께 숙식하며 그

2) 최종고, 「펠 벅과 해리 홀트 씨의 만남」, 『펠벅』 78, 한국펠벅재단, 2021, pp. 16-19.

들에게 자립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여러 가지 기술을 습득하도록 가르쳤다.



1967년 세운 Opportunity Center(경기 부천)

펠 벅이 지은 “Who killed Christopher?(누가 크리스토퍼를 죽였는가?)”란 시를 보면 당시 혼혈아동들에 대한 한국 사회의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³⁾ 또한 펠 벅이 아동소설로 쓴 『Matthew, Mark, Luke and John』(1867)은 한국전쟁기의 혼혈고아 네 명이 부산까지 내려와 거지생활을 하고 있는데 미국인 장교가 이들을 발견하고 미국에까지 초청한다는 감동적인 스토리를 담고 있다. 이 작품은 아직 한국어 번역판이 나오지 않았다.

이 희망원에서 지원을 받은 혼혈아동 가운데 특히 ‘인순이’로 널리 알려진 김인순 씨는 한국을 대표하는 인기 가수로서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녀는 펠 벅의 정신을 이어 한국펠벅재단의 이사로 섬기며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인 ‘해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등 자선사업에도 힘을 쏟고 있는데, 금년에 펠벅재단 본부(PSBI: Pearl S. Buck International)로부터 ‘2025 올해의 영향력 있는 여성상(Woman of Influence Award)’이라는 뜻깊은 상을 받았다.

또한 희망원을 거쳐 펠 벅 여사의 양녀가 된 구순이 줄리 헤닝(Julie Henning, 1953년 부산 출생)의 스토리 역시 감동적이다. 그녀의 자서전 『A Rose in a Ditch』(2019)는 『개천에 핀 장미』라는 제목으로 한국어 번역판(정혜연 역, 고요아침, 2021)이 나왔다.

3) 최종고, 「펠 벅과 한국전쟁」, 『펠 벅의 세계』, 부천펠벅기념관, 2023, pp. 164-181.



2020년 자작 문인화 미국 펠벅인터내셔널 기증 시 줄리 헤닝과 함께

지금도 부천의 펠벅기념관에는 펠 벅 여사 80세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원생들이 마음을 모아 1천여 명의 이름을 연서한 한국화 족자가 보관 전시되어 있다.

IV. 한국펠벅재단의 설립과 운영

1965년에 서울 가회동에 한국펠벅재단(당시는 펠벅재단 한국지부)이 설립되었다. 펠 벅 여사의 방한을 포함한 초창기의 모습은 사진작가 백남식 씨의 멋진 사진 작품들이 잘 보여준다. 60년이 흐르는 동안 한국펠벅재단은 여러 내부적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국내 법인으로 전환한 후 현재 모범적인 다문화가정 지원재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1965년 설립 당시 펠벅재단 한국지부(서울 가회동)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하면, 펠 벅은 이러한 활동을 인정받아 서울특별시와 부산시로부터 명예시민증을 받았고, 최진주(崔珍珠)라는 한국명을 부여받았다.

1972년에는 대한민국 국회가 노벨평화상에 추천하였는데, 아쉽게도 이듬해에 펄 벅 여사께서 작고하셨다.

한국펄벅재단의 역사도 편찬되면 많은 에피소드와 사진들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나는 작년에도 한국펄벅재단의 연말 후원 모임에 참석하였는데,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이 많이 참여하여 즐겁게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하는 모습을 보았다. 펄 벅 여사가 살아계신다면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 생각되었다. 그러면서 확실히 펄 벅 여사는 뛰어난 선각자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종은 섞일 수록 우성(優性)이 된다고 확신하셨던 여사는 다가올 다문화사회의 선구자였다.

이것은 우리 한국인에게는 하나의 큰 축복이자 숙제이다. 솔직히 나도 어릴 적부터 한국인은 단군 배달의 순수혈통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외인에 대해서는 남으로만 생각했다. 국내 상주 외국인이 3백만 명에 달하고 그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제는 당연히 그럴 때가 아니다. 펄 벅 여사는 우리에게 큰 사랑의 선물과 함께 더욱 열린 마음으로 종족과 국적과 피부색을 넘어 가까운 이웃으로서 조화롭게 공존, 공생하는 과제와 당부를 주고 가셨다고 생각된다.

맺는말

우리는 한국펄벅재단 설립 60주년을 맞아 지난날을 감사하며 앞으로의 계속적 발전을 기원한다. 생각할수록 펄 벅 여사는 한국의 은인이요 숭고한 조력자였다. 비록 한국이 추천한 노벨평화상 수상은 실현되지 못하였지만, 한국에 심고 뿌리내리고 열매 맺게 한 인간애와 박애정신의 고귀한 꽃불은 영원히 이어져 나갈 것으로 믿는다. 사회복지적 기여와 더불어, 오늘 조명하지 못한 문학을 통한 펄 벅 여사와 한국의 관계 또한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심도 있게 검토되어 한층 폭넓은 공명의 세계를 창조해 나가리라 확신한다.

펄 벅 여사의 고귀한 정신의 유산을 현재도 실천적으로 이어가는 한국펄벅재단과, 펄벅기념관이 더욱 발전하고, 펄 벅이라는, 세계로 통하는 훌륭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펄벅선양사업지원을 위한 조례’까지 제정한 부천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한다. 아울러 펄 벅 정신이 부천시민들의 삶을 더한층 보람 있고 풍성하게 하기를 축원한다.

Pearl S. Buck's Philanthropy in Korea

— 'Pearl S. Buck and Korea' Revisited on the 60th Anniversary of the Pearl S. Buck Foundation Korea

Chongko Choi

Honorary Chairman of the Korea Pearl S. Buck Research Association,
Professor Emeritu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Foreword

Time flies. This year marks the 6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Pearl S. Buck Foundation Korea. We celebrate and reaffirm our commitments while reflecting on this impressive history. The first thing that comes to mind in recalling this legacy is that a "great history" starts with a "great spirit," bringing to mind Pearl S. Buck's philanthropy. Some may see it as love for humankind or humanity rather than philanthropy itself. Others might interpret it as cosmopolitanism, given her view of the world as a single community. In any case, considering how this noble spirit was expressed, particularly in a small Asian country like Korea, prompts us to think about many things.

While organizing and operating the Korean Pearl S. Buck Research Association for the past seven years, I became keenly aware through empirical research presentations in various aspects that this great spirit of Pearl S. Buck was ultimately the foundation of all history and achievements. Today, I would like to briefly reflect on the meaningful 'Pearl S. Buck International Symposium' hosted in Korea for the third time on the 60th anniversary of the Korea Pearl S. Buck Research Foundation.

I. Pearl S. Buck's Early Interest in Korea

Pearl S. Buck was born to a Protestant Presbyterian missionary and qualified as a missionary herself. While teaching English at Chongshi Girls' Middle School in Zhenjiang, China, she taught several Korean students, including Yeon Mi-dang (1908-1981). Later, at Nanjing University, she noticed the strong anti-Japanese sentiments

of her Korean students, which she described in her autobiography, <My Several Worlds>. Witnessing this patriotism, she published an editorial stating, "Korea must be self-governing." Known for her compassion toward vulnerable individuals, Buck was notably moved by seeing the image of Buddha alongside a cross at her missionary residence in Zhenjiang. She also mentioned frequently visiting the renowned Jinshan Temple of Zhenjiang.

This sympathy and compassion for Koreans persisted even while she was in the United States in the 1940s. She interacted with Syngman Rhee, New Il-han, Younghill Kang, and others, and was deeply involved in the Korean-American Friendship Association. Additionally, as an advisor to the Chinese branch of the SOS, an organization formed to prepare for Korean independence, she built a close friendship with New Il-han, who was a Korean advisor. In 1943, she hosted a "Korean Night" event in New York and promoted it with the slogan, "Let us know about Korea." Whenever possible, she argued that if Dr. Frank Schofield (1889-1970), whom Pearl S. Buck later came to know, was called the 34th national representative in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then Pearl S. Buck should be considered the 35th. Overall, Pearl S. Buck has had compassion and affection for Korea, which had not yet gained independence, from a young age.

II. Pearl S. Buck's First Visit to Korea (1960) and Interracial Children

Before her first visit to Korea on November 1, 1960, Pearl S. Buck sent \$1,000 to fund a survey of blind people in Korea. Several individuals interested in the project, including Dr. Choi Bok-rim (who later became a Korean-American social work scholar and practitioner), gathered at the YWCA to prepare for the survey. During her stay, Pearl S. Buck visited the YWCA, supported Korean women leaders, and had a friendly chat with Dr. Schofield. Fortunately, the records from this time are preserved in the <Pearl S. Buck Documents>. (For details, see my article, 'Korea in the <Pearl S. Buck Documents>,' <Seoul National University Emeritus Professors' Association Bulletin>, Ed. 14, 2018, pp. 201-210.)

During her 1960 visit to Korea, Pearl S. Buck was accompanied by

two Japanese women, Miki Sawada (1901-1980) and Nobuko Kamata (1933-2013), both of whom had strong interest in charitable work. Sawada, often called the "Pearl S. Buck of Japan," founded and managed the Elizabeth Sanders Home (now the Sawada Miki Memorial Hall) in Oiso, Japan, a facility for interracial children of American soldiers and Japanese women. Kamata dedicated her life to investigating victims of the atomic bomb, including Koreans in Japan. The visit of these two Japanese women to Korea is noteworthy because it occurred before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under President Park Chung-hee in 1965. It is also believed that Pearl S. Buck may have secretly supported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in this manner.

Sawada's husband, who was the chief Japanese diplomat at the Korea-Japan talks in the 1950s, negotiated with Dr. Yoo Jin-oh, Korea's leading representative. This connection led to a meeting between Sawada and Lee Yong-jae, the widow of Yoo Jin-oh, during her visit to Korea, which was detailed in the magazine <Yeowon>. During their conversation, Sawada disclosed that she had acted as a guarantor for Pearl S. Buck's early adoptions of Korean orphans. Furthermore, despite her busy schedule, Pearl S. Buck visited Holt of Holt Adoption Association for a friendly talk and even worked together on adoption projects in the early stages. (For details, see my article, 'The Meeting of Pearl S. Buck and Harry Holt,' <Pearl S. Buck> Vol. 78, 2021, pp. 16-19.)

III. Establishment of Opportunity Center

Pearl S. Buck decided to establish the Opportunity Center in Bucheon, a foster home for Korean War orphans. She felt happiest when helping others. Her friendship with Dr. New Il-han (1895-1971), whom she had met in the United States in the 1940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founding the center. In her speech at the opening ceremony, Pearl S. Buck was so moved that she called it the happiest moment of her life. During her time in Korea, she lived with interracial orphans and taught them various skills to guide them toward independence.

Pearl S. Buck's poem, "Who Killed Christopher?", vividly depicts the reality of interracial children in Korean society of that era. (For the Korean poem I translated, see my article, 'Pearl S. Buck and the Korean War,' <Pearl S. Buck's World>, Pearl S. Buck Memorial Hall, 2023, pp. 164-181). Pearl S. Buck's children's novel, <Matthew, Mark, Luke, and John> (1867), shares the compelling story of four interracial orphans who fled to Busan during the Korean War and lived as beggars, until discovered by an American officer who invited them to the United States. This work has not yet been translated into Korean.

Among the interracial children supported by the Opportunity Center, Kim In-soon, widely known as "In Sooni," remains a popular singer representing Korea and continues her public activities to this day. She carries on Pearl S. Buck's legacy by serving as a director of the Pearl S. Buck Foundation Korea and founding and running the Hamill School, an alternative school for multicultural youths. This year, she received the meaningful "2025 Woman of Influence Award" from Pearl S. Buck International (PSBI).

Furthermore, the story of Julie Henning (Goo Sooni, born in Busan in 1953), who became Pearl S. Buck's adopted daughter through the Opportunity Center, is also very moving. Her autobiography, <A Rose in a Ditch> (2019), was translated into Korean by Jeong Hye-yeon (Goyoachim, 2021).

Even now, the Pearl S. Buck Memorial Hall in Bucheon displays a Korean hanging scroll painting, signed by over 1,000 children of the center to commemorate Pearl S. Buck's 80th birthday.

IV.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Pearl S. Buck Foundation Korea

In 1965, the Pearl S. Buck Foundation Korea (then known as the Pearl S. Buck Foundation Korean Branch) was established in Gahoe-dong, Seoul. The foundation's early days, including Pearl S. Buck's visit to Korea, are beautifully documented in the wonderful photographs by Baek Nam-sik. Over the past 60 years, the Pearl S. Buck Foundation Korea overcame many internal challenges, transitioned into a domestic corporation, and continues to serve as

an exemplary organization that supports multicultural families.

One notable anecdote is that Pearl S. Buck was awarded honorary citizenship by Seoul and Busan in recognition of her contributions, and she was given the Korean name Choi Jin-ju. In 1972, the National Assembly of South Korea recommended her for the Nobel Peace Prize, but sadly, she passed away the following year.

More anecdotes and photographs are expected to be added when its history is compiled. Last year, I attended the Pearl S. Buck Foundation Korea's year-end fundraising event, where I saw many children from multicultural backgrounds happily singing and dancing. I imagined how pleased Pearl S. Buck would have been if she were still alive. It made me realize she was truly a visionary, believing that racial strength comes from diversity, and was a pioneer of our upcoming multicultural society.

This is both a great blessing and a challenge for us Koreans. Honestly, even as a child, I felt proud to be a pure descendant of Korean people and saw foreigners only as strangers. With nearly three million foreigners living in Korea and actively participating in every part of our society, that attitude needs to change. Pearl S. Buck, with her gift of great love, left us the challenge and calling to live together in harmony as neighbors with a more open mind, regardless of race, nationality, or skin color.

Epilogue

On the 60th anniversary of the Pearl S. Buck Foundation in Korea, we reflect on the days past and pray for continued progress in the future. The more we think about her, the more we realize that Pearl S. Buck was a benefactor and a noble supporter of Korea. Although she was not nominated for the Nobel Peace Prize as recommended and hoped for by Korea, we believe that the noble spirit of humanity and philanthropy that she instilled, nurtured, and bore fruit in Korea will continue forever. In addition to her contributions to social welfare, we are confident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Pearl S. Buck and Korea, as explored through literature, which we have not discussed here, will be further examined over time, creating a world of even broader sympathy.

We hope that the Pearl S. Buck Foundation Korea and the Pearl S. Buck Memorial Hall, which continue to uphold the legacy of Pearl S. Buck's noble spirit, will keep thriving. We also pray for the ongoing growth of Bucheon, home to the world-renowned cultural heritage of Pearl S. Buck and the Enactment of the "Ordinance for Supporting Pearl S. Buck Promotion Projects".

Above all, I hope that the spirit of Pearl S. Buck inspires the lives of Bucheon citizens to be more meaningful and richer, and that Bucheon will live up to its name as "a gem of a city inhabited by noble people," just as Pearl S. Buck wrote in the preface to "The Living Reed": "Korea is a gem of a country inhabited by a noble people."

펄 벅과 한국계 아메라시안

권은혜
한국외국어대

『대지』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펄 벅은 전후 미국에서 아시아 혼혈인의 입양과 복지를 위해 헌신했다. 벅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한 아시아 국가에서 미국인 아버지와 아시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인 '아메라시안(Amerasians)'을 유행시키며 아메라시안을 미국 시민이자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보호할 미국인의 책임감을 강조했다.¹⁾ 벅과 그녀의 두 번째 남편은 유럽, 아시아에서 태어난 혼혈아동 2명을 입양하기도 했다. 1949년에는 벅은 펜실베이니아주 도일스타운에 미국 내 혼혈아동의 임시 보호와 입양 기관 웰컴하우스 (Welcome House)를 설립했다. 1956년부터 웰컴하우스는 한국에 파견된 미군과 한국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동의 미국 입양도 추진했다. 1964년에 벅은 펄벅재단을 설립해 입양되지 않아서 본국에서 성장해야 하는 아메라시안의 교육과 정착을 지원했다. 1965년에 펄벅재단의 첫 번째 해외 지부가 한국에 설립되었고 이후 1970년까지 미군이 주둔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오кина와, 대만, 필리핀, 태국, 베트남—에도 지부가 건설되었다. 1973년 사망할 때까지 벅은 재단 운영 기금 마련을 위해 펜을 놓지 않고 다수의 문학과 비문학 장르에서 업적을 남겼다.

한국전을 계기로 벅은 혼혈아동의 입양과 복지에 대한 신념을 국제적인 무대에서 실천하게 되었다. 벅에게 혼혈아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입양의 어려움은 타파해야 할 인종주의의 유산이었다. 평소 흑인의 민권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진보적 지식인이던 벅은 혼혈아동을 편견없이 가족과 지역사회, 더 나아가 국가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세상을 만들려 했다.

웰컴하우스와 벅의 인종 간 입양 옹호

혼혈아동에 대한 펄 벅의 관심은 어린 시절부터 형성되었다. 1892년에 미국에서 태어난 펄 사이든스트리커는 생후 3개월 만에 선교사 부모를 따라 생애 첫 18년을 중국에서 보냈다. 펄 벅은 서양인 아버지를 둔 혼혈아동이 백인과 중국인 모두에게서 차별받는 상황을 목격했다. 1910년에 대학 진학차 미국으로 오기 전에 펄 벅은 상하이의 한 보호소에서 자원봉사 중 서양인 남성으로

1) 백인과 아시아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을 가리키는 데 흔히 사용된 용어는 '유라시안 (Eurasians)'이었다. 벅이 아메라시안이라는 용어를 고안했다고 알려져 있으나 미국 국무부 관계자가 '유라시안'을 대체할 용어로 '아메라시안'을 제안했다고 한다. Emily Cheng, "Pearl S. Buck's American Children": US Democracy, Adoption of the Amerasian Child, and the Occupation of Japan in Hidden Flowers," *Frontiers* Vol. 35, No. 1 (2014), pp.187-188.

부터 성적 착취와 학대를 피해 혼혈 자녀와 함께 들어온 중국 여성들을 만났다. 역사가 코리 그레이브스에 따르면, 이 경험은 벽으로 하여금 제국주의 아래 아시아 여성과 혼혈아동이 겪는 희생에 눈을 뜨게 했다.²⁾

벽 스스로가 입양부모였다. 미국에서 대학 졸업 후 다시 중국으로 돌아온 벽은 1917년에 선교사이던 존 로싱 벽과 결혼한다. 중국에 복음과 서양 문명을 전파하는 미국 선교사의 딸과 아내이자 기독교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던 펄벽은 1927년 난징사건으로 인해 서구 제국주의에 대한 중국인의 반감을 이해하게 되고 동시에 선교를 통한 사회 변화 가능성에 대한 회의를 느꼈다. 벽은 사건 당시 난징에서 1921년에 태어난 딸 캐롤, 그리고 1925년에 입양한 딸 재니스와 함께 가까스로 위험에서 탈출했다. 미국 감리교 선교위원회는 선교사 가족들에게 선교 활동의 성과를 남기려면 중국에 남아 있으라고 지시했다. 난징사건 이후 벽은 선교사의 아내가 아닌 독립적인 작가로서의 경력을 쌓기로 결심했다.³⁾ 발달장애인이던 딸 캐롤의 치료 비용도 절실했던 벽은 1920년대에 미국 잡지에 중국 관련 글을 꾸준히 연재했다. 벽의 두 번째 남편이자 평생 파트너가 되는 리처드 월시의 출판사에서 1930년에는 첫 번째 소설 『동풍, 서풍』을, 이듬해에는 두 번째 소설 『대지』가 출간되었다. 『대지』의 성공, 월시와의 재혼, 그리고 캐롤의 치료를 위해 벽은 1934년에 미국으로 돌아와 펜실베이니아 주에 정착한다. 벽과 월시 부부는 총 6명의 자녀를 입양했고 그 중 2명이 혼혈아동이었다. 1936년에 2명의 백인 쌍둥이 형제를 입양했고 1937년에 두 명의 백인 아동을 더 입양했다. 1951년에는 독일인 어머니와 아프리카계 미국인 군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딸을, 1957년에는 일본인 어머니와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딸을 입양했다. 1960년 월시가 사망할 때까지 벽과 월시 부부는 다양한 구성의 혼혈아동을 위탁보호했다.⁴⁾

1940년대 중반만 해도 인종과 국적이 다른 아동의 입양에 대한 벽의 공식적 입장은 부정적이었다. 1946년 『코스모폴리탄』지에 기고한 글에서 벽은 입양 유경험자로서 인종과 국적이 다른 아동의 입양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독자들에게 충고했다.⁵⁾ 이때만 해도 벽은 아동과 부모 사이의 인종과 종교를 일치(matching)시키는 미국 입양전문가집단의 관행을 비판하지 않았다. 1948년에 지인으로부터 인도인 아버지와 백인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남아, 그리고 중국인 아버지와 백인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남아를 입양할 사

2) Kori A. Graves, "Amerasian Children, Hybrid Superiority, and Pearl S. Buck's Transracial and Transnational Adoption Activism," *The Pennsylvania Magazine of History and Biography* Vol. CXLIII, No. 2 (April, 2019), pp. 179-180.

3) Karen J. Leong, *The China Mystique: Pearl S. Buck, Anna May Wong, Mayling Soong, and the Transformation of American Orientalism*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5), pp. 20-23.

4) Graves, "Amerasian Children, Hybrid Superiority, and Pearl S. Buck's Transracial and Transnational Adoption Activism," p. 194.

5) Kori A. Graves, *A War Born Family: African American Adoption in the Wake of the Korean War*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2020), p. 187.

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인종 간 입양에 대한 벽의 입장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50대 후반에 접어든 벽과 월시 부부가 입양할 수도 없었고 아시아계 혼혈아동을 입양하려는 백인 가정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했다. 벽은 혼혈아동을 위한 영구 위탁가정을 만들자고 남편과 주변 지인들을 설득했다. 성공하고 부유한 예술가, 지식인, 전문직 종사자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들의 후원 아래 벽은 1949년에 웰컴하우스를 설립했다.

웰컴하우스와 함께 벽은 혼혈아동의 복지와 인종 간 입양을 옹호하는 운동가의 길에 들어섰다. 벽은 웰컴하우스가 부유한 백인 공동체에 덩그러니 떨어진 혼혈아동의 위탁보호시설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를 구성하는 가정이자 이웃으로 정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 벽은 도일스타운의 지도자와 학교 행정 담당자를 설득했다. 웰컴하우스의 아동에게 벽은 주변 부유한 이웃에 못지않은 주거 환경과 식사를 제공했고 사비를 털어 최신 유행하는 옷을 입혔다.⁶⁾ 벽은 웰컴하우스의 행사를 외부로 공개하며 혼혈아동과 다인종 가정에 대한 당대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백인들 사이에서 인종 간 입양에 대한 관심을 높여 했다.⁷⁾ 1951년부터 벽은 웰컴하우스를 영구 위탁가정에서 입양기관으로 변모시켰다. 1951년에는 10명을 수용하고 6명을 입양보내는 데 그쳤지만 1952년 12명을 받아 10명을 입양 보냈으며 1952년 말에는 80가족 이상이 입양을 희망했다고 한다.⁸⁾

하지만 20세기 전반기 우생학적 사고의 일환이던 혼혈인의 열등성 이론은 1950년대에도 강력한 힘을 가졌기에 혼혈아동을 입양하려는 백인 가정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웰컴하우스가 소재한 도일스타운의 백인 주민들도 다르지 않아서 한 고령의 주민은 만약 그의 손주가 웰컴하우스의 혼혈아동과 결혼하겠다고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고 벽은 회고했다.⁹⁾ 혼혈아동과 인종 간 입양에 대한 긍정적 인식 고양을 위해 벽은 지능과 외모 면에서 혼혈인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당대의 과학자 및 사회과학자의 견해를 널리 알렸다.¹⁰⁾

혼혈아동의 입양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는 입양기관에서 권장하는 매칭(matching) 관행이었다. 매칭이란 입양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인종과 종교를 일치시켜 자연스러운 가족으로 보이게 만드는 관행이다. 매칭은 비백인 아동, 혼혈아동의 입양을 방해했다. 입양 부모가 될 경제적 기준과 연령을 충족하는 이들은 대개 중산층 백인이었고 이들은 그들과 종교가 같은 백인 아동을 선호했다. 흑인 가정이나 인디언 가정은 백인 중산층을 표준으로 설정한 입양 부모의

6) Graves, "Amerasian Children, Hybrid Superiority, and Pearl S. Buck's Transracial and Transnational Adoption Activism," p. 185.

7) Ibid., p. 188.

8) Graves, *A War Born Family*, p. 198.

9) Graves, "Amerasian Children, Hybrid Superiority, and Pearl S. Buck's Transracial and Transnational Adoption Activism," p. 189.

10) Ibid., pp. 190-192.

자격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웠기에 결국 비백인 아동과 혼혈아동은 입양 희망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근대 미국 입양을 연구하는 역사가 엘렌 허먼은 벅은 “최초의 매칭 비판자” 중 하나이자 20세기 중반 “입양 혁명”을 주도한 인물로 언급한다.¹¹⁾ 벅과 다른 매칭 비판자들은 입양전문가 집단이 장애인, 혼혈인, 유색인을 위한 “특수 요구 (special needs)” 입양에 무관심한 채 인종과 종교의 매칭에만 몰두한다고 비판했다. 1955년 “기다리는 아이들: 충격적인 입양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에서 벅은 가정이 필요한 “장애아, 혼혈아, 혹은 다른 모든 아이들”과 입양을 원하는 부모들이 있지만 입양전문가들이 “매치”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상황을 개탄했다.¹²⁾ 벅은 입양이 필요한 아이들과 입양을 원하는 부모들을 가두는 “불필요한 행정, 편견과 종교적 구분이라는 벽을 깨부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동복지와 입양전문가 집단은 비전문가인 벅의 비판이 부당하다고 여겼다. 미국아동복지연맹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의 기관장 조셉 리드는 아동복지기관의 관료주의를 비난하는 벅의 기사가 “사실무근이고 거의 비방에 가깝다”고 반박했다.¹³⁾ 아동복지에 대한 “대중의 무관심, 기금과 이해 부족”을 탓해야지 “누구를 찍어 지적하는 건 답이 아니다”라고 리드는 불쾌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리드 역시 혼혈아동을 입양할 가정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벅은 입양의 민주화를 옹호하며 입양 결정권을 전문가 집단이 독점해서는 안 된다고 믿었다. 벅은 웰컴하우스에서 인종 간 입양을 진행해 봤고 스스로 인종 간, 국가 간 입양을 실천한 어머니였다. 혼혈아동의 입양과 복지에 진실로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인종 간 입양 서비스에 종사할 수 있어야 했다. 전문가 집단은 특수요구 아동의 입양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벅의 견해에는 동의했지만 벅과 같은 비전문가가 신중한 판단을 요하는 입양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펠 벅과 한국계 아메라시안

1950년대 미국은 여전히 인종분리 사회였다. 남부에는 백인과 비백인의 결혼을 금지하는 법이 삼백 년 넘게 유지되고 있었고 1967년에야 폐지된다. 남부의 여러 주에서 인종 간 입양도 금지했다. 북부에서도 인종 간 결혼과 입양은 극소수 개인의 선택지로 남았다. 냉전기 미소 갈등의 첫 대리전이던 한국전

11) Ellen Herman, *Kinship by Design: A History of Adoption in the Modern United Stat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8), pp. 204-215.

12) Pearl S. Buck, “The Children Waiting: The Shocking Scandal of Adoption,” *Woman’s Home Companion*, September 1955, p. 33, pp. 129-132, <https://pages.uoregon.edu/adoption/archive/BuckTCW.htm>

13) Joseph Reid to Paul Smith, September 15, 1955,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Papers, Box 15, Folder 7, Social Welfare History Archives, University of Minnesota, <https://pages.uoregon.edu/adoption/archive/ReidBuckltr.htm>

쟁은 인종 간 입양에 대한 평범한 미국인의 인식을 변화시키며 다인종가족의 출현을 암시했다. 한국전쟁 기간 중 약 10만 명의 고아가 발생했고 이 중 1,500명은 미군에게서 태어난 혼혈아동이라고 추산된다.¹⁴⁾ 미 의회는 1953년 난민구조법으로 대리입양(proxy adoption)을 허용했다. 미국인 부모가 한국에 있는 아이를 만나지 않고서도 대리인을 통해 입양할 수 있었고 일반적 입양 과정보다 규제가 없어서 신속한 초국적 입양이 가능했다. 1955년에 오리건주의 복음주의 기독교인 홀트부부가 한국계 혼혈아동 8명을 입양하면서 초국적 입양 서비스를 시작했고 펄 벅과 웰컴하우스는 1956년에 참여했다. 아동복지 전문가들은 부모에 대한 신중한 심사와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절차없이 진행된 대리입양에 반대했다. 한국전쟁 고아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남한정부와 협의하던 공식 기관은 국제사회봉사단(International Social Service) 미국지부 (ISS-USA)였고 이들은 홀트와 벅의 대리입양을 예의 주시했다. 벅은 입양 전문가들의 우려를 이해하긴 했지만 한국의 긴박한 상황으로 대리입양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실제로 대리입양의 부작용이 심각하게 드러나자 1961년에 이 제도는 사라졌다. 1961년부터 외국 아동을 입양하려는 미국인들은 해당 국가의 입양 절차 혹은 미국 국내 입양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밟아야만 입양이 가능했다.¹⁵⁾

벅이 한국계 아메라시안의 국제 입양을 추진한 동기는 홀트와 유사한 측면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었다. 벅과 홀트는 전쟁의 피해자인 아동에 대한 사랑과 인류애, 그리고 반공주의적 동기-미국인이 낳은 자녀를 방치할 경우 이들이 공산주의 선전의 도구로 활용될 것-을 공유했다. 홀트와 그의 입양 서비스를 활용한 미국인들은 기독교적 사명감에서 아이들을 구원했다고 믿었다. 벅은 기독교적 구원 서사 대신에 한국계 아메라시안의 우수성을 강조하며 이들이 미국 사회의 훌륭한 구성원이 될 것이라는 이유로 입양을 장려했다.¹⁶⁾ 벅은 한국계 아메라시안의 입양으로 미국이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기를 희망했다고 볼 수도 있다.

한국계 혼혈아동의 입양으로 인종 간 입양의 문이 열린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사례는 한국계 백인 아메라시안의 백인 가정 입양이었다. 한국계 흑인 아메라시안을 입양하려는 백인은 찾기 어려웠고 이 아동들은 한국의 시설에서도 차별받고 있었다. 1957년 ISS-USA의 부소장 수잔 페티스는 벅에게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계 흑인 아메라시안의 입양을 홍보해 달라고 부탁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사이에서 널리 읽히던 잡지 『에보니』에 벅은 “백인 부모가 갈색 아이를 입양해야 할까?”라는 글을 써서 큰 반향을 일으켰

14) 아리사 오 지음, 이은진 옮김, 『왜 그 아이들은 한국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나: 해외 입양의 숨겨진 역사』 (서울: 뿌리의 집, 2019), pp. 46-47.

15) Herman, *Kinship by Design*, p. 218.

16) Graves, “Amerasian Children, Hybrid Superiority, and Pearl S. Buck’s Transracial and Transnational Adoption Activism,” p. 197.

다. 기사가 나간 뒤 수개월 안에 웰컴하우스로 625건의 입양 문의 전화가 왔다. 애초 ISS-USA는 벽에게 입양 문의를 ISS-USA로 직접 오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벽은 ISS-USA를 언급하지 않은 채 웰컴하우스 연락처를 기재한 것이었다. 이 일로 ISS-USA와 벽의 공조는 끝났고 적대적인 관계가 지속되었다.¹⁷⁾

ISS-USA는 미국 국내 입양과 같은 양부모의 자격 기준을 국제 입양에도 적용했고 벽은 국제 입양의 경우 양부모의 자격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많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가정은 40세 이하의 나이와 경제적 안정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국내 입양이 어려웠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웰컴하우스로 한국계 흑인 아동의 입양을 문의했다. 벽은 흑인 혼혈아동의 뛰어난 외모와 지능을 언급하며 흑인과 백인 공동체 모두를 향해 한국계 흑인 아메라시안의 입양을 고려하라고 독려했다.¹⁸⁾ 독일계와 일본계 흑인 아메라시안을 입양했던 벽은 “두 흑인 자녀로 인해 나는 더 나은 여성이 되었네”라는 제목의 글을 1972년에 발표하기도 했다.¹⁹⁾ 벽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계 흑인 아메라시안의 입양 성과는 한국인 아동과 한국계 백인 아메라시안보다 현저히 낮았고 한국 정부는 국가 간 입양 기관에게 한흑아동의 입양에 더 신경 쓰라고 압박했다.²⁰⁾

1960년대 들어 벽의 관심사는 입양되지 못한 채 한국에서 성장하는 한국계 혼혈아동과 이들의 한국인 어머니에 대한 지원으로 옮겨갔다. 1960년 벽은 웰컴하우스 이사들에게 한국에 희망원(opportunity center)을 설립해 혼혈아동과 그 어머니들에게 교육, 상담, 직업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포부를 펼쳤다. 이사회가 벽의 기획을 승인하지 않자 벽은 사비로 혼혈아동의 실태 조사를 한국 아동복지위원회에 의뢰한 후 몸소 한국을 방문해 혼혈아동의 열악한 상황을 확인했다. 1963년에도 웰컴하우스 이사진이 입양에 자원을 집중한다는 이유로 희망원 설립 계획을 거부하자 벽은 1964년에 펠벅재단을 설립했다.²¹⁾

벽은 국방장관 로버트 맥나마라를 포함한 미 정부 고위직 인사들에게 접근해 한국계 혼혈아동의 복지가 미국의 반공주의 외교에 도움이 된다고 설득했다.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식민지의 혼혈인에게 시민권을 인정해 준 사례를 언급하며 벽은 미국인 아버지를 둔 혼혈아들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는다면 적어도 재정적 지원이라도 제공해서 미국 정부가 이들에게 책임감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이 아이들이 미국에 적개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17) Ibid., pp. 199.

18) Ibid., pp. 201-202.

19) Pearl Buck, “I Am the Better Woman for Having My Two Black Children,” *Today's Health*, January 1972, 21-22, 64. <https://pages.uoregon.edu/adoption/archive/BuckIBW.htm>

20) Graves, “Amerasian Children, Hybrid Superiority, and Pearl S. Buck’s Transracial and Transnational Adoption Activism,” p. 202.

21) Ibid., pp. 203-204.

다.²²⁾

1965년 부천에 소사회망원이 펠벅재단의 한국지부로 설립되었다. 이미 한국에는 미국의 장로교 선교사 조지 워트너가 ISS와 함께 혼혈아동의 교육 및 정착 지원 서비스인 “출생지 주민으로 살아가는 유라시안 아동 (Eurasian Children Living as Indigenous Residents, ECLAIR)” 운영 중이었다. ECLAIR과 ISS는 혼혈아동에 대한 한국인의 관용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했고 이승만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도 확보했다. 하지만 벽은 미국 정부와 미국인 독자를 향해 한국 사회에서 혼혈아동이 인종적 차별을 겪는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며 ISS와 충돌했다. 펠벅재단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1965년 남한정부는 ECLAIR에 대한 지원을 철회했다. 벽은 아동 복지 전문가가 아닌 젊은 미국인들을 희망원 직원으로 고용하면서 미국과 한국의 복지전문가들에게 논란거리를 제공했다. 소사회망원은 미숙한 운영과 스캔들에 휘말리며 1975년에 폐쇄된다.²³⁾

웰컴하우스를 통해 펠 벅은 인종과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입양 혁명을 주도하며 인종 간 입양에 대한 미국인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 소사회망원을 통해 벽은 한국 사회의 인종적 편견에 맞서 한국계 아메라시안이 출생국인 한국의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후원했다. 홀트나 기타 기독교 선교사들은 미국인들에게 공산주의의 위협에 시달리는 가난한 한국에서 미국인 아버지를 둔 한국인 혼혈아를 구출하자고 설득했다. 벽에게 한국계 아메라시안은 미국인이 단순히 구조할 대상이 아니라 미국에 다양성과 탁월함을 더해 주는 아름다운 존재였다. 미국 정부와 미국인이 이들을 국가와 가족 구성원으로 다 품을 수 없다면 이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도록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벽은 주장했다.

22) Ibid., p. 205; Graves, *A War Born Family*, pp. 218-219.

23) 펠벅재단과 소사회망원 관련 설명은 다음의 자료를 참조했다. Graves, “Amerasian Children, Hybrid Superiority, and Pearl S. Buck’s Transracial and Transnational Adoption Activism,” pp. 205-206; Graves, *A War Born Family*, pp. 215-219; pp. 98-99; Catherine Ceniza Choy, *Global Families: A History of Asian International Adoption in America*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2013), pp. 98-99; Yuri W. Dulan, *The First Amerasians: Mixed Race Koreans from Camptowns to Americ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24), pp. 90-98.

Pearl S. Buck and Korean Amerasians

Eunhye Kw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Pearl S. Buck, a Nobel Prize winning author and a philanthropist, dedicated her later life to the promotion of adoption and welfare of mixed-race 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and Asia. She popularized the term 'Amerasians' which denoted children born to American GIs and Asian mothers during the Cold War.¹⁾ She maintained that Americans had a responsibility to accept Amerasians as members of the nation and American families. Her second husband, Richard Walsh, and she adopted two Amerasian children fathered by black American GIs in the 1950s. In 1949, Buck founded the Welcome House, one of the early foster homes for mixed-race children, in Doylestown, Pennsylvania. In 1956, the Welcome House began its transracial adoption service for mixed-race Korean children born to American GIs and Korean mothers. In 1964, Buck established the Pearl S. Buck Foundation to support the education and assimilation of Amerasian children who remained in their birth countries in Asia. The first foreign branch of the Pearl S. Buck Foundation was established in Korea in 1965 and it expanded its operation to other Asian regions where the U.S. Armed Forces were stationed such as Okinawa, Taiwan, the Philippines, Thailand, and Vietnam. Until her death in 1973, she continued to publish numerous fictions and non-fictions to fund the Foundation.

The Korean War provided Buck with an international stage to practice her belief in the adoption and welfare of mixed-race children. She wanted to break racial prejudice against mixed-race children, which made it difficult for them to find an adoptive home. As one of the most ardent supporters of the civil rights of African Americans, she anticipated that her home country would take mixed-race children as part of American families and the nation.

1) Emily Cheng, "Pearl S. Buck's American Children: US Democracy, Adoption of the Amerasian Child, and the Occupation of Japan in Hidden Flowers," *Frontiers* Vol. 35, No. 1 (2014), pp.187-188.

Welcome House and Buck's Activism for Transracial Adoption

Pearl S. Buck spent her first 18 years in China, where she witnessed the social ostracization of mixed-race children fathered by Westerners. In 1910, before leaving for the US to attend college, she volunteered to work at a shelter in Shanghai and met Chinese mothers of mixed-race children, who escaped from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of their Western partners. According to historian Kori A. Graves, this experience allowed her to understand the gender and racial injustice that Asian women and mixed-race Asian children suffered under Western imperialism.²⁾

Before she started her career as an activist of transracial and transnational adoption in the 1950s, Buck went through her first marriage to John Lossing Buck, the birth of her only biological child, Carol, the adoption of Janice, her second marriage to her publisher Richard Walsh, and the adoption of six more children. Her first husband was a missionary like her parents. The 1927 Nanjing Incident offered her a venue to understand Chinese people's antipathy toward Western imperialism, shaking her pride in being a member of American missionary family in China and her faith in Christian mission. At the time of the incident, she barely escaped Nanjing with Carol and Janice. Since the Nanjing Incident, instead of being a devoted missionary wife, she decided to build her career as a writer in part to provide medical care for Carol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³⁾ She met her publisher and future second husband Richard Walsh and published her first novel, *East Wind, West Wind* (1930), and *The Good Earth* (1931), which helped her win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in 1938. In 1934, she divorced John and remarried Richard. Her family returned to the US and settled in Pennsylvania. The couple adopted 4 white children in 1936 and 1937, a German black daughter fathered by an African American GI in 1951, and a Japanese black daughter in 1957. Until Walsh died in 1960, the

2) Kori A. Graves, "Amerasian Children, Hybrid Superiority, and Pearl S. Buck's Transracial and Transnational Adoption Activism," *The Pennsylvania Magazine of History and Biography*, Vol. CXLIII, No. 2 (April, 2019), pp. 179-180.

3) Karen J. Leong, *The China Mystique: Pearl S. Buck, Anna May Wong, Mayling Soong, and the Transformation of American Orientalism*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5), pp. 20-23.

couple provided foster care for many mixed-race children.⁴⁾

By the mid-1940s, Buck did not lend her support for transracial and transnational adoption. In her 1946 essay for *Cosmopolitan*, as an adoptive mother, she advised the readers against the adoption of a child whose race and nationality did not match with that of the parents.⁵⁾ Her stance on interracial adoption changed when she was asked to find a family that could adopt two American-born Amerasian children in 1948. She and her husband in their late 50s could not adopt them. It was almost impossible to find a white family that would adopt a mixed-race Asian child. Buck persuaded her husband and close friends to establish a permanent foster home for mixed-race children in their neighborhood. With the help of successful and progressive artists, writers, intellectuals, and professionals in her circle, she founded the Welcome House in 1949. Buck started her career as an advocate of adoption reform for mixed-race children with the Welcome House. She designed the Welcome House as one of the homes and neighbors in the white community, not as an isolated foster home of mixed-race children. She approached local leaders and school masters, asking them to accept these children as members of the community. She provided them with a home like any other well-to-do neighbors in town and healthy meal plans and purchased trendy clothes for them from her own pocket.⁶⁾ She made public all events at the Welcome House, anticipating that white neighbors might change their negative assumptions about mixed-race children and interracial adoption when they saw them in person.⁷⁾ In 1951, she transformed the Welcome House from a permanent foster home to an adoption agency.⁸⁾

It was daunting to place a mixed-race child in a white family due to the widespread eugenicist idea that a person of mixed race was inferior to either of the parents' races. White residents in Doylestown held a negative perception of mixed-race people. One elderly resident

4) Graves, "Amerasian Children, Hybrid Superiority, and Pearl S. Buck's Transracial and Transnational Adoption Activism," p. 194.

5) Kori A. Graves, *A War Born Family: African American Adoption in the Wake of the Korean War*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2020), p. 187.

6) Graves, "Amerasian Children, Hybrid Superiority, and Pearl S. Buck's Transracial and Transnational Adoption Activism," p. 185.

7) *Ibid.*, p. 188.

8) Graves, *A War Born Family*, p. 198.

warned that he would not remain silent if his grandchild would happen to marry one of the Welcome House children.⁹⁾ In her writing and lectures, Buck countered a eugenicist theory on the inferiority of mixed race with new scientific discovery on the superiority of mixed-race people.¹⁰⁾

A major obstacle to the adoption of mixed-race children came from the institutional practice of matching the race, nationality, and religion of a child and that of adoptive parents. This practice of matching rendered nonwhite or mixed-race children almost unadoptable. The financial and age requirements for adoptive parents were hard to meet for most African Americans and poor whites. So upper to middle class whites had an access to adoption service and they adopted white children. Ellen Herman, historian of adoption in modern America, identified Buck as one of the earliest critiques of matching who led the adoption revolution of midcentury America.¹¹⁾ She criticized that adoption professionals' obsession with matching neglected demands for adoption for children with "special needs", i.e., disabled, mixed-race, and nonwhite. In her 1955 essay titled "The Children in Waiting: The Shocking Scandal of Adoption," she deplored that adoption professionals refused to connect children with special needs and parents who were willing to adopt them because they did not match. She wrote, "We can tear down the walls that keep them prisoners of red tape, prejudice and religious division. . . . We can refuse to accept the excuse that there are not enough children to satisfy adoptive parents."¹²⁾ Adoption professionals felt offended by her accusations, noting that she did not have professional knowledge of adoption business.

Indeed, Buck believed in the democratization of adoption, arguing that decisions to place children to adoption should not be monopolized by professionals. As a biological and adoptive mother,

9) Graves, "Amerasian Children, Hybrid Superiority, and Pearl S. Buck's Transracial and Transnational Adoption Activism," p. 189.

10) Ibid., pp. 190-192.

11) Ellen Herman, *Kinship by Design: A History of Adoption in the Modern United Stat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8), pp. 204-215.

12) Pearl S. Buck, "The Children Waiting: The Shocking Scandal of Adoption," *Woman's Home Companion*, September 1955, p. 33, pp. 129-132, <https://pages.uoregon.edu/adoption/archive/BuckTCW.htm>

also as a practitioner of interracial adoption at the Welcome House—because professionals did not care about mixed-race children—she was confident that nonprofessionals like her might make better decisions. Adoption professionals shared her suggestions to change adoption regulations to embrace demands for the adoption of children with special needs. But they were apprehensive about allowing nonprofessionals to provide adoption service because it required discretion and experience.

Pearl S. Buck and Korean Amerasians

The Korean War, which was the first major proxy war during the Cold War, was about to change the ways in which average Americans viewed interracial adoption. In the 1950s, racial segregation ruled the US. In the South, interracial marriage was banned until anti-miscegenation laws were ruled unconstitutional in 1967. Neither was interracial adoption allowed. Even in the North, very a few Americans chose to marry or adopt a child across racial lines. It is estimated that during the Korean War more than 100,000 children including approximately 1,500 mixed-race children were orphaned.¹³⁾ The U.S. Congress passed the Refugee Relief Act of 1953, which allowed Americans to adopt overseas children without seeing them in person by way of transnational adoption agencies. This practice of proxy adoption expedited the entire process of transnational adoption, which would have taken longer if the norms and regulations of domestic adoption set by professionals were applied to.¹⁴⁾ Adoption professionals at the International Social Service-USA (ISS-USA) kept an eye on the ways in which Harry Holt and Pearl S. Buck practiced proxy adoption. While she shared their concern that proxy adoption would increase risks for failed adoption, Buck prioritized the dire need of placing mixed-race Korean children in the US.

Both Buck and Holt persuaded Americans to adopt Korean Amerasians out of love and humanitarianism. A Cold War

13) 아리사 오 지음, 이은진 옮김, 『왜 그 아이들은 한국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나: 해외 입양의 숨겨진 역사』 (서울: 뿌리의 집, 2019), pp. 46-47.

14) Herman, *Kinship by Design*, p. 218. Proxy adoption was banned in 1961.

anticommunist sentiment also played a part. Communists were likely to spread propaganda that the US abandoned mixed-race Korean children fathered by American GIs. What distinguished Buck's advocacy for transracial and transnational adoption was that she believed in the superiority of Korean Amerasians (because they were mixed race). While Holt and other evangelical Americans saw themselves as saviors of poor mixed-race Korean children, Buck contended that America would be benefited from having these brilliant mixed-race children as members of American families.¹⁵⁾ It can be said that she was in full support for the emergence of America as a multicultural nation with the adoption of Korean Amerasians.

The transnational adoption of Korean Amerasians opened a door to interracial adoption in the US but it was limited to the placement of Korean Amerasians fathered by white GIs to white American families. Korean-Black children were likely to be left behind and suffered discrimination in Korean orphanages. In 1957, the vice director of ISS-USA Susan Pettiss asked Buck to write an article for encouraging African Americans to adopt black Korean Amerasians. In the African American magazine *Ebony*, she published an article titled "Should White Parents Adopt Brown Babies?" Within several months since the article was published, the Welcome House received 625 calls for consulting adoption. In fact, ISS-USA asked her to return all adoption requests to them but she did not mention the contact information of the ISS-USA in the article. This incident ended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ISS and her.

Differing opinions about rules of adoption also split the ISS-USA and Buck. The ISS-USA applied rules and regulations on domestic adoption to international adoption while Buck believed that they should be relaxed. Many African American families did not meet the requirements for adoptive parents who were supposed to be under age 40 and financially stable. African Americans, who found it difficult to have an access to adoption professionals, called the Welcome House to see if they could adopt black Korean Amerasians. Buck encouraged both black and white Americans to join the efforts

15) Graves, "Amerasian Children, Hybrid Superiority, and Pearl S. Buck's Transracial and Transnational Adoption Activism," p. 197.

to adopt black Korean Amerasians, noting the intellectual and physical superiority of mixed-race blacks. As an adoptive mother of two mixed-race black daughters, she published an article titled "I Am the Better Woman for Having My Two Black Children" in 1972.¹⁶⁾ Despite her efforts, compared to full-Korean and white Korean Amerasian children, black Korean Amerasian children were the least likely to be adopte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urged intercountry adoption agencies to focus on this issue.¹⁷⁾

Into the 1960s, Buck came up with another plan to help mixed-race Asian children and their mothers. In 1960, she told the Welcome House board members that she wanted to open an opportunity center in Korea, which would provide mixed-race Korean children and their mothers with education, counseling, and job training opportunities. Board members did not approve her plan. She personally provided a fund to conduct a survey on mixed-race children with the Child Welfare Committee in South Korea.¹⁸⁾ In 1963, Welcome House board members still refused to approve her plan.

In 1964, Buck founded the Pearl S. Buck Foundation. Her fundraising efforts targeted top US government officials such as Robert McNamara, then secretary of defense. She persuaded them to grant the foundation to help mixed-race Koreans settle in South Korea. She maintained that an American aid to the welfare of mixed-race Koreans was conducive to US policy toward Korea. Noting that France and the Netherlands granted citizenship to Eurasians in their colonies, she made a point that the U.S. Government should express its sense of responsibility toward the children born to its citizens in a form of financial assistance.¹⁹⁾

In 1965, the Pearl S. Buck Foundation opened its first branch in Bucheon, Korea—the Sosa Opportunity. Buck was not the only American who devised a social program for mixed-race Koreans. George P. Whitner, American Presbyterian missionary, ran a program called Eurasian Children Living as Indigenous Residents (ECLAIR) with

16) Pearl Buck, "I Am the Better Woman for Having My Two Black Children," *Today's Health*, January 1972, 21-22, 64. <https://pages.uoregon.edu/adoption/archive/BuckIBW.htm>.

17) Graves, "Amerasian Children, Hybrid Superiority, and Pearl S. Buck's Transracial and Transnational Adoption Activism," p. 202.

18) *Ibid.*, pp. 203-204.

19) *Ibid.*, p. 205; Graves, *A War Born Family*, pp. 218-219.

the ISS-USA. ECLAIR and the ISS, funded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viewed that local Koreans gradually accepted mixed-race Korean children as members of their communities. Buck continued to send messages about racism targeting mixed-race people in Korea and contradicted the ISS-USA's evaluation of the level of tolerance for mixed-race children in Korea.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anceled its support for ECLAIR because the Pearl S. Buck Foundation offered similar service. Buck created tensions among childcare professionals in both Korea and the US by hiring young Americans who had no experience in childcare as staff members for the opportunity center. The Sosa Opportunity Center suffered unskilled management and scandals until it was closed in 1975.²⁰⁾

As one of the early advocates for transracial and transnational adoption in midcentury America, Buck and the Welcome House made significant efforts to tap into the conscience of Americans. The Pearl S. Buck Foundation and the Sosa Opportunity Center helped Korean Amerasians settle in South Korea. Unlike Holt who saw Americans as a rescuer of mixed-race Korean children from a poverty-stricken country under a communist threat, Buck maintained that Korean Amerasians would benefit their adoptive American family and the nation with their excellence.

20) Graves, "Amerasian Children, Hybrid Superiority, and Pearl S. Buck's Transracial and Transnational Adoption Activism," pp. 205-206; Graves, *A War Born Family*, pp. 215-219; pp. 98-99; Catherine Ceniza Choy, *Global Families: A History of Asian International Adoption in America*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2013), pp. 98-99; Yuri W. Dulan, *The First Amerasians: Mixed Race Koreans from Camptowns to Americ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24), pp. 90-98.

펠 벅과 냉전의 사생아들

박진영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펠 벅이 드러낸 한국, 한국이 숨긴 펠 벅

대중에게 널리 사랑받으며 인기를 끌었으나 평단이나 학계에서 외면당한 작가는 흔하다. 노벨문학상이나 풀리처상의 영예를 누리고도 문학사에서 오래 기억되지 못한 작가 역시 적지 않다. 그런데 전 세계적인 명성과 권위에도 불구하고 동시대는 물론 후대까지 유난히 인색한 평가에 시달린 경우가 펠 벅이다. 펠 벅은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양 문학의 계보에서 뒤쳐졌으며, 미국 문학의 전통에서도 적절한 자리를 찾지 못했다. 펠 벅은 자신이 엄연히 속하면서도 늘 경계를 넘나든 “여러 세계” 사이에서 침묵하는 타자의 목소리를 되살렸지만 그중 어느 세계에서도 환대받지 못했고 진지하게 기록되지 않았다.

펠 벅에게 열렬한 환호와 갈채를 보낸 한국은 예외적인 것처럼 보이기 십상이다. 펠 벅의 소설은 1950년대에 집중적으로 번역되면서 광범위한 독서 열기를 불러일으켰다. 1960년 펠 벅의 첫 번째 방한에 발맞추어 기념 문집이 상재되고, 곧이어 대표작과 자서전을 망라한 전 15권의 선집이 1962년에 완간된 것은 한국에서 펠 벅에 대한 평가를 사실상 매듭짓다시피 했다. 펠 벅은 1950~1960년대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일 뿐 아니라 단일 작가 선집이 출간된 최초의 여성 작가다. 또 1980년대까지 총 8종의 선집이 잇달아 유통되어 펠 벅을 향한 한국인의 관심과 애호가 사그라지지 않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펠 벅의 성취와 역사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다루거나 신중하게 평가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펠 벅의 문학적 명성을 대변하는 『대지』(1931)는 물론 전후(戰後)의 몇몇 문제작은 근년에 이르러서야 간신히 조명되기 시작했다. 펠 벅의 사회적 실천이나 사상적 영향력이 한국 사회에 남긴 공과에 관해서도 매한가지 형편이다. 심지어 한국인의 삶과 한국의 운명을 그린 『갈대는 바람에 시달려도』(1963)와 『새해』(1968)조차 과장되거나 편향적인 찬사 말고는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다.

펠 벅의 아동문학으로 눈길을 돌려보더라도 사정이 별다르지 않다. 펠 벅은 중국에서 작가로 나설 때부터 미국에서 타계할 때까지 40여 년 동안 20여 편의 아동문학 작품을 꾸준히 창작했다. 『동풍 서풍』(1930)과 『대지』에 바로 뒤이어 발표한 『젊은 혁명가』(1932)는 중국 청년이 겪은 혁명과 변혁의 소용돌이를 그렸다. 그런데 아동문학이라 보기에 다소 모호할뿐더러 선교 목적으로 원고료를 받아 창작했기 때문인지 펠 벅 스스로 작품 목록에서 뺄 만큼 미련을 보이지 않았다. 전후의 빼어난 수작 가운데 하나임이 틀림없는 『해』

일』(1948)은 펄 벅이 “여러 세계” 가운데 세 번째 세계로 꼽은 일본을 배경으로 삼은 매력적인 동화다. 에도 시대의 유명한 우키요에(浮世繪)를 삽화로 곁들인 이 작품은 그해 아동연구협회 아동도서상을 수상했으며, 1960년 미일 합작 영화로 제작할 때 펄 벅이 많은 공을 들였으나 아쉽게도 상영이 무산되었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매슈, 마크, 루크, 존』(1967)은 한국의 아메라시안 어린이들을 본격적으로 다룬 이야기다. 뜻밖에도 이 작품은 한국어로 번역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거의 언급되지도 않았다. 동맹국 주둔군으로 인해 빚어진 혼혈 고아라는 지극히 불편한 이슈를 다룬 탓이라 치더라도 심각한 문제다. 한국인에게 펄 벅이 혼혈 고아의 어머니로서 각인되고 신화적으로 예찬해 마지않은 바로 그 주제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하다.

『매슈, 마크, 루크, 존』을 확대한 그간의 사정은 한국에서 펄 벅을 우호적인 동시에 매우 편향적으로 이해해 왔음을 뜻한다. 또 펄 벅에 대한 한국인의 애정이란 기실 전투적이고 비타협적인 펄 벅의 면모를 가린 채 “모성애”라는 한정된 영역으로 축소해 온 임의적이고 주관적인 내력을 통해 가능했음을 다시 한번 입증한다. 어쩌면 펄 벅이 “어머니 대지”라는 구시대의 낡고 감상적인 여성 상징으로 박제되고 만 것은 펄 벅 자신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닐지 모른다. 무엇보다 펄 벅의 문학적 실천과 사회적 실천 양자가 냉전 시기 분단국가라는 첨예한 역사성 속에서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녔는지 의심할 필요를 제기한다. 기묘할 정도의 펄 벅 열풍 속에서도 문힐 수밖에 없었던 『매슈, 마크, 루크, 존』은 전후 펄 벅의 소설을 오늘날 다시 읽으면서 정치적 맥락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어야 마땅하다.

기지촌의 아메라시안, 이름 없는 존재들

펄 벅의 『매슈, 마크, 루크, 존』은 1960년대 여덟 차례에 걸친 방한과 그사이 펄벅재단 한국지부(1965)와 소사회망원(1967) 설립, 그리고 장편소설 『갈대는 바람에 시달려도』와 『새해』 사이에 발표되었다. 펄 벅의 행보에서 우연한 일이 아닐뿐더러 한국에서도 펄 벅 열기가 최고조에 이른 때였다. 하와이 태생인 마모루 푸나이의 삽화를 곁들인 이 책은 2년여 만에 6쇄, 25,000부를 돌파했으나 눈에 띈 정도는 아니더라도 미국에서 적잖은 반향을 얻은 편이다. 반면 한국에서는 이 책의 출간 소식을 애써 외면했다. 펄 벅의 최신 동향을 관통하면서 홍보에도 매우 효과적일 법한데 방한 기사나 대담, 소사회망원이나 『새해』에 관한 언급 어디에서도 이 책의 존재는 시사되지 않았다.

『매슈, 마크, 루크, 존』의 표제는 부산의 다리 밑 굴속에서 생활하는 혼혈 아동 4명을 가리키는데, 복음서 저자를 한국식으로 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이름이기도 하다. 고작 11세인 매슈는 비참한 지경에 빠진 더 어린

아메라시안 소년들을 이끌며 아버지 역할을 맡는다. 그러다 미군 샘이 매슈를 입양하기로 결정한다. 매슈는 “아버지의 나라” 미국 생활에 곧바로 적응하지만 세 아이를 잊지 못한다. 샘 부부는 이웃을 설득해서 세 소년의 입양을 주선하여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한다. 동화다운 낭만적 결말이요 계몽적인 약점도 크지만 자기를 증언할 수 없는 아메라시안 소년에게 시선과 목소리를 부여하고 이웃의 공감과 공동의 책임을 강조한 점은 기억할 가치가 있다. 물론 이 작품이 겨냥한 독자가 한국인이 아니라 미국인, 특히 혼혈아 국제 입양을 지지하고 후원할 수 있는 중산층이거나 혹은 그 자녀들이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매슈는 네 명의 소년들 가운데 유일하게 미군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있고, 자기 이름으로 물려받은 아이다. 그러나 1년 전 어머니가 부산 시내에서 매슈를 버렸고, 그 뒤로 다리 밑 굴속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다. 마크, 루크, 존은 애초에 이름도 없이 버려진 아이들이다. 예닐곱 살 정도인 마크는 서울에서 살다가 부산으로 와서 한국어를 말할 줄 모르는 상태로 미군 기지 앞에서 어머니에 의해 버려졌다. 매슈라는 이름을 들은 미군 병사가 아무렇게나 마크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을 따름이다. 일고여덟 살 정도인 부랑아 루크는 시내에서 도둑질로 살아가다 매슈에게 떠넘겨졌다. 다섯 살도 안 된 갈색 피부의 존은 쓰레기통에서 먹을거리를 뒤지다가 찾아낸 새로운 형제다. 루크와 존에게 이름을 지어 준 것은 어느새 가족의 리더이자 아버지가 된 매슈다.

네 명의 소년이 어머니에게조차 버림받은 것은 그들이 “아버지에게 속할 뿐 ‘우리’에게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머니나 어머니의 가족에게도 속하지 않는 이방인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서로 다른 피를 타고난 아이들은 단지 ‘그들(그것들)’이라는 대명사로만 불린다. 이를테면 “또 ‘그들’ 중 하나”라거나 “우리는 ‘그들’이야”라는 식으로만 발화될 뿐이다. 아이들이 이름조차 갖지 못한 채 내던져진 것은 일차적으로 미군 아버지가 버렸기 때문이지만 실제로는 한국인 어머니가 버렸기 때문이며,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 ‘그들’이기 때문이다.

펄 벅은 ‘그들’의 존재가 사회적으로 가시화되는 순간을 냉정하지만 생생하게 그렸다. 실제로 매슈를 비롯한 ‘그들’은 고아가 아니며, 단지 고아가 되기 위해 버려졌을 뿐이다. 시내나 미군 기지 앞에서 유기된 소년들은 전쟁고아나 길 잃은 미아가 아니라 한국인 어머니가 있는 혼혈의 혼외자 혹은 사생아다. 따라서 ‘그들’이 미국인 아버지에게 속하거나 속해야만 한다는 전제야말로 명백히 모순이거나 동어 반복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이 애당초 ‘우리’에 속하지 않는 단 하나의 이유가 혼혈이기 때문이다.

지워진 어머니들

『매슈, 마크, 루크, 존』은 ‘그들’이 고아가 아니면서도 왜 고아가 될 수밖에

없는지, 때로는 고아가 되어야만 하는지 말해 준다. 미군에 의해 남겨지거나 버려진 것은 아이들만이 아니다. ‘그들’의 어머니도 미군에게 버림받았으며, 마찬가지로 ‘우리’에 속하지 않는다. 그녀들은 기지촌이나 그 주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미군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으며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 양공주나 양색시라 일컬어진 그녀들 역시 엄연히 존재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지워진 자들이다. 『매슈, 마크, 루크, 존』의 초반부에서 매슈와 마크의 어머니가 아이들을 유기하는 장면이 실감 나게 그려지긴 하지만 펠 벅은 그녀들의 삶을 더 뒤쫓지 않는다. 또 매슈 일행의 뒤를 보아주는 젊은 경찰이 등장하는데, 경찰은 아이들에게 다리 밑 굴속 생활 대신 고아원에 들어가기를 권한다. 그런데 우연히 미군 기지의 크리스마스 파티에 휩쓸려 들어가면서 매슈에게는 미국 입양이라는 전혀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마크, 루크, 존도 미군 기지 안의 아동보호센터에서 지낼 수 있게 된다.

혼혈아의 어머니가 고아원이나 입양 기관에 자식을 들여보내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방안은 아이를 유기하거나 혹은 자신이 자살하는 희생을 통해서다. 예컨대 펠 벅이 1968년 마지막 방한 때 입양해서 그린힐스 농장으로 데리고 간 구순이(줄리 헤닝)의 어머니 경우가 그러하다. 1950년대부터 시작된 이른바 국제 입양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직 상상에도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국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심지어 법적 근거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 기관을 통해 국제 입양을 산업화하면서 오늘날까지 무려 20여만 명을 대규모로 송출한 최대 아동 수출국이다. 그중에서 혼혈아가 우선순위였던 것은 당연한데, 공식적으로 1955년부터 1961년까지만 하더라도 2,600여 명, 실제로는 수천 명의 혼혈아가 정책적으로 해외에 입양되었다. 물론 그 뒤로도 한국 사회는 정부 차원에서든 민간 산업 차원에서든 혼혈아 국제 입양에 열을 올렸다. 한국전쟁 후 10여 년 동안 이미 수많은 혼혈아가 태어나 자라고 있었고, 그 후에도 아메라시안은 계속 태어났기 때문이다.

아쉽게도,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현명하게도 펠 벅은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는 한국 여성들의 삶과 운명에 더 이상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펠 벅은 한국전쟁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합법적 성 착취와 매매춘, 기지촌 여성에 대한 사회적·계급적 차별에 눈감는 대신 시급한 혼혈 아동 구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결과적으로 펠 벅의 휴머니즘은 국제 입양의 산업화와 호황을 둘러싼 문제의식을 둔화시키는 데 일조했으며, 한국의 가부장적 순혈주의에 가담하거나 그것과 적극적으로 공모한 셈이다. 『매슈, 마크, 루크, 존』에 대해서라면 지나치게 가혹한 평가일지 모르지만 이듬해 내놓은 『새해』에서 똑같은 문제가 되풀이된다면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펠 벅이 미래의 새로운 인종으로 지명한 혼혈아의 “아버지 나라” 찾기를 그린 『새해』는 한국인 어머니 순희를 미친한 매춘부나 기지촌 위안부와 구별하

기 위해 지나치게 노력했다. 유명 요정의 마담이 된 순희를 신비롭고 이상화된 한국 여성으로 미화하며, 한국전쟁의 참상과 분단으로 인한 여성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한다. 그녀는 전통 예술가이자 확고한 민족주의자로서 단호하게 순혈의 가부장적 가족의 일원이 되기를 선택한다. 그녀가 아들의 양육비로 받은 4,000달러(당시 1인당 GDP는 미국 약 4,300달러, 한국 약 200달러)는 동서양 양측에서 부계 혈통의 완전성과 가부장의 권위를 동시에 실현해 준다.

시종일관 백인 엘리트 여성의 입장에서 낭만적이지만 비틀린 해법을 이끌어낸 『새해』에 견준다면 『매슈, 마크, 루크, 존』은 혼혈아 매슈의 시선으로 아버지와 “아버지의 나라”에 대한 갈망을 급격하게 실현해 보인다. 그런데 네 명의 ‘그들’ 소년이 미군 기지 안에 들어서자마자 이야기의 주인공 자리는 미군 샘에게 넘어간다. 샘은 매슈를 만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입양을 결정해 버리고, 하룻밤 사이에 매슈의 운명이 바뀐다. 아동문학 특유의 단순화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다. 이때부터 백인 남성이자 주둔군 병사 샘이 명실공히 새로운 가부장이자 삶의 지배자가 되기 때문이다. 샘은 미국에 있는 부인에게 전화로 매슈 입양 소식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새해』에서 주인공 로라 대신 가부장인 남편이 자신의 친자식을 공개하는 마지막 장면과도 조응하는 대목이다.

오직 아버지에게만 속하는 사생아

펠 벅이 『매슈, 마크, 루크, 존』과 『새해』에서 혼혈아를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정작 주둔군 기지촌이나 매춘 여성의 존재를 드러낼 수 없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뜻하는가? 한국에서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속하는 법이라는 기묘한 말을 왜 끊임없이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가? 펠 벅이 한국의 단일 민족 신화나 순혈주의를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말해도 좋은가? 중국이나 일본의 혼혈 문제를 관대하고 유연하게, 또 비판적 거리를 두며 성공적으로 그린 데 반해 유독 한국에 대해 비현실적일 만치 강박적인 펠 벅의 인식은 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한국의 가부장주의에 대한 펠 벅의 유난스러운 강조는 일면 진실이기도 하면서 다른 일면에서는 명백한 왜곡이거나 의도적인 기피다. 혼혈아를 부계에 귀속시킴으로써 어머니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거나와 여성과 아이를 모두 모른 채하는 동맹국 주둔군 남성의 책임 역시 방기하기 때문이다. 혼혈의 친자식을 버릴 수밖에 없는 여성에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현실을 결과적으로 한국 가부장주의의 탓으로 돌리며,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국가 혹은 국제 차원의 남성 중심적 폭력이나 역사적 책임을 외면하게 마련이다. 그래서 펠 벅의 혼혈아들은 자신을 버린 남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를 찾을 뿐이다. 혼혈아 국제 입양이 책임 당사자들의 시혜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물론 매슈는 새로운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에 알 수 없었다. 진짜 아버지와 어머니랑 함께하는 삶, 그가 미국인이라는 사실에 기뻐할 새로운 나라에서의 삶, 그가 반만 미국인이라도 상관하지 않을 곳, 심지어 그가 받은 한국인이라는 사실도 흥미로워할 곳에서의 삶이었다. 실제로 그들은 그 사실을 흥미롭게 여길 것이다.

매슈에게 다가온 “새로운 삶”이란 한국전쟁과 분단의 책임, 그리고 냉전 체제의 당사자인 미국과 그 주둔군의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곳에서 펼쳐진다. 매슈와 매슈 어머니의 존재를 모두 부정한 미국인 남성, 매슈에게 이름을 물려준 바로 그 남성에게 더 이상 주의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펄 벅은 전후 15년 뒤에도 왜 뉴욕의 샘이 부산에 와 있는지, 또 매슈 뒤로도 어째서 새로운 아메리시안 소년들이 계속 태어나고 버려지는지, 여전히 부산에 남아 있을 매슈 어머니와 그녀의 동료들은 어떤 운명에 처할지 묻지 않는다. 펄 벅은 『새해』에서 충분히 이 물음을 던질 기회가 있었으나 그러지 않았다.

혼혈아의 존재 자체를 정당화할 필수적인 물음을 생략함으로써 샘과 루스 부부, 그리고 매슈는 냉전의 책임이 실종된 새로운 가족으로 탄생한다. 펄 벅은 국적도 호적도 갖지 못한 ‘그들’이 한국이라는 가부장적 분단국가에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향이 아니라 국제 입양을 통해 주한 미군 출신의 샘을 중심으로 새로운 미국적 가족을 구성하는 방향, 그래서 냉전 시대의 미국 중심적인 가부장적 가족주의를 재생산하고 그 정치적 역능을 재확인하는 길을 제안한 샘이다.

그렇다면 『매슈, 마크, 루크, 존』의 해피엔드를 편의적인 감상주의로만 몰아붙일 수는 없다. 펄 벅이 한사코 책임을 돌린 한국의 가부장주의는 기실 『한국서 온 두 처녀』(1951; 1953)에서 일찌감치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것이 전후 미국의 가족주의에 어떤 쓸모가 있는지 노골적으로 말해 주기 때문이다. 『한국서 온 두 처녀』는 잡지에 발표한 뒤 단행본으로 출간하지 않은 채 펄 벅이 작품 목록에서 제외했거니와 졸작임이 분명하다. 문제는 한국에 관한 인식의 기원과 효용을 펄 벅이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나고 자란 젊은 백인 여성 자매가 한국전쟁 때문에 귀국했다가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다. 그녀들은 순종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목소리로 전후 미국인의 이기주의와 속물적 욕망을 타매하며, 봉건적이고 가부장적인 태도로 미국적 가치관과 서구의 물질주의적 유혹에 맹렬하게 맞선다. 백인의 피부를 가진 그녀들의 정신은 오리엔탈리즘적으로 신성화된 한국인의 것이다. 펄 벅은 백인 중산층 여성의 한국적 가부장주의를 도구로 삼아 전후 미국의 가족주의를 재건하고자 했다. 그러한 일련의 시도가 한국의 보호자이자 세계 가부장으로서 미국의 역사적 책무를 역설한 『갈대는 바람에 시달려도』를 거쳐 냉전 시대의 아메리시안 문제와 맞

부딪친 『매슈, 마크, 루크, 존』과 『새해』에 이르러 증폭되었다.

미국의 가부장적 책임이란 무엇인가?

펄 벅의 소설이 한국에서 놀라운 인기를 누린 것은 어쩌면 바로 그 가부장주의의 교묘한 친연성 덕분일지 모른다. 표면적으로 현모양처 모델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으면서 정치적으로는 냉전 시대의 미국 중심주의에서 배태된 이데올로기가 전후 한국에서 휴머니즘이나 모성에 신화와 절묘하게 부합한 것이 아닐까? 그사이 한국 독자들은 차별과 불평등에 항의하며 민주주의를 향해 분투해 온 펄 벅의 기억을 잊기 시작했다. 펄 벅 열풍의 이면을 새삼 숙고함으로써 시대적 오독에서 건져 내는 일이야말로 펄 벅의 정당한 정치성을 회복하는 지름길이 될 터다.

특히 한국과 한국인을 다룬 펄 벅의 작품이 매우 이례적으로 여성의 목소리를 들려주지 않는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전후 펄 벅의 값진 공헌 가운데 하나임이 틀림없는 아시아 여성 재현과 혼혈의 상상력은 냉전 체제 최전선의 주둔군과 반공주의 군부 독재 국가라는 남성 동맹적 가부장들 사이에서 무력했다. 매슈를 비롯한 ‘그들’을 구제하고 “새로운 삶”을 제공한다는 가부장들의 연대는 기지촌 여성과 혼혈 아동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폭력, 그리고 반인권적인 국제 입양 산업에 대한 면책의 알리바이를 제공했다. 펄 벅은 전후의 미국인에게 새로운 가족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실천을 촉구했지만 오늘날의 한국인을 향해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현재 진행형의 문제를 던진 샘이다.

Pearl Buck and Children Abandoned During the Cold War

Park Jin-yeong
Sungkyunkwan University

Korea Revealed by Pearl Buck, Pearl Buck Concealed by Korea

Many authors enjoyed significant popularity but were ignored by critics and academic circles. Some authors have not been remembered in literary history, even after winning the Nobel Prize or the Pulitzer Prize. However, Pearl Buck is a notable case where the author faced particularly harsh criticism, both during her lifetime and in later generations, despite her international fame and influence. She lagged behind in the Western literary tradition centered in Europe and struggled to find a proper place within the American literary canon. Buck revived the voices of others who remained silent between the “several worlds” she rightly belonged to yet constantly crossed, but she was neither welcomed nor thoroughly documented in any of them.

Korea, which passionately cheered and applauded Pearl Buck, may seem like an exceptional case. Her novels were widely translated in the 1950s, sparking a popular reading craze. The release of a commemorative anthology to mark Pearl Buck’s first visit to Korea in 1960, followed by a 15-volume collection of her key works and autobiography in 1962, solidified Pearl Buck’s reputation in Korea. She was not only the most successful bestselling author of the 1950s and 1960s but also the first female writer to have a single-author anthology published. Furthermore, eight more anthologies were also published through the 1980s, showing the ongoing interest and admiration Koreans had for her.

Even so, it is hard to say that Korea made real effort to objectively examine or carefully assess Pearl Buck’s achievements and historical influence. <The Good Earth> (1931), which defines her literary reputation, along with several controversial works from the postwar period, has only recently started to attract attention. The same goes for Pearl Buck’s social practices and her ideological impact on Korean society. Even works like <The Living Reed> (1963)

and <The New Year> (1968), which depict the lives and destinies of Koreans, received little recognition, aside from exaggerated or biased praise.

It is no different when we look at Pearl Buck's children's literature. Over a span of 40 years, from her debut as a writer in China until her death in the United States, she consistently wrote about 20 children's works. <The Young Revolutionist> (1932), published right after <East Wind: West Wind> (1930) and <The Good Earth>, depicts the whirlwind of revolution and change experienced by young Chinese people. However, Pearl Buck was not hesitant to exclude it from her collection because it is somewhat ambiguous as children's literature, and it may have been written for missionary purposes and financed accordingly. <The Big Wave> (1948), undoubtedly one of her most notable postwar works, is an engaging children's story set in Japan, which Buck called the third of her "several worlds." With famous ukiyo-e from the Edo period included as illustrations, it won the Children's Book Award from the Children Study Society that year. Pearl Buck also dedicated significant effort to producing its joint US-Japan film in 1960, but unfortunately, it was never released.

<Matthew, Mark, Luke, and John> (1967), which deserves our attention, is a story about Amerasian children in Korea. Surprisingly, this work has never been translated into Korean and is rarely mentioned. Even if it addresses the uncomfortable issue of interracial orphans related to the Allied Forces, it remains a serious problem. This is especially true because Pearl Buck is deeply ingrained in Korean culture as the mother of interracial orphans and has long been revered and mythologized.

The neglect of <Matthew, Mark, Luke, and John> reveals that Koreans have had a mostly positive yet deeply biased view against Pearl Buck. It again shows that Koreans' fondness for Pearl Buck comes from a subjective and arbitrary perspective that has overlooked her combative and uncompromising nature, limiting her to the narrow idea of "maternal love." Pearl Buck might be blamed for being reduced to an outdated, sentimental symbol of "Mother Earth," but this is not the only reason. It also raises the need to question the meaning and value of her literary and social work within the sharp historical context of a divided nation during the

Cold War. <Matthew, Mark, Luke, and John>, which was overlooked even during the unusual enthusiasm for Pearl Buck, should be an opportunity to revisit her postwar novels today, encouraging reflection and deeper understanding of their political background.

Amerasians of Military Camp Towns, Nameless Beings

Pearl Buck's "Matthew, Mark, Luke, and John" was published between her eight visits to Korea in the 1960s, the founding of the Pearl S. Buck Foundation Korea (1965), the Sosa Opportunity Center (1967), and the release of her novels <The Living Reed> and <The New Year>. This timing was no coincidence, considering Buck's career, and it coincided with the height of the Pearl Buck fever in Korea. Illustrated by Hawaiian-born Mamoru Funai, the book went through six printings and sold over 25,000 copies in just two years, showing a notable, if not extraordinary, response in the United States. In contrast, news of its publication was purposely ignored in Korea. While it could have effectively promoted Pearl Buck's work and stayed relevant to current events, the book was never mentioned in any articles about her visit, interviews, or any references to Sosa Opportunity Center or <The New Year>.

The title of <Matthew, Mark, Luke, and John> refers to four interracial children living in a cave under a bridge in Busan. It also refers to the Korean translation of the Gospel authors: Matthew, Mark, Luke, and John. Matthew, just 11 years old, assumes the role of father to the younger Amerasian boys, who are in a dire situation. Later, Sam, an American soldier, decides to adopt Matthew. Matthew quickly adjusts to life in America, his "father's country," but he cannot forget the three children. Sam and his wife persuade their neighbors to facilitate the adoption of the three boys, allowing them to live together. While the ending is a romantic fairytale and lacks strong moral lessons, it is worth remembering for giving a voice and perspective to the Amerasian boys, who could not speak for themselves, and for highlighting the empathy and shared responsibility of neighbors. Undoubtedly, it does not target Koreans but Americans, especially middle-class families or their children who can support and sponsor international adoptions of interracial

children.

Matthew is the only one of the four boys who knows his father's name—an American soldier—and inherited his last name. However, a year ago, his mother abandoned him in downtown Busan, and he has been living alone in a cave under a bridge since then. Mark, Luke, and John were abandoned even before they were given names. Mark, around six or seven years old, lived in Seoul before coming to Busan and was abandoned by his mother in front of a US military camp before learning to speak Korean. An American soldier who heard the name Matthew gave him the name Mark half-heartedly. Luke, a seven- or eight-year-old street kid, was left with Matthew after stealing to survive in the city. John, with brown skin and under five years old, is a new brother found while scavenging through trash. Matthew, who has become the family's leader and father, named Luke and John.

The reason the four boys were abandoned even by their mothers was because they “belonged to their father, not to ‘us’.” Not belonging to ‘us’ meant they were strangers, even to their mother or her family. These children, born with different bloodlines, were only referred to by the pronoun “they (them).” For example, they were only spoken of as “another one of ‘them’” or “we are ‘them’.” The main reason these children were abandoned without even being given names was primarily because their American fathers abandoned them, and also because their Korean mothers abandoned them, ultimately because they were “them” who did not belong to “us.”

Pearl Buck objectively, yet vividly, depicted the moment ‘they’ became socially visible. In reality, Matthew and ‘them’ were not orphans, but they were simply abandoned as orphans. The boys abandoned downtown or in front of the American military camp were not war orphans or lost, but rather the illegitimate or interracial children of Korean mothers. The very premise that ‘they’ belong or should belong to American fathers is clearly contradictory or tautological. The only reason ‘they’ do not belong to ‘us’ in the first place is because they are of a mixed race.

Erased Mothers

<Matthew, Mark, Luke, and John> explains why ‘they’ are not orphans, yet they inevitably become, and sometimes must become, orphans. It is not only children who are left behind or abandoned by American soldiers. Their mothers are also abandoned, and they too do not belong to ‘us.’ These women must survive in the camptowns and their surroundings, forming complex relationships with American soldiers in various ways. Often called ‘yanggongju’ (Western princesses) or ‘yangsaeksi’ (Western brides), they exist but are socially erased. Pearl Buck vividly depicts Matthew and Mark's mothers abandoning their children in the opening scene of <Matthew, Mark, Luke, and John>, but offers no further detail about their lives. There is also a young police officer who watches over Matthew and his group, recommending that the children go into an orphanage rather than live in a cave under a bridge. However, Matthew accidentally attends a Christmas party at a US military camp and is given a new life through adoption in the U.S. Mark, Luke, and John are also placed in a child protection center on the camp.

The extreme measures a mother of an interracial child might consider included placing her child in an orphanage or adoption agency, or facing abandonment and suicide. This was the case for the mother of Goo Sooni (Julie Henning), whom Pearl Buck adopted during her final visit to Korea in 1968 and brought to Green Hills Farm. The true story of what happened during the so-called international adoption process, which started in the 1950s, remains unclear. However, Korea was the first country to industrialize international adoption through private agencies, even before establishing a formal legal framework. To this day, it has sent over 200,000 children abroad, making it the world's largest exporter of children. Naturally, interracial children were prioritized. Officially, about 2,600 children of mixed races were adopted overseas between 1955 and 1961, though the actual number was likely much higher. The Korean society continued to actively promote international adoptions of interracial children well beyond that period, both through government initiatives and private agencies. In the decade after the Korean War, countless interracial children were already

being born and raised, and the birth of Amerasians persisted even later.

Unfortunately, yet wisely, Pearl Buck no longer paid attention to the lives and fates of Korean women who had no choice but to abandon their children. Instead of turning a blind eye to the legalized sexual exploitation, prostitution, and social and class-based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camptowns that persisted even after the Korean War, she focused on rescuing mixed-race children, which was more urgent. Consequently, Pearl Buck's humanism contributed to dulling the critical mind surrounding the industrialization and boom of international adoption, and it was close to actively participating in, or even conspiring with, Korea's patriarchal puritanism. While this may be an overly harsh assessment of <Matthew, Mark, Luke, and John>, it is not insignificant if the same issues persist in <The New Year> published in the following year.

<The New Year>, which portrays the search for a "father's land" for an interracial child—whom Pearl Buck identified as a new race of the future—goes to great lengths to portray the Korean mother, Soon-hee, as separate from the lowly prostitutes and comfort women of the camptown. It elevates Soon-hee, who becomes the owner of a prestigious, high-class restaurant, as a mysterious and idealized Korean woman, completely ignoring the horrors of the Korean War and the suffering of women caused by the country's division. As a traditional artist and dedicated nationalist, Soon-hee firmly chooses to become part of a pure-blooded, patriarchal family. The \$4,000 she received in child support for her son (the per capita GDP was about \$4,300 in the United States and \$200 in Korea at the time) simultaneously symbolizes the strength of patriarchal lineage and authority in both the East and the West.

Compared to <The New Year>, which consistently presents romantic yet twisted solu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a white elite woman, <Matthew, Mark, Luke, and John> profoundly explores the longing for a father and a "father's country" through the eyes of Matthew, an interracial child. Sam, the American soldier, becomes the main character once the four boys enter the US military base. After meeting Matthew, Sam decides to adopt him on the spot, and Matthew's life changes overnight. It would be too simple to see this

as a typical children's literature simplification because Sam, a white American soldier stationed in Korea, steps into the role of the new patriarch and head of his family from this point forward. All it takes is a phone call to his wife in the US to tell her about Matthew's adoption. This aligns with the final scene of <The New Year>, where the husband, the patriarch, reveals his biological child instead of the main character, Laura.

Abandoned Children, Only Belonging to the Father

Pearl Buck struggled to address the presence of garrison towns or prostitutes while highlighting interracial children in <Matthew, Mark, Luke, and John> and <The New Year>. What does this signify? Why does she keep repeating the strange statement that in Korea, a child belongs to the father? Is it fair to say that Pearl Buck fully understood Korea's myth of a single ethnicity or pure-bloodedness? While she successfully depicted mixed-race issues in China and Japan with a generous, flexible, yet critical perspective, where does her unrealistic obsession with Korea originate?

Pearl Buck's focus on Korean patriarchy is partly accurate, but also partly a clear distortion or intentional avoidance. By blaming the father for interracial children, it erases the presence of the mother and ignores the responsibility of the men in the Allied Forces, who are indifferent to both women and children. Ultimately, it blames Korean patriarchy for the fact that no one protects a woman who has no choice but to abandon her biological child who is of mixed races, while overlooking the male-centered violence and historical responsibilities that underlie this reality, both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Pearl Buck's mixed-race children do not seek the man who abandoned them, but instead seek their "father's country." It is inevitable that international adoption of mixed-race children remains limited to the benevolence of those responsible.

Of course, Matthew didn't immediately understand what his new life would entail. It's a life with his real father and mother, in a new country where they would be happy to know he was American, a place where they wouldn't mind being

half-American, even finding his half-Korean identity interesting. In fact, they would find it fascinating.

The "new life" that awaited Matthew took place in a place completely free from the burdens of the Korean War, Korea's division, and the responsibilities of the U.S. and its garrisoned forces during the Cold War. It's only natural that the American man who denied both Matthew and his mother's existence, the very man who gave Matthew his name, no longer gets attention. Pearl Buck seems uninterested in why Sam from New York ended up in Busan 15 years after the war, why new Amerasian boys keep being born and abandoned after Matthew, or what might happen to Matthew's mother and her companions who are still in Busan. Pearl Buck had many chances to ask these questions in <The New Year>, but she chose not to.

By omitting the crucial question that would justify the very existence of interracial children, Sam, Ruth, and Matthew form a new family, unaware of the Cold War's implications. Pearl Buck suggests that 'they,' who lack citizenship and family registration, create a new American family centered around Sam, a former American soldier stationed in Korea, through international adoption rather than seeking social acceptance in the patriarchal, divided nation of Korea. In doing so, she reproduces the American-centric patriarchal familialism of the Cold War era and reaffirms its political power.

In this context, the happy ending of <Matthew, Mark, Luke, and John> should not be dismissed as mere sentimentality. The Korean patriarchalism that Pearl Buck often criticized had already been established in <Love and the Morning Calm> (1951; 1953), which clearly shows its usefulness to postwar American family ideals. <Love and the Morning Calm> was published in a magazine but was never released as a book, and was omitted from Pearl Buck's official works, highlighting its notable flaws. The issue lies in Buck's blunt portrayal of the origins and usefulness of her view of Korea. Young white sisters, born and raised in Korea, return home due to the Korean War and become orphans overnight. With their submissive, male-centered voices, they condemn the egoism and materialism of

postwar Americans, and with their feudalistic, patriarchal attitudes, they strongly oppose American values and the West's material temptations. Their spirits, housed in white bodies, are Korean, sanctified through Orientalism. Pearl Buck aimed to recreate the postwar American family system by leveraging the Korean patriarchy of white middle-class women. This effort was further highlighted in <The Living Reed>, which stressed America's historical role as Korea's protector and global patriarch, and in <Matthew, Mark, Luke, and John> and <The New Year>, which addressed the Amerasian issue during the Cold War.

What is the Patriarchal Responsibility in America?

The remarkable popularity of Pearl Buck's novels in Korea may stem from her clever connection with patriarchy. Possibly, the ideology shaped by Cold War Americanism, which superficially resembles the model of the good wife and wise mother, also seemed to align well with the myths of humanism and maternal love in postwar Korea. Meanwhile, Korean readers are beginning to forget Pearl Buck's fight for democracy and her protests against discrimination and inequality. Reexamining the other side of the Pearl Buck craze and clearing up her current misinterpretations could be the quickest way to restore her true political importance.

It is especially significant that Pearl Buck's works, which focus on Korea and Koreans, rarely include women's voices. The depiction of Asian women and the portrayal of mixed race, undoubtedly one of Buck's most important contributions after the war, were rendered powerless by male-dominated patriarchs of the Cold War's frontline garrisons and anti-communist military regimes. These patriarchs' solidarity in rescuing 'them,' including Matthew, and offering 'new lives' provided a pretext for state and social violence against women in camptowns and interracial children, as well as the inhumane international adoption industry. Pearl Buck offered postwar Americans the idea of a new family and urged them to put it into practice, but for Koreans today, she presents an ongoing, unresolved problem that remains to be addressed.

필 S. 벅의 장편소설 『살아있는 갈대』에 재현된 조선 기독교
- 하나의 시론(試論)

정정호
문학비평가, 중앙대 명예교수

들어가며: 개화기와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기독교 문제

필 S. 벅은 미국에서 태어난 지 3개월 후에 중국 선교사 부모님과 함께 중국으로 이주했다. 그 후 40년간을 중국에서 살았다. 필 벅은 어려서부터 중국어와 중국문화에 빠지기도 했다. 한때는 오래된 고유한 전통을 가진 중국에 선교를 통해 기독교를 전파하는 것에 대해 회의를 느끼기도 했으며 미국선교사 협회에서 추방되기도 했다. 그러나 필 벅의 사유의 밑바닥에는 기독교의 절대적 가르침인 사랑이 깔려있다. 그는 어려서 선교사 어머니가 재미있게 읽어준 『이야기 성서』를 감명 깊게 들었다. 그 후 필 벅은 죽기 2년 전인 1971년에 *The Story Bible*을 자신이 직접 써서 출간했다. 필 벅의 모든 사상은 『성경』에 토대를 둔 박애주의(博愛主義, humanitarianism, philanthropism)이다.

필 벅의 장편소설 『살아있는 갈대』(*The Living Reed*, 1963)는 1881년부터 1950년까지 70년간의 조선 사대부 집안의 4대에 걸친 근현대 역사 소설이다. 이 소설의 부제는 “A Novel of Korea”로, “한국에 관한 소설”이다. 1938년 노벨문학상을 받은 『대지』 이후 필 벅의 최대걸작으로 평가된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구한 말 권세 있는 집안의 자제인 김일한으로 당시 임금인 고종(1852-1919)과 왕후인 민비를 가끔 만날 수 있는 조정의 중신이었다. 당시 조선의 왕 고종은 국내의 문제에서 아버지 대원군과 왕비 민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다. 이 개화기 시기에 외국과의 교류를 반대하는 척화파와 개방을 주장하는 개화파가 서로 다투고 있었던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점에 놓여있었다.

이 역사 대하 소설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복합적으로 전개된다. 가장 중요한 플롯은 주인공 김일한의 가문이 유교 국가인 조선 말 역사의 전환기에 어떻게 국가와 개인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기독교(야소교)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일제강점기에 기독교가 조선의 개인과 사회에 끼친 영향들을 외국 작가의 입장에서 비교적 공평무사하게 재현(再現, representation)하고 있다.

이 장편소설의 무대가 된 당시 조선 사회는 오래 계속된 유학 전통의 신분제와 불교가 주요 종교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조선 전통 사회는 기독교에 의해 새로운 자극과 각성을 주기 시작했다. 개인의 평등, 공감, 용서,

사랑 등의 새로운 개념들이 개인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 나아가 일제강점기의 선교사들과 기독교는 새로 일어나기 시작한 민족자결주의와 결합하여 식민통치에서의 독립운동과 해방의식을 고취시켰다. 동시에 조선인들은 선교사들이 가지고 온 근대식 학교와 병원의 설립을 통해 근대 교육과 의료제도를 처음 경험하였다. 특히 교회의 설립과 함께 선교사들에 의해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통해 한글의 보급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더욱이 교회는 그 핵심교리인 모든 교인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형제자매라는 평등의식으로 조선의 양반과 상인을 구별하는 고착된 신분제도를 혁파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구한 말에 들어온 기독교는 당시 조선의 민중과 사회에 근대적 개인의식과 개화사상을 확산시키기 시작했다.

본론: 일한의 아들 작은아들, 연환 가정의 기독교의 길

당시 한반도의 위중한 전환기 상황 속에서 주인공 일한은 자신의 아버지 세대의 사상이나 종교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아버지는 옛 왕조의 화려한 꿈을 안고 공자의 가르침 속에서 산 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한은 자기 시대의 모든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고루한 철학이나 종교를 참을 수가 없었다. 중국에서 들어온 공자의 가르침은 바다와 산으로 이미 고립된 나라를 더욱 고립시켰고, 불교는 이 나라 백성의 마음을 천당과 지옥, 신과 악마 등 허황된 말로 현혹하여 쓰라린 현실로부터 눈을 돌리게 했다. (『살아있는 갈대』 장왕록, 장영희 번역, 13쪽, 이하 같은 책)

일한은 선비였지만 경서만 파고드는 선비가 아니라 서양에도 열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화파 지식인이었다.

일한은 평소에 조선이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중국문화의 영향 아래 있었으니 이제는 서양과의 교류가 불가피함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래도록 낡은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 왔다는 말이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서양의 영향을 받도록 우리들 자신을 방임하는 말은 아니네. 우리가 많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끼여 어느 정도 그들의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의 숙명이네.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것, 접목하고 혼합하는 것,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로 만들어 독립된 국가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과제네...” (27-28쪽)

일한은 1866년에 강화도에서 프랑스 함정이 강화도에서 일으킨 병인양요와 1871년에 미국의 제너럴 셔먼호가 강화도 침공 사건에 대한 청나라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고종의 왕비인 민비에게 자신의 견해를 대담하게 개진하였다.

“마마, 신은 아직도 우리가 불란서 신부들을 살해한 것이 유감이옵니다. 그리고 분풀이로 미국 상선 제너럴셔먼 호(號)를 공격한 것은 더욱 그러하옵니다. 미국 선원을 죽인 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이었사옵니다.” (72쪽)

이에 대해 민비는 “서양 나라에서 온 망명자, 배신자, 모반자, 집도 절도 없는 놈들이 모인 잡종들”이라고 받아치며 일한의 생각을 수락하지 않았다.

그 후 이 소설에서 예수교(당시 야소교(耶蘇教)라 불렀다)에 대한 첫 언급이 등장한다. 실학(實學)을 옹호하는 개화파 지식인 일한은 다시 민비와 독대한 자리에서 조선의 국익을 위해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용기를 내어 말한다.

“요새 그 숫자가 너무 많아진 것은 사실이옵니다. 사방에 야소교인 천지인 데다가 혁명의 조약돌을 품고 다니옵니다. 하오나 마마, 이제는 그자들을 죽여서는 아니 되옵니다. 그자들을 받아들여야 하옵니다. 종교 때문이 아니라 그자들이 서양의 학문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이옵니다. 비록 야소교인이라 할지라도 들어오게 하소서. 그자들로부터 야소교만 빼놓고는 무엇이든지 다 배워야 하옵니다. 우리가 그들 나라로 갈 수 없으니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해야 하옵니다.” (154쪽)

일한은 야소교가 조선 근대화에 꼭 필요한 종교임을 믿고 있었다.

일한은 아버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자 서양 의사를 처음 만나기도 했다. 그 후 1882년에 조선은 미국과 조미통상조약을 맺은 후 일한은 1883년 9월 13일에 민영익, 유길준 등과 더불어 조선 대표의 한 사람으로 미국 수도 워싱턴에 도착하여 선진국 문화를 둘러보았다. 그는 “미국에서 배울 점이 아주 많다”고 결론 짓고 낙후된 조선을 개화시키고 근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미국을 배워야 한다고 강하게 믿게 되었다. 조선에 대학을 세우고 조선 유학생을 미국에 많이 보내 근대 선진 문물을 빨리 배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국에 체재 중에 자신의 상투를 잘라 버리고 1884년 5월 일한은 제물포항을 통해 귀국하였다. 귀국 후 1884년의 동학난도 겪고 1895년에 민비가 일본에 의해 죽임을 당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인 을미사변도 겪었다. 일본은 1905년 강제로 을사늑약을 체결했고, 그 후 1910년 8월 29일 일본은 조선을 합병하여 완전히 식민지 지배국으로 만들었다.

일한은 아내 순희와의 사이에 두 아들 연춘과 연환을 두었다. 큰아들인 연춘은 국내에서 지하 독립운동을 하다 잡혀 투옥되고 고문을 받았다. 그 후 탈출하여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조선을 떠났다. 둘째 아들 연환은 국내에 남아 아버지인 일한처럼 서양 문명을 받아들여 조선을 근대 국가로 운영할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아들은 기독교 집안인 인덕이라는 처녀를 경성의 학교에서 동료교사로 만나기 시작했다. 인덕은 연환에서 「신약성서」를 선물로 주었다. 당시 일제 당국은 기독교는 식민 통치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매우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들은 “선교사들이 조선인들에 대해 동정적일뿐 아니라 기독교 자체가 혁명성을 띠고 있다”(318쪽)고 보았다. 1904년 러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를 거두고 일본 수상이 조선을 방문하자 수상을 암살하려는 21명의 조선인 중 18명이 기독교인이었다.

둘째 아들 연환이 기독교 신자인 인덕과 신식결혼을 개척하였다. 그는 식민지 치하에 기독교인으로서 받은 고난과 갈등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였고 자신이 결국 기독교인으로 개종하였다.(346쪽) 이 시기 연환의 기독교에 대한 기대는 다음의 그의 말 속에 잘 나타나 있다.

“...우리 동포들은 기독교인이 되면 아주 헌신적으로 움직입니다. 현세에서는 별로 기대할 것이 없으니까요. 제 경우도 충족과 믿음과 어떤 영감 같은 것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앞날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우리 동포 중 일부는... 예컨대, 저희 아버님 같은 분은 시작(詩作)과 고전 공부에서 피난처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런 학식이나 재능이 없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들은 교회와 목사님처럼 힘 있는 서양인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교회와 서양인들을 통해 일제 침략자들이 차단하고 있는 저 외부 세계, 새롭고 현대적인 문화에 접하고자 합니다.” (350쪽)

조선 식민지 통치 과정에서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무고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일제는 자신들의 사악한 행동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반발을 일제 당국은 정부에 대한 반역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둘째 아들 연환은 서양 목사로부터 “원수에게 뺨을 맞으면 다른 뺨도 내밀라”는 “사랑의 복음”인 기독교 교리에 대해 듣기도 한다. 결국 연환은 기독교로 개종한다. 그 후 그는 경성의 한 기독교 학교의 교장직을 맡았다. 그 후 연환은 “낮설고 신비스러운 의식”인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까지 받으면서 새로 태어나 조선 기독교인으로서 결의를 단단히 한다. 그는 “조선인 기독교도... 그렇다. 앞으로 그는 새로운 종교 기독교에 귀의한 조선인”(377쪽)으로 살아갈 것이다.

조선 기독교인이 된 연환은 양반인 자신의 신분을 낮추고 다양한 계층의 교인들과 겸손과 온유함으로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제 연환은 자신도 배우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전에 없던 겸손한 마음이 들었다. 교회에는 양반이 아닌 무지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다. 처음에는 자랑스러운 가문 출신인 자신이 이들과 뒤섞여 이들을 형제라고 불러야 하다니, 하고 주저하던 연환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양반의 오만을 말끔히 씻어 버렸다. 그것은 너무나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려, 그는 이전의 그 오만이 사라졌다는 것 이외에는 그것이 어떻게 없어졌는지도 알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는 이제 여기 이 교회의 사람이었고, 여기 이 교회의 사람들이야말로 그의 진정한 형제들이었다. (380쪽)

교회에서는 양반과 상놈, 부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구별 없이 그저 “교회의 사람”들만 있었다.

1914년 유럽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1917년에는 미국도 참전하게 되었다. 1차 대전이 끝날 무렵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민족자결주의”를 주창하여 일제 하의 조선 민족에게 독립과 자유에 대한 커다란 희망과 열정이 생겼다. 이에 조선 교회의 신자 수가 대폭 늘어났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조선인은 이제 노예나 다름이 없었다. 노예가 아닌 조선인이 있다면 그들은 침략자들에게 자신을 팔아먹은 매국노들이었다. 이런 암울한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오로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침략자의 마수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주리라는 희망 속에서 서로 결속하고 있었다. (407쪽)

윌슨 대통령은 민족자결주의 선언으로 외국의 침략으로 고통받는 조선 같은 모든 피압박 민족을 구해줄 것이라는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1919년은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지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 해이다. 고종의 승하와 더불어 조선 반도의 학생들은 독립만세운동에 대한 전국적인 쫓김의 조짐이 있었다. 3.1만세운동 이전에 전국에 의심되는 세력의 체포령이 내려져 연환의 처 인덕은 딸아이를 등에 업은 채 체포되어 재판 받았다.

그 과정에서 인덕은 큰 부상을 입어 미국인 의사의 치료를 받았다. 3.1독립만세운동 사태가 한반도 전국적으로 번지자 연환의 아버지 일한은 미국에 가서 직접 우드로 윌슨 대통령을 만나고자 했다. 아버지는 세계 도처에서 독립운동을 벌이는 조선 동포들을 위하고자 했다.

“...세계 곳곳에서 조선의 망명객들이 해방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 2백만이 넘는 동포들이 남의 나라 땅에서 고국으로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지.

1백만 명은 만주에, 80만 명은 시베리아에, 30만 명은 일본에, 그리고 또 그 수를 알 수 없는 동포들이 중국, 멕시코, 하와이, 미국에 있단 말이다. 나는 조선의 한 노인으로서, 조선의 아버지로서 미국에 가는 거야. 우드로 윌슨도 아마 내 하얀 머리를 존중할 게다.” (431-432쪽)

『살아있는 갈대』에는 경성에서 1907년 결성된 전국 규모의 국권 회복을 목적으로 결성된 신민회가 등장한다. 신민회는 여러 나라에서 조선의 자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1919년 3월 1일 경성 탑골공원에서 시작된 독립만세운동은 “독립선언문” 낭독으로 시작되었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명의 민족대표 중 15명이 기독교인이었다. 3.1만세운동 직후인 1919년 4월 15일 경기도 화성군 제암리 교회에 독립운동에 가담한 기독교인들을 색출하는 과정에서 교회 건물에 불을 질러 대부분 화마에 타서 죽고 도망하는 자를 총칼로 무자비하게 죽이는 대규모 학살 사건이 있었다. 마침 이 교회에 인덕과 딸이 함께 있었다. 남편 연환은 불 속에 있던 아내와 딸을 구하기 위해 교회로 뛰어 들어갔으나 안타깝게 모두 희생되었다. 홀로 남은 연환과 인덕의 아들 양은 조부모인 일한과 순이가 키웠고 부모를 따라 기독교인이 되었다. 선교병원인 미국인 기독교 병원에서 인턴과정을 밟고 있다.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일한의 큰아들 연춘이 귀국했다. 조카 양은 아주 오랫동안 큰아버지 연춘을 반갑게 만났다. 양은 큰아버지의 중국에서의 활동을 귀담아 들었다. 연춘은 조카 양에게 식민지 조선에 미친 기독교의 효과에 대해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모든 나라 가운데 미국만이 우리 땅을 강점하지 않았고 우리를 지배하려 들지도 않았다는 사실만 기억하자. 나는 그 나라 선교사들을 잊지 않고 있다.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고 종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마는, 그 사람들은 병원과 학교를 세웠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었어. 선교사들 말이다. 선교사들은 우리를 대변해 주었지.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그 사람들 잘못이 아니야. 각국 정부가 귀 먹고 눈 먼 거지. 그런 점에서 나는 미국인들을 인정한다!” (567쪽)

연춘이 중국과 만주 등을 돌며 독립운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보고 느낀 후에 조선 근대화에 개신교와 선교사들을 파견한 미국이 큰 기여를 했음을 인정하는 것인가?

나가며: 기독교가 조선에 끼친 영향

지금까지 일한의 작은아들 연춘의 가족 중심으로 일제강점기의 생활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독교가 조선에 끼친 영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서양사정에 대한 지식과 정보 전달
2. 미신의 타파와 도덕의 진흥: 고질적인 계급 의식 타파에 기여
3. 근대 문화의 보급: 학교, 병원, 신음악 보급
4. 여성의 지위 향상: 조혼 제도, 축첩제도 폐지와 남녀 평등 사상
5. 국권 상실 후 자주독립을 위한 민족운동 의지 고취
6. 한글의 보급과 발전
7. 새로운 사상의 자극을 받아 개인의 자각, 민족의식의 자각
8. 조선의 문물들이 선교사들을 통해 서양에 소개

이 소설에서는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지만 “근대 어문 발전과 신문학운동에 기여한 『천로역정』 번역(1895년 한국 최초의 서양 소설 번역), 성경 번역, 찬송가 보급” 등도 들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살아있는 갈대』는 한 가족의 4대에 걸친 대하소설이며 동시에 역사서지학적인 측면에서 재평가가 필요하다. 이밖에도 ‘한국의 역사, 정치, 문화, 종교’에 관한 많은 주제들이 들어있는 이야기들의 보물창고이다.

조선 민중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사회 체제 유지와 일상생활의 도덕 규범에 관한 유교의 가르침은 있었으나 사후세계에 대한 비전이 없었다. 불교는 개인의 구도 생활을 통한 결코 쉽지 않은 깨달음을 강조하고 윤회사상만 제시할 뿐이었다.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전에 뿌리 내린 민중들의 무속 종교인 샤머니즘의 구복신앙은 새로운 것이 없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유일신 사상과 메시아 사상을 통해 조선 민중들에게 개인의 구원과 사회 개혁과 해방, 죽음 후에도 부활하여 살 수 있다는 영생(永生) 사상을 제시하였고, 이는 고통스런 현실 생활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한반도는 지난 수천 년 동안 샤머니즘, 불교, 유교가 차례로 들어와 지배했으나 구한 말 개화기와 일제강점기에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신앙 체계인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다행히 한반도는 다종교 다원주의 사회였으므로 서로 다른 종교들은 커다란 갈등 없이 공존하고 있다. 과거 불교와 유교가 그랬듯이 기독교의 유입으로 한반도는 기독교 신앙 시대를 새롭게 여는 시작일까?

An Essay on Christianity in Joseon Represented in Pearl S. Buck's
Novel <*The Living Reed*>

Jeong Jeong-ho
Literature Critic, Professor Emeritus at Chung-Ang University

Introduction: The Issue of Christianity in Joseon during the
Enlightenment Period and the Japanese Occupation

Pearl S. Buck moved to China with her parents, who were missionaries, only three months after she was born in America. She lived in China for forty years since then. Throughout her childhood, Pearl Buck was immersed in the Chinese language and culture. At one time, she felt skeptical about transmitting Christianity through missionary work in China, which has an old and unique tradition, and left the association of missionaries.¹⁾ However, love, the absolute teaching of Christianity, has always been the foundation of her reason. She was deeply moved by <*The Story Bible*> that her mother read to her when she was young. Later, she wrote and published her own <*The Story Bible*> in 1971, just two years before her death. All of Pearl Buck's ideologies are of humanitarianism and philanthropism based on <*The Bible*>.

Pearl Buck's full-length novel, <*The Living Reed*, 1963>, is a near-modern historical novel that depicts the four generations of an aristocratic family in Joseon, spanning 70 years from 1881 to 1950. The subtitle of this novel is "A Novel of Korea." It is argued to be her greatest masterpiece after <*The Good Earth*>, which won the Nobel Prize for Literature in 1938. The main character of this novel is Kim Il-han, the son of a powerful family in the Late Joseon Period. He was an important figure in the government who could occasionally have audiences with King Gojong (1852-1919) and Queen Min. King Gojong, the king of Joseon at the time, attempted to maintain a balance between his father, the Prince Regent, and Queen Min regarding domestic issues. During the Enlightenment Period, the Anti-foreign Faction, which opposed exchange with foreign nations, and the Enlightenment Faction, which insisted on opening the

nation's doors to the world, were engaged in a struggle with each other, situating the Korean Peninsula at a historically pivotal point.

Various stories are unfold in a complicated and complex manner in this historical saga. The most important plot of the novel mirrors how the family of Kim Il-han, the main character, accepted Christianity to work out the country's destiny as well as his own during the historic turning point while nearing the end of the Confucian country, Joseon. At the same time, it represents the impact of Christianity on Joseon's individuals and society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relatively impartially from a foreign writer's perspective.

The main religion of Joseon society at the time, which serves as the backdrop of this novel, was the long-standing class system rooted in Confucian traditions and Buddhism. Against this historical background, the traditional society of Joseon encountered new influences and awakenings brought by Christianity. Concepts like individual equality, sympathy, forgiveness, and love began to shape people's lives. Additionally, missionaries and Christianity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combined with the emerging principle of national self-determination, inspired independence movements and awareness of liberation under colonial rule. Meanwhile, the people of Joseon gained access to modern education and medical system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new schools and hospitals by missionaries. Notably, <The Bible> translated into Korean by missionaries and the establishment of churches accelerated the spread of hangeul. Furthermore, churches started to challenge the fixed class system—discriminating between aristocrats and commoners—by promoting the idea of equality that is central to Christian doctrine, which views all believers as brothers and sisters in God. In other words, Christianity, introduced late in the Joseon period, began to foster modern individual awareness and enlightenment among the people and society of Joseon.

Body: Christian Path of Il-han's Younger Son Yul-han's Family

During the crucial transi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e main character, Il-han, viewed the ideas and religions of his father's generation with considerable skepticism.

... His father who lived in the classics of Confucius and in dreams of the golden age of the dynasty of Silla! But he, Il-han, like all young men of his generation, was impatient with old philosophies and religions. Confucianism, borrowed from China, had isolated this nation already isolated by sea and mountain, and Buddhism had led the hermit mind of his people into fantasies of heaven and hell, gods and demons, into anything, indeed, except the bitter present. (p13, <The Living Reed>, translated by Jang Wang-rok and Jang Yeong-hee, the same book hereinafter)

Il-han was a classic scholar, but he was also an enlightened intellectual with an open interest in the West, not just someone who only studied Confucian classics.

Il-han always felt strongly that it was inevitable for Joseon to engage with the West because it had been under the influence of Chinese culture for too long.

"...We have been too long under the influence of the ancient Chinese. Not that we should allow ourselves to be wholly under the influence of the West, mind you! It is our fate, lying as we do between many powers, to be influenced to an extent by all and many. It is our task to accept and reject, to weld and mingle, and out of our many factions to create ourselves, the One, an independent nation." (p27-28)

Il-han boldly shared his opinion with Queen Min, the queen of King Gojong, who trusted the Qing regarding the French campaign against Korea that occurred in Ganghwado Island in 1866 and the invasion of Ganghwado Island by the U.S. armed merchant ship, the General Sherman in 1871.

“I still regret, Majesty, that our people massacred the French Christians,” Il-han said, “and even more, that in our anger we attacked the American merchant ship, the General Sherman. And the worst folly was that we killed the American crew.” (p72)

Queen Min retorted, “... The cast-offs, the renegades, the rebels, the younger sons, the landless and the homeless of other western nations...”, not accepting Il-han’s thoughts.

Christianity is first mentioned later in the novel. Il-han, an enlightened intellectual supporting Silhak (Realist School of Confucianism), nervously asserts in a private meeting with Queen Min that Christianity must be accepted for the benefit of Joseon's national interest.

“There are too many of them now, it is true,” he agreed. “They swarm everywhere, and they carry the pebbles of revolution. But we can no longer kill them, Majesty. We must accept them, not because of their religion, but because they come from the West and they bring Western learning to us. Let them come, Christian though they are. We must learn everything of them except religion. We cannot go to their country, therefore we must let them come here, for our own sakes.” (p154)

Il-han believed that Christianity was an essential religion for Korea's modernization.

When his father suffered a cerebral infarction, Il-han met a Western doctor for the first time. After Joseon signed the Treaty of Peace, Amity, Commerce, and Navigation with the United States in 1882, Il-han arrived in Washington, D.C., on September 13, 1883, as a representative of Joseon, along with Min Young-ik and Yu Kil-chun, to observe the culture of an advanced nation. Concluding that “there was much to learn from the United States,” Il-han became strongly convinced that Joseon needed to actively learn from the U.S. to modernize and enlighten the underdeveloped Joseon. He emphasized the need to establish universities in Joseon and to send

many Joseon students to the U.S. to learn about modern and advanced culture quickly. During his stay in the U.S., Il-han cut off his topknot and returned to Korea via Jemulpo Port in May 1884. After returning, he experienced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of 1884 and the Eulmi Incident of 1895, which was the assassination of Empress Myeongseong by the Japanese. Japan forcibly concluded the Protectorate Treaty between Korea and Japan in 1905, and on August 29, 1910, Japan annexed Korea, turning it into a full colony.

Il-han and his wife Sunia had two sons, Yul-chun and Yul-han. Yul-chun, the eldest son, was arrested, imprisoned, and tortured for his involvement in the underground independence movement in Korea. He later escaped and left Korea to continue fighting for independence abroad. Yul-han, the younger son, remained in Korea, believing that, like his father Il-han, he should embrace Western civilization and learn how to modernize Joseon. He started dating a Christian girl named Induk, who was a fellow teacher at a school in Gyeongseong. Induk gave Yul-han <*The New Testament*> as a gift. The Japanese authorities at the time saw Christianity as a threat to colonial rule and adopted a hostile stance. They believed that “the missionaries were not only sympathetic to the Korean people, but that Christianity itself possessed revolutionary elements” (p. 318). In 1904, when Japan won the Russo-Japanese War and the Japanese Prime Minister visited Korea, 18 of the 21 Koreans who plotted to assassinate him were Christians.

Yul-han, the second son, planned a modern wedding with Induk, who was a Christian. He decided to accept the hardships and conflicts he faced as a Christian under colonial rule and eventually converted to Christianity himself (p. 346). Yul-han's views on Christianity during this period are well reflected in his words here:

“... And my people when they become Christians are altogether devoted—there is too little else in our life nowadays. I feel the need in myself for enrichment and faith and some sort of inspiration. There seems no hope ahead. Some of us, like my father, find refuge in writing poetry and studying ancient literature. But what of those

who have no such learning and no such talent? They are finding their interest in the Christian Church and in strong men from the West like you, through whom they seek connection with that outer world, a stream of culture new and modern from which we are cut off by the invaders.” (p350)

During Korea's colonial period, Japanese imperialists began persecuting innocent Christians. The Japanese authorities labeled the Christians' resistance to their unjust actions as treason against the government. Yul-han, the second son, learned about the Christian doctrine of "the gospel of love," which encourages "when struck by an enemy, turn the other cheek," from a Western pastor. Yul-han ultimately converted to Christianity. He later became the principal of a Christian school in Gyeongseong. Subsequently, Yul-han was baptized in the name of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a "strange and mysterious ritual," and was reborn, strengthening his commitment as a Korean Christian. He declared, "A Korean Christian... yes, from now on, he will live as a Korean who has converted to the new religion of Christianity" (p. 377).

Yul-han, now a Christian in Korea, humbled himself and lived modestly and meekly with believers from diverse social backgrounds as a devout Christian.

... He believed now that he could learn and grow. He was humble as he had never been before. There were many poor people in the church, those who were ignorant and who were not yangban. At first he had been reluctant to think that he must mingle with these people and call them his brothers, he who was born of a proud and ancient clan. Now he was cleansed of that pride. It did not exist in him, swept away in a moment and by what means he did not know, except that it was not there. He belonged here, and these were truly his brethren. (p380)

In the church, there were only "church people," regardless of the distinctions between aristocrats and commoners, the rich and the poor, or males and females.

In 1914, World War I broke out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entered the war in 1917. After World War I ended, U.S. President Woodrow Wilson promoted the "principle of national self-determination," which inspired great hope and passion for independence and freedom among Koreans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As a result, the number of people in the Korean church grew significantly.

Now they were no better than serfs, and the only ones who were not serfs were traitors who had sold themselves to the invaders. Only the Christians had solidarity in their hope that someday God, in whom they placed their single trust, would deliver them out of the hand of the enemy. (p407)

President Wilson's declaration of the principle of national self-determination was undoubtedly welcomed news, promising to save all oppressed peoples, such as Joseon, from foreign invasion.

1919 marked nearly ten years since the start of the Japanese colonial era. With the death of Emperor Gojong, signs of nationwide uprising for independence emerged among students across the Korean Peninsula. Before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a nationwide arrest warrant was issued for suspected individuals, and Yul-han's wife, Induk, was arrested and brought to trial, carrying her daughter on her back.

Induk was seriously injured during the process and received treatment from an American doctor. As the March 1st Movement spread across the Korean Peninsula, Yul-han's father, Il-han, traveled to the United States to personally meet with President Woodrow Wilson. He wanted to support Koreans fighting for independence worldwide.

“... Everywhere in the world our exiles are waiting for the day of freedom—two million and more abroad, waiting to come home! A million in Manchuria, eight hundred thousand in Siberia, three

hundred thousand in Japan, and who knows how many in China, Mexico, Hawaii and America? America. I go there as an old man, a father. Woodrow Wilson will respect my gray hairs.” (p431-432)

<*The Living Reed*> portrays the New People's Society, a nationwide group established in Gyeongseong in 1907 to restore Korea's sovereignty. Shinminhoe was actively engaged in advocating for Korea's independence across various countries.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which began at Tapgol Park in Gyeongseong on March 1, 1919, was initiated by the reading of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Among the 33 signatories, 15 were Christians. On April 15, 1914, shortly after the March 1st Movement, a brutal massacre took place at Jeam-ri Church in Hwaseong-gun, Gyeonggi-do, during a search for Christians involved in the independence effort. The church was burned down, with many inside trapped in the flames, and those trying to escape were slaughtered with rifles and swords. Induk and her daughter were present at the church at that time. Her husband, Yul-han, rushed into the burning church to save his wife and daughter, but tragically lost his life. Yul-han and Induk's son, Yang, was raised by his grandparents, Il-han and Sunia, and became a Christian, following his parents' example. He is now doing an internship at the American Christian Hospital, a missionary hospital.

Yul-chun, Il-han's elder son who had been fighting for independence in China, returned to Korea. His nephew, Yang, warmly welcomed his uncle Yeon-chun, whom he hadn't seen in a long time. Yang listened carefully as his uncle shared his experiences in China. Yul-chun also explained how Christianity had influenced colonial Korea, providing a clear account.

“... Let us remember only that the Americans among all nations have not seized our land or tried to rule us. And I do not forget their Christian missionaries. I am not Christian and I doubt religion, but they have opened hospitals and schools and they have been friends to us, these missionaries, and they have spoken for us and it is not their fault that they have not been heard. Governments are

deaf and blind. Therefore I accept the Americans!...” (p567)

Is Yul-chun accepting that the United States, which sent Protestants and missionarie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modernizing Joseon after observing and experiencing various things while participating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around China and Manchuria?

Closing: Impact of Christianity on Joseon

We have briefly explored lif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from a Christian perspective, focusing on Yul-chun, the elder son²⁾ of Il-han. The influence of Christianity on Joseo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spreading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about Western affairs.
2. The dismantling of superstitions and the promotion of morality: Contributing to the overcoming of deeply rooted class consciousness.
3. The spreading of modern culture: schools, hospitals, and new music.
4. The advancement of women's rights: Ending early marriage and concubinage, and promoting gender equality.
5. The cultivation of a spirit for national independence movement after losing sovereignty.
6. The spread and development of Hangul.
7. The rise of personal self-awareness and national identity, sparked by new ideas.
8. The spreading of Joseon's culture to the West by missionaries.

Although not explicitly mentioned in this novel, other impacts include the translation of <*The Pilgrim's Progress*> (the first Western novel translated in Korea in 1895), the translation of the Bible, and the distribution of hymns, all of which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modern language and literature and the new literary movement.

In this context, "The Living Reed" is a saga spanning four generations of a single family, and it warrants reevaluation from a historical and bibliographic perspective. Additionally, it is a treasure trove of stories covering numerous themes related to Korean history, politics, culture, and religion.

For thousands of years, the Joseon people followed Confucian teachings focused on maintaining social order and moral norms in daily life, but they lacked a vision for the afterlife. Buddhism emphasized enlightenment through individual pursuit of the truth, which was never easy, and offered only the concept of reincarnation. The shamanistic faith of praying for blessings, the oldest folk religion on the Korean Peninsula, was not new. However, Christianity introduced the idea of individual salvation, social reform, liberation, and eternal life through resurrection, based on its monotheistic and messianic beliefs. This brought new hope for overcoming and transcending the painful realities of life. The Korean Peninsula had been dominated by Shamanism, Buddhism, and Confucianism for millennia, but it adopted the entirely new religious system of Christianity during the Enlightenment period and the Japanese colonial era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 Fortunately,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a multi-religious and pluralistic society, and these different religions have coexisted peacefully. Could the influx of Christianity mark the beginning of a new era of Christian faith on the Korean Peninsula, just as Buddhism and Confucianism did in the past?

2부

발표4

Smantha G. Freise - 펄벅인터네셔널(PSBI)

발표5

Abraham B. Latoza - 아워 레이디 파티마 대학교(Our Lady of Fatima University)

발표6

Sophia Geng - Saint Vincent College

발표7

- 卢章平(Lu Zhangping) - 전장시 펄벅연구회(Zhenjiang Pearl S. Buck Research Association)
- 梁炜(Liang Wei) - 장쑤대학교 도서관(Library of Jiangsu University)

그녀의 눈에 비친 한국: 펄 벅의 미래 비전 1957-1964

Samantha G. Freise
 펄벅인터내셔널(PSBI) 큐레이터

펄 벅(Pearl S. Buck)이 언제 혼혈 아이를 처음 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녀가 만났던 아이들을 잊지 못했음은 분명합니다. 펄 벅은 전 생애에 걸쳐 여러 번 자신이 만났던 혼혈 아이들의 얼굴을 잊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인이었던 그녀는 평생 이 아이들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책임감과 인도적인 배려의 마음을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8년 아메리시안 아이의 곤경에 처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기 전까지 그녀는 한 번도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펄 벅이 마주한 15개월 된 데이비드 다스는 동인도계와 미국인의 혼혈아라는 이유로 "입양 불가" 상태로 방치되었습니다. 이 아이를 입양시킬 입양 기관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던 펄 벅은 번번히 실패를 거듭하자 아무도 기꺼이 이 아이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이러한 상황에 놓인 아이들을 돕기 위해 자신이 직접 기관을 설립하겠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렇게 웰컴 하우스 입양 기관(Welcome House Adoption Agency)이 탄생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책임감은 변치 않았고, 이 기관의 설립은 그녀가 전 세계 아메리시안 아이들을 돕는 데 앞장서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웰컴 하우스는 여러 부침을 겪었습니다. 점차 미국 내 입양 관련 법률 문제들이 복잡해지고 있었고,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한국인 혼혈 아동을 입양하려는 부모들이 부족함에 따라 웰컴 하우스 이사회는 기관의 미래를 재고하게 되었습니다. 1959년에서 1960년 사이에 열린 일련의 이사회 회의에서, 한국에 혼혈 아동을 위한 안정, 교육, 그리고 직업 훈련을 제공하여 국가적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시설을 설립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¹⁾ 바로 이 자리에서 펄 벅은 한국에 혼혈 아동과 그 부모들이 도움, 조언, 그리고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센터를 설립하여 한국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돕는 데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1960년 8월, 웰컴 하우스의 주요 모금 담당자이자 회장이었던 브로드웨이의 유명 작사가 오스카 해머스타인 2세가 세상을 떠나자 이사회는 펄 벅의 이러한 관심에 대해 점점 더 우려하게 되었습니다. 이사회 기록에 따르면, 당시 이사회는 큰 비용을 초래할 그녀의 아이디어 추진에 회의적이었던 반면 그녀의 거침없는 시민권 운동이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키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웰컴 하우스 이사회는 한국에 센터를 설립한다는 아이디어를 폐기했습니다.

1)웰컴 하우스 이사회 회의록. 1959년 11월-12월, 1960년 2월. 펄벅인터내셔널 보관소.

펄 벅의 한국에 대한 관심은 개인적, 도덕적 그리고 직업적 관심으로 나뉘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이에 대해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저는 새로 태어나고 잃어버린 아이들을 잇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가엾은 그들의 얼굴이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들을 위해 뭔가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참여하게 되었고, 제 이름을 딴 재단 설립 계획이 마음속에 그려지기 시작했으며 계속 방법을 고민하고 연구했습니다." 15년 이상 웰컴 하우스에서 일하는 동안 펄 벅은 한국의 상황, 특히 혼혈 및 장애 아동과 그들의 어머니, 그리고 변화하는 정치 환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서신에 따르면, 혼혈 아동, 한국의 경제, 문화, 그리고 정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1958년경 시작되었습니다. 웰컴 하우스가 혼혈 한국인 입양 지원에 대한 그들의 역할을 고려하기 시작했을 때 이미 펄 벅은 펄벅재단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한국을 선택하겠다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재단 활동의 시작을 한국에서 하겠다는 펄 벅의 이러한 결정은 아메라시안 아동에 대한 절실한 도움의 필요성, 한국 경제와 정부의 밝은 미래, 공산주의와의 투쟁, 그리고 그녀의 직접적인 경험에서 얻은 결론을 포함한 여러가지 요인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1950년대 초 웰컴 하우스 설립을 시작하면서 펄 벅은 한국 내 아메라시안 아동에 대한 보고서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1961년까지 한국 내 혼혈 아동이나 장애 아동의 실태에 대한 정확하고 포괄적인 통계 보고서는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펄 벅은 1960년 9월 국제사회봉사단(ISS)에 장애 아동, 특히 시각 장애인에 대한 ISS 보고서 사본을 요청하는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ISS 한국 대표단 단장인 앤 데이비슨(Anne Davison)은 일련의 보고서를 펄 벅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들 보고서에서도 얼마나 많은 아동에게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1960년 12월, 펄 벅의 요청으로 한국 아동 조사 위원회는 아동의 문제와 필요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펄 벅은 이러한 조사의 진행을 위해 처음으로 1,000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위원회는 보건사회부와의 협력을 통해 아직 수집이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961년 4월 앤 데이비슨(Anne Davison)은 이 조사를 완료했으며 ISS와 보건사회부에 의해 발표되었습니다. 펄 벅은 이 보고서를 통해 웰컴 하우스의 미래를 알리고자 했으며, 이 조사 결과는 1964년 그녀가 자신의 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펄 벅은 1960년 11월 초, 여원 매거진(Yowon Magazine)과 조선일보의 초청으로 한반도를 처음 방문했습니다. 이 여행은 펄 벅의 한국과 미래에 대한 인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펄 벅은 여행 말미에 "한국에 대해 더 많이 배

우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여행 중에 펄 벅은 한국의 고아와 혼혈 아동들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펄 벅은 한국의 여러 학교와 고아원을 방문하며 다수의 유명한 연설을 했는데, 그중 하나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1960년 11월 5일 대구에서의 그녀의 연설은 한국과 그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그녀의 개인적인 생각과 관련된 중요한 성명이었습니다. "모든 창조에는 자제력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펄 벅 여사의 견해에 따르면, 남한의 창조에는 이러한 미덕이 필요합니다.

웰컴 하우스는 1950년대에 이미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펄 벅은 한국 사회복지 사업의 본질과 대리 입양 문제 증가, 그리고 다른 기관들이 아이들을 입양 대상으로 선정하는 방식의 특성으로 인한 입양의 복잡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펄 벅은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계속 귀를 기울이는 한편, 홀트 입양 기관(Holt Adoption Agency)과 그 설립자인 해리 홀트(Harry Holt)에 대해서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 펄 벅은 "잇을 수 없는 인물"이라는 제목의 에세이를 썼습니다. 이 글은 1960년 11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 홀트를 처음 만났던 경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펄 벅은 1955년 홀트의 소식을 접하고 그의 입양 활동을 조용히 지켜본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펄 벅은 이 글에서 홀트의 입양 부모 선정 방식과 대리 입양 제도에 대해 갈등을 토론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당시 홀트가 아이들을 적시에 입양시키는 데 성공한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그녀의 지식으로는 다른 실행 가능한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메라시안 아동, 특히 신체 장애 아동의 곤경은 펄 벅의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이 글은 이후 그녀의 1964년 저서 『입양 보내지는 아이들 (Children for Adoption)』에 실렸습니다.

펄 벅이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 여원 재단(Yowon Corporation)으로 부터 자신의 이름을 딴 센터를 설립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²⁾ 이 제안은 펄벅 재단(Pearl Buck Foundation)이 1960년대 후반 한국에서 도입하려던 프로그램과 매우 유사했지만, 펄 벅은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사실 한국전쟁 이후 여성과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의 센터, 학교 또는 기타 단체와 협력하자는 제안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펄 벅은 아이들을 돕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펄 벅의 자택 파일 속에 보관중이던 한국 관련 메모에서 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펄 벅의 새로운 생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메모에는 한국 수출 확대 및 개혁, 국제 사업 확대, 한국 내 미국 달러의 위상, 그리고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상세히 담겨 있었습니다.³⁾ 펄 벅은

2) 여원 재단. "제안" 1960. 펄 벅 서신. 펄벅인터내셔널 기록 보관소.

국무부, 의회, 백악관을 통해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이러한 생각을 지속적으로 공유했습니다.

그녀의 서신과 개인적인 메모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녀가 미래의 한국에 대해 엄청난 가능성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1961년, 펄 벅은 한국과 아메리시안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아이디어에 대한 관심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 기간 동안 펄 벅은 저명한 교육자이자 독립 운동가인 프랭크 스코필드 박사(Dr. Frank Schofield)와 서신을 주고받았습니다. 1961년 3월 13일, 스코필드 박사는 펄 벅에게 전년도 서울 반도 호텔에서 있었던 최근 회동에 대한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스코필드 박사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가치 상실과 방향 감각의 흐릿함"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읽어볼 수 있도록 몇 가지 정보를 동봉했습니다. 펄 벅은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인 애들레이 스티븐슨(Adlai Stevenson)을 포함한 관련 관계자들과 한국 문제를 계속해서 논의해 왔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펄 벅이 이러한 사안에 대해 일반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이후의 편지들은 1961년 11월과 12월에 작성된 것으로, 5월 혁명과 박정희 장군에 대한 스코필드 박사의 의견을 자세히 담고 있습니다. 스코필드 박사는 부패를 근절하고, 남한에서 공산주의를 몰아내고,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박정희 장군의 조치가 이 시기에 필요했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펄 벅은 답장에서 편지에 대한 감사를 표했지만, 자신의 의견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펄 벅의 여정에서 중요한 순간입니다. 5월 혁명 이전까지 그녀는 한국 기업과 정부의 부패와 자금 관리 부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품고 있었습니다. 펄 벅이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를 지지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녀는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를 비밀에 부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펄 벅이 자신의 메모에서 언급했듯이 한국과 경제의 근대화화를 지지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녀는 아메리시안 어린이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는 급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서울 반도 호텔의 편지지에 쓰여 있는 펄 벅의 개인 기록에는 1961년 어느 시점에 작성된 여러 메모가 있습니다. 이 다양한 메모에서 펄 벅은 미국과 비교했을 때 소련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한국학 연구의 수에 대해 논합니다. 그녀는 미국에서의 한국학 연구의 확대를 주장합니다. 또한 5월 혁명 이후 한국에서 고조되고 있던 반미 감정에 대해서도 논합니다. 펄 벅은 자신이 우려하는 한국의 현안, 즉 미군의 한반도 철수, 학생들 사이에서 점차 커지는 중립주의 운동, 북한 관련 소식의 부재와 북한이 한국 젊은이들에게 미치는 공산주의의

3) 펄 벅, "한국에 대한 생각" 1961. 펄 벅 서신. 펄 벅 인터내셔널 기록 보관소.

영향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논합니다. 펄 벅은 또한 "북한의 폭탄"에 대해서도 우려했습니다. 펄 벅은 북한 정부가 많은 주장을 내세웠고, 이로 인해 많은 남한 젊은이들이 공산주의 선전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 메모에는 펄 벅의 남한 미래에 대한 견해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통찰력도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인들이 소외되고 무시당했다고 느꼈습니다. 반도 호텔 봉투 뒷면에 작성된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그녀의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⁴:

1. "케네디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해야 합니다. 아니면 적어도 한국에 대해 언급해서 그가 한국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2. "서울 교향악단을 이 나라(미국)에 데려와야 합니다. 그림 전시와 저명한 한국인 방문객 전시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 한국에는 서양에서 교육받은 훌륭한 성악가들이 많습니다. 시인과 예술가들도 있습니다."
3. "한국인들은 더 많은 영어 선생님을 원합니다. 좋은 선생님들 말입니다. 그들은 서구 문화의 흐름에 동참하고 싶어 합니다."
4. "도시는 분산되어야 합니다. 더 많은 소도시들이 부처를 중심으로 건설되어야 합니다. 시골 지역에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특정 업무와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현재 교육 시스템은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찾지 못해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5. "현재 제대로 된 공무원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옛 제도는 이미 사장된 과거 중국의 제도를 본떠 만들어졌습니다. 공무원 연수생을 위한 일자리도 없습니다. 가문, 인맥, 사회적 배경에 따라 누가 공무원이 될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 제도는 제대로 된 승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요컨대, 공무원 제도 개혁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6. "개별 정치 세력 간의 협력이 부족합니다. 현재 한국에는 여섯 가지 정치 세력이 존재하며, 모두 그 나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윤보선 대통령의 정직함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63세인 그는 인간적인 면은 있지만 그다지 활동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그의 부인은 학력이 높고, 스무 살 어리고, 매우 총명하며, 아주 성실한 여성입니다."

7. “한국에는 번역된 훌륭한 기술 서적이 많이 필요합니다. 미국에는 기술 서적이 매우 부족합니다. 반면 소련 러시아인들이 쓴 기술 서적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도시 계획, 조립식 주택, 제련, 단조, 그리고 모든 과학 분야에 관한 러시아어 서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8. “케네디가 한국에 와서 진행하세요.”

그녀는 남한에 공산주의가 뿌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당장 서둘러야 하며, 미국이 이 노력에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펄 벅은 한국에 대한 이러한 책임감으로 1962년 존 F. 케네디 대통령과의 회담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펄 벅은 케네디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편지를 보냈고, 여러 차례의 시도 끝에 적어도 두 번 직접 만날 수 있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과의 첫번째 만남은 1962년 4월 백악관에서 열린 노벨상 수상자 초청 만찬회였습니다. 두 번째는 1963년 1월에 열린 비공개 만찬이었습니다. 이러한 만남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펄 벅이 케네디 대통령의 외교 정책 의제에 한국을 포함시키려는 결의를 가지고 있었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힘썼다는 것입니다. 1962년, 펄 벅은 한국을 소재로 한 소설 『살아있는 갈대(The Living Reed)』를 출간했습니다. 이 책의 집필, 연구 활동, 개인적 경험, 웰컴 하우스의 지원 부족, 그리고 정치적 환경의 변화는 결국 1964년 펄벅재단을 설립하겠다는 결심으로 이어졌고, 그 첫 번째 프로젝트의 무대는 한국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이 혼혈 아이들이 그 나라의 미래에 참여할 기회를 마땅히 받아야 할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펄 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 아메리칸들이 인종적 조상이나 출생 방식에 대한 편견 없이 받아들여지고, 친절하게 대우받고, 교육과 기회에 의해 격려 받는다면, 그들의 잠재력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⁴⁾ 펄 벅은 아시아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을 알아주고 신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재단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1967년 소사회망원(Sosa Opportunity Center)을 설립하면서 펄 벅은 교육과 기회의 힘이, 특히 역경에 직면한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의 신념을 실천했습니다. 소사회망원에서 한 그녀의 헌정 연설은 이 아이들이 기회가 주어진다 면 잘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강변했습니다.

4) 펄 벅 소사회망원 헌정문. 1967년 6월 11일. 펄벅인터내셔널 기록 보관소.

Korea Through Her Eyes: Pearl S. Buck's Vision for the Future 1957-1964

Samantha G. Freise, MA, Curator

Pearl S. Buck International

It is not known when Pearl Buck saw a mixed-race child for the first time. What is known is how much she could not forget the children she encountered. On many occasions throughout Ms. Buck's life, she mentioned the faces of mixed-race children that “haunted” her. She was consistent in her firm belief that as an American she held some sort of responsibility and humane regard towards these children. Even so, when the plight of the Amerasian child came to Ms. Buck's doorstep in 1948, she never expected to become the person trying to solve one of the world's most complex problems during her lifetime. Fifteen-month-old David Das was brought to Pearl Buck's home and left as an “unadoptable” child because he was half East Indian and half American. After numerous attempts at finding an adoption agency to place him, Ms. Buck came to the conclusion that if no one else was willing, she would have to create her own agency in order to help these children. Hence, the Welcome House Adoption Agency was born. That sense of responsibility was difficult to escape, and it would lead her to her future endeavors to aid the Amerasian children of the world.

Welcome House was met with many successes and challenges. There were growing issues with adoption laws that needed to be addressed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lack of parents willing to adopt half African American and half Korean children caused the Board of Welcome House to reconsider the future of the agency. In a series of Board of Directors' meetings in 1959-1960, it was discussed that a home should be established for mixed-race children in Korea that would offer stability, education, and job training to promote change in the country.¹ It was during these meetings that Pearl Buck voiced her interest in a center in Korea that could be known as a place where mixed-race children and their parents could go for help, advice, and financial assistance with the aim of promoting their integration into the Korean community. In August 1960, Welcome House's main fundraiser and president, the famous Broadway lyricist, Oscar Hammerstein II, passed away and the Board became increasingly worried about Pearl Buck's involvement. Board documents indicate this was because her ideas were expensive to fund, and she was attracting national attention from her outspoken civil rights activism that was unwanted by the Board. The idea of a center in Korea was abandoned by the board of Welcome House.

¹ Welcome House Board of Director Meeting Minutes. November –December 1959, February 1960. Pearl S. Buck International Archives.

Ms. Buck's interest in Korea was divided by personal, moral, and professional interest. As she later recounted, "I could not forget those new and lost children. Their faces, so piteous, remained in my memory. I recognized the old compulsion. I knew I would have to do something about them. Then I was involved, and the plan for a foundation to which I would give my own name began to shape in my mind. The search was on." On a personal level Ms. Buck researched the situation in Korea, particularly mixed-race and disabled children, their mothers, and the evolving political climate over a 15-year period due to her work with Welcome House. According to her personal correspondence, specific research about mixed-race children, the economy, culture, and government of Korea began around 1958. As Welcome House considered their role in helping with adoptions of mixed-race Koreans, Ms. Buck was looking at the larger picture of what would later lead her to choose Korea as the first project for the Pearl S. Buck Foundation. Pearl Buck's personal reasoning for starting her Foundation's work in South Korea was based on several factors: the great need of the Amerasian children, the promising future of South Korea's economy and government, the fight against communism, and the conclusions from her firsthand experiences.

Pearl Buck started collecting reports on Amerasian children in Korea in the early 1950s as she developed Welcome House. Until 1961, no accurate comprehensive statistical reports on the status of mixed-race or disabled children in South Korea had been completed. Ms. Buck sent inquiries to the International Social Service (ISS) in September 1960 requesting copies of any reports the ISS had on physically challenged children, particularly the blind. A series of reports were sent to Ms. Buck by Anne Davison, Director of the Korean Delegation of the ISS. These reports did not show accurate data of how many children needed assistance. It was at the request of Pearl Buck that the Children's Survey Committee in Korea began to plan for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problems and needs of children in December 1960. Ms. Buck made the first \$1,000 donation toward the production of the survey. The committee worked to establish connections with the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to see what information still needed to be collected. The survey was completed in April 1961 by Anne Davison and published by the ISS and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Pearl Buck intended this report to inform the future of Welcome House, which would then influence her decision to create her own foundation in 1964.

Pearl Buck's first trip to the Korean peninsula was in early November 1960 at the invitation of Yowon Magazine and Chosun Ilbo News. This trip would influence Ms. Buck's perception of South Korea and its future. As Ms. Buck stated at the end of her trip, "I have come to learn and understand Korea more." It is during this trip that Pearl Buck made public statements about her wish to work with orphans and mixed-race children in Korea. As Ms. Buck traveled to various schools and orphanages in South Korea she made several well-

known speeches, one of which is important to highlight. Her speech in Daegu on November 5, 1960, made a significant statement that related to her personal thinking about the future of Korea and its children: "All creation requires self-control and courage." In Ms. Buck's view the creation of South Korea would require these virtues.

Welcome House was already working in South Korea in the 1950s. Pearl Buck was aware of the nature of social work in South Korea and the complexities of adoptions due to the rising issues with proxy adoptions and the nature of how children were selected for adoptions by other agencies. While Ms. Buck continued to study the news coming out of South Korea, she was also quietly watching a specific agency, the Holt Adoption Agency and its founder Harry Holt. Sometime in late 1960s Ms. Buck wrote an essay titled "Unforgettable Character." This was about her first time meeting Mr. Holt at his facilities in South Korea during her November 1960 trip. Ms. Buck discussed hearing of Mr. Holt in 1955 and quietly following his activities with adoptions. In the essay Pearl Buck is conflicted with Holt's method of selecting adoptive parents and his use of proxy adoptions. However, these concerns did not preclude Ms. Buck from coming to terms with the fact that at this point in time Mr. Holt was the only one successfully getting children adopted in a timely manner. In her mind, there was no other viable solution based on her knowledge at the time. The plight of the Amerasian children and particularly those children with physical disabilities was Pearl Buck's primary concern. This essay would later be published in her 1964 book *Children for Adoption*.

During her first visit to Korea, Ms. Buck was presented with a proposal for a center named after her owned by Yowon Corporation.² This proposal was very similar to the programs that the Pearl Buck Foundation would adopt in South Korea in the late 1960s, however, Ms. Buck declined the offer. This was not the first time she was sent proposals to partner with a center, school or other organization in South Korea to support women and children after the Korean War. Ms. Buck was considering her options and what would be the best course of action to help the children. In personal notes she kept in her home files on Korea, Ms. Buck describes her new thoughts on how to improve South Korea for the future. The notes detail thoughts about exploring and increasing Korean exports, increasing international business, the status of the US dollar in Korea, and ridding Korea's education system of Japanese influence.³ Ms. Buck continued to share these thoughts with members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hrough the State Department, Congress, and the White House.

² Yowon Corporation. "Proposal" 1960. Pearl S. Buck Correspondence. Pearl S. Buck International Archive.

³ Buck, Pearl S. . "Korea Notes." 1961. Pearl S. Buck Correspondence . Pearl S. Buck International Archives .

What is clear from her correspondence and personal notes is that she saw great promise in what would become modern South Korea.

In 1961, Ms. Buck would continue her interest in Korea and the ideas she had for helping Amerasian children. During this time Ms. Buck corresponded with well-known educator and independence activist Dr. Frank Schofield. On March 13, 1961, Dr. Schofield wrote to Ms. Buck about their recent meeting at the Bando Hotel in Seoul in the previous year. Dr. Schofield expresses his anxiety not just with Korea but with the world's "loss of values and hazy sense of direction." ⁴ He encloses some information for her to read. Ms. Buck responds that she has continued to bring up the issues in Korea with relevant officials including U.S. Ambassador to the United Nations, Adlai Stevenson. This was a common practice of Ms. Buck. The subsequent letters are from November and December 1961 and detail the opinions of Dr. Schofield on the May Revolution and General Park Chung Hee. Dr. Schofield expresses his opinion that the actions of General Park were needed at this time to root out corruption, keep communism out of South Korea, and stabilize the economy. Ms. Buck's response thanks him for his letter but does not give her opinion. This is an important moment in Ms. Buck's planning efforts. Until the May Revolution, she was deeply concerned about corruption and mismanagement of funds in Korean businesses and government. Whether or not Pearl Buck supported the actions of the future President Park are not known. She was famous for keeping her personal political opinions secret. What can be said is that Ms. Buck supported the modernization of Korea and its economy as she has suggested in her own notes. She believed that in order to better serve Amerasian children a "Do everything at once" strategy needed to be implemented for any change to occur.

In the personal records of Ms. Buck on stationery from the Bando Hotel in Seoul there are many notes written sometime in 1961. In these various notes Pearl Buck discusses the number of Korean studies that take place in universities in Soviet Russia compared to the United States. She advocates for more Korean studies in the U.S. She also discusses the anti-American feeling growing in Korea following the May Revolution. Pearl Buck continues to discuss the current issues in Korea that concern her: the U.S. military leaving the peninsula. The growing neutralist movement among students. The lack of news from North Korea and the concern of their communist influence on the young people of Korea. Ms. Buck was also concerned about "Bomb shells from the North."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made many claims that Pearl Buck feared would lead many young South Koreans to be influenced by communist propaganda. The notes also include insights that lead to the interpretation of Ms. Buck's opinion on the future of South Korea. She believed that the

people in Korea felt bypassed and neglected. Her suggestions to alleviate some of her concerns were written on the back of a Bando Hotel envelope⁴:

1. "President Kennedy should visit Korea, or at least mention Korea so that the people there know he thinks about them."
2. "The Seoul symphony orchestra should be brought to this country. There should be more exhibits of painting and of visiting Koreans of note. There are many fine singers, western trained, in Korea. There are Poets and Artists."
3. "The Koreans wish to have more English teachers. Good ones. They want to get into the stream of Western Culture."
4. "The cities should be decentralized. More small cities built around ministries. The countryside needs help. The students should be encouraged to go to work for specific tasks and in many fields. Their present education fits them for nothing and they graduate, find no jobs and become rebels."
5. "There is at present no proper civil service. The old system was modeled after the old Chinese systems and has been abolished. There are no jobs for civil service trainees because family and influence decide who will get the civil service jobs. The present system also does not allow for proper advancement. In short, civil service reforms are badly needed."
6. "There is lack of cooperation between individual political groups. There are at present six political factors in Korea, all struggling. I am impressed with the honesty of President Yun, but his is 63 years old and is not a very active man, although a humane one. His wife is highly educated, 20 years younger, extremely intelligent, and a woman of great integrity."
7. "South Korea needs many good translated technical books. There is a great shortage of technical books from the United States. On the other hand there are an enormous amount of technical books by Soviet Russians. One can find Russian books on city planning, pre-fab houses, smelting, forging, and all scientific subjects."
8. "Kennedy come to Korea before proceeding."

She concludes that there is no time to waste to stop communism from taking root i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hould take some responsibility in this effort. This sense of responsibility to Korea leads Ms. Buck to seek a meeting with President John F. Kennedy in 1962.

Pearl Buck sent President Kennedy many letters and after many attempts, Ms. Buck was able to meet with him on at least two occasions in person. Her first meeting with President Kennedy was at the April 1962 Nobel Laureate Dinner at the White House. The second was a private dinner in January 1963. What can be deduced from these meetings is Ms. Buck's determination to bring Korea to the attention of President Kennedy's foreign policy agenda, while also trying to improve relations with China. ⁴ In 1962, Pearl Buck published *The Living Reed*, a novel on Korea. The culmination of this book, her research, personal experiences, the lack of support from Welcome House, and the changes in political climate led her to ultimately decide to start the Pearl S. Buck Foundation in 1964 with the first project being

⁴ Buck, Pearl S. "Korea." 1961. Pearl S. Buck Correspondence . Pearl S. Buck International Archives .

set in South Korea; the country that she believed would become a great nation with mixed-race children that deserved a chance at being a part of the the future of that nation. Ms. Buck said, “What are the potentials of the new people if the new people, the Amerasians, are accepted without prejudice as to their racial ancestry or manner of birth, if they are kindly treated, if they are encouraged by education and opportunity?”⁵ Ms. Buck gave the foundation her name in hopes that the people of Asia would know and trust her efforts.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Sosa Opportunity Center in 1967, Pearl Buck put into practice her belief in the power of education and opportunity to transform lives, especially for children facing adversity. Her dedication speech at the Sosa Opportunity Center underscored her belief that these children could thrive if given the chance.

⁵ Buck, Pearl S. Dedication of the Pearl S. Buck Opportunity Center. June 11, 1967. Pearl S. Buck International Archives.

펄 벅의 윤리적 관점: 다문화 공존의 다리

Abraham B. Latoza

아워 레이디 파티마대학교(Our Lady of Fatima University), 필리핀 케손 시티

초록

본 논문은 펄 벅(Pearl S. Buck)의 저서에 공명하는 작가의 윤리적 관점을 심층적으로 탐구한다. 펄 벅의 윤리적 관점은 그녀의 도덕적 입장과 이중초점 감수성의 교차점 분석을 통해 도출된다. 저자는 이 연구에서 펄 벅의 선구적 소설인 『대지(The Good Earth)』, 『여인의 저택(Pavilion of Women)』, 『남자와 여자에 대하여(Of Men and Women)』, 『숨은 꽃(The Hidden Flower)』, 『어머니(The Mother)』 및 『자서전(My Several Worlds)』에 대한 사회학적, 비판적 분석과 서사 윤리를 통해 펄 벅의 윤리적 딜레마와 인간이 자신의 선택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행동할 때의 반응에 대한 섬세한 탐구를 발견한다. 이러한 작품들은 사회 정의, 진실, 정직, 인간성, 인종 불평등, 여성 권한 강화, 아메라시안(아시아계 미국인) 가정의 아동 교육, 가족,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을 포함한 그녀의 윤리적 관점의 중요한 축들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러한 전개 과정에서 펄 벅의 윤리적 관점은 그녀의 도덕적 나침반으로, 등장인물이나 도덕적 결정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일관적으로 적용된다. 이는 그녀의 도덕적 성향의 표식이며 궁극적으로 인물의 그러한 결정에 대한 그녀의 변론이 된다. 그녀의 윤리적 관점의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진실과 자유는 무엇인가? 그녀 작품의 등장인물들이 도덕적 딜레마를 극복하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인가? 인종 불평등, 사회 정의, 아동 교육, 그리고 아메라시아인 보호에 대한 그녀의 주장에서 윤리적 기준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윤리학에서 도덕적 가치 평가는 도덕적 판단의 근거가 되는 권위의 원천을 어디로 보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권위의 원천은 외적 원천과 내적 원천에서 비롯된다. 여기서 외적 원천은 법, 종교 및 문화를 포괄하며, 내적 원천은 개인의 가치관, 양심, 그리고 도덕성의 발로이다. 개인적 신념, 도덕적 가치관, 그리고 윤리적 신념에 기반한 내적 원천은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인도하며, 내면의 나침반을 기준으로 움직인다(Beauchamp and Childress, 1994). 이 논문에서는 펄 벅의 윤리적 관점이 외적 원천에서 비롯된 것인지, 내적 원천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살펴본다. 펄 벅은 다작 작가이자 수상 경력에 빛나는 작가였으며, 미국 여성 최초로 노벨상을 수상하고 풀리처상을 수상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렇게 주위의 찬사와 명성을 얻고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성장한 그녀는 동시에 장로교 선교사의 딸이었으며 사회의 압력에

굴복하여 자신의 이야기에 주목을 끌기 위해 남성 필명을 사용해야 했던 한 여성이기도 하다. '여러 세계'에서 살았던 캐럴의 어머니로서, 동서양의 문화를 연결하면서도 독자들에게 도덕적 딜레마에서 비롯된 거대하면서도 균형 잡히고 객관적인 도덕적 결정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제시하고 삶에서 가장 중요한 생각들을 어떻게 다뤄야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제안한다. 그녀의 작품에서 독자들은 자신이 매우 중요하게 여겼을 법한 주제와 가치관이 담긴 이야기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러한 윤리적 관점이 무엇을 시사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예리한 지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녀가 출간한 대부분의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과 악당들은 각자의 도덕적 기준을 지니고 있다. 본 논문은 작품의 서사에 내재된 윤리적 관점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여 문학 윤리, 문화 연구, 그리고 철학적 탐구에 대한 현재 진행 중인 담론에 기여하고 공유하며, 다문화 공존으로 이어지는 '다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키워드: 윤리, 문화적 감수성, 도덕적 기준, 교량, 다문화 공존

서론

펄 벅은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세계 문학에 지울 수 없는 족적을 남겼다. 장편소설, 단편소설, 에세이를 아우르는 그녀의 베스트셀러는 전 세계 독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주제 의식이 담긴 산문, 섬세한 인물 묘사, 그리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펄 벅의 걸작들은 시공간적 경계를 넘어 그 가치를 드러낸다. 노벨상 수상에 빛나는 그녀의 글은 인간 조건에 대한 심오한 탐구를 담고 있으며, 문화적 정체성, 도덕적 의식, 보편적 가치와 윤리의 복잡성을 탐구한다.

저자는 논문 발표를 위해 2024년 펜실베이니아주 PSBI를 방문했을 때, 일본, 중국, 한국, 그리고 미국에서 온 저자 및 연구자들과 함께 펄 벅의 유산에 대한 생각을 듣고 공유할 기회를 가진 바 있으나, 윤리학 교수로서 탐구 갈증을 해소하고자 했던 저자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저자는 펄 벅의 한국인 입양 딸인 줄리 헨닝(Julie Henning)의 자서전 『개천에 핀 장미』(2024)에서 비로소 자신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귀중한 아이디어를 얻게 된다.

윤리적 관점은 이를 제창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롭게 탄생한 개념이며 윤리라는 확대경을 통해 펄 벅의 문학을 읽는 철학적 접근 방식이다. 본 연구는 전 세계의 젊은 세대, 아동 권리 옹호자, 사회복지사, 학생, 후원자, 후원 아동, 자원봉사자, 학자, 그리고 파트너들에게 펄 벅의 유산에 대한 정보와 성찰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기에 사용된 도구는 사회학적·문화적 분석과 서사 윤리에서 비롯된다. 펄 벅의 글은 특정 역사적·문화적 맥락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에, 사회학적 관점과 서사 윤리를 통해 그녀의 작품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사 윤리는 스토리텔링 자체의 윤리적 차원에 초점을 맞춘 도구이다.

이 논문의 성찰의 여정에서 펄 벅이 여성의 권한 강화, 사회 정의, 인종 불평등, 그리고 아동 교육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취했던 이유에 대한 그녀의 윤리적 관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를 바라며 독자와 호기심 많은 연구자들이 이 주장을 검증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펄 벅의 윤리적 관점 맥락화

펄 벅의 동서양 문화를 잇는 삶의 경험은 그녀의 윤리적 관점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중국에서 자란 펄 벅은 유교와 도교(『대지』(*The Good Earth*))(1937)와 『자서전』(*My Several Worlds*))(1954))에 노출되었고, 이후 미국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도덕적 감수성과 문학적 감수성이 독특하게 융합된 작품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양면적인 문화적 관점은 그녀의 작품 전반에 걸쳐 공명하며, 독자들에게 그녀의 작품에서 어떤 윤리적 관점이 기준이 되는지 숙고하게 한다.

방법론

본 논문은 사회학적, 문화적 분석과 서사 윤리를 활용한다.

펄 벅의 작품에 대한 사회학적·문화적 분석은 특정한 역사적·문화적 환경, 특히 사회 구조, 경제적 조건, 그리고 전통적 가치관이 등장인물의 윤리적 선택과 도덕적 발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을 포함한다(W. E. B. Du Bois, 1903). 이러한 접근은 그녀의 작품이 지닌 사회학적 맥락을 고려할 때 필수적이다. Alasdair MacIntyre에 따르면 서사 윤리는 스토리텔링 행위에 내재된 윤리적 차원을 분석하는 틀을 제공한다(Alasdair MacIntyre, 1981). 그는 우리가 어떤 인물의 도덕적 행동을 이해하려면 서사 속에서 그 인물이 차지하는 위치와 그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펄 벅은 중국 문학 전통의 영향을 받아 간결하고 객관적인 산문 스타일을 채택했는데, 이는 이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서사적 선택은 독자들이 교훈적인 도덕적 논평 없이 등장인물들의 삶의 윤리적 현실을 직접 마주할 수 있도록 한다.

용어 정의

펄 벅의 윤리적 관점 - 이 논문에서 이는 펄 벅이 자신의 책 속 등장인물에 대해 갖고 있는 도덕적 나침반, 작가로서의 그녀 자신의 도덕적 기준, 사회 변화의 옹호자로서 그녀 자신의 도덕적 기준을 의미한다.

도덕적 기준 - 인간의 행동을 지도하는 원칙을 말하며, 인간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옳은 행동과 그른 행동을 구별하기 위한 기준을 의미한다.

윤리의 외적 원천 - 외적 권위의 출처로 단순히 법, 종교, 문화에서 비롯된다.

내적 원천 - 내적 원천은 개인의 가치관, 양심, 도덕성의 발로이다.

법 - 인간의 행동을 지도하는 규칙과 원칙의 체계이다.

종교 - 종종 신성한 명령이나 성서 해석에 근거하여 도덕적 의사결정을 위한 틀을 제공한다.

문화- 윤리의 언어로 말하면, 문화는 사회 내의 도덕적 가치, 규범, 행동을 형성하고 영향을 미친다.

문화적 상대주의 - 윤리적, 도덕적 기준은 특정 문화에 국한되며 이를 판단할 보편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도덕적 현실주의 - 인간의 의견이나 신념과 관계없이 객관적인 도덕적 사실과 가치가 존재한다는 견해이다.

도덕 윤리 - 이러한 특성을 개발하여 "좋은 삶" 또는 에우다이모니아(인간의 번영)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초점을 맞춘다.

인간 존엄성과 자율성 - 모든 개인의 고유한 가치와 존엄성을 강조한다. 타인의 권리와 복지를 침해하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 자율성, 그리고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옹호한다.

다문화 공존 - 이 논문에서 다양한 문화적 뿌리 내에서 하나의 기본적 옹호가 성장하고 확장됨으로써 조화로운 파트너십을 이룬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찰

진실, 정직, 그리고 인간성에 관하여

이러한 얽히고 설킨 사상은 펄 벅(1941)의 저서 『남자와 여자에 대하여(Of Men and Women)』의 핵심이다. 그녀의 윤리적 틀에서 핵심 요소는 자기 정직과 관계에서의 정직성에 대한 요구이다. 펄 벅(1941)은 "남성과 여성이 행복하고 생산적으로 함께 살기 위해서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며 상호작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서로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정직해야 한다"(25 쪽)고 주장했다. 이러한 윤리적 개념은 그녀의 저서 전반에 걸쳐 공명하며, 덕 윤리와 도덕적 현실주의 모두와 부합한다.

인종 평등과 사회적 낙인

인종 불평등은 역사 전반에 걸쳐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문제이다.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동서양 모두에서 이는 고통스럽고 지속적인 낙인을 남겼다. 벅은 인종 불평등에 대해 다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이해와 공동의 인간성을 핵심 개념으로 삼았다(Buck, 1937a). 이러한 접근 방식은 에픽테토스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철학을 반영한다. 벅은 개인의 권리와 존엄성은 인종이 아닌 인간성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믿었다(Buck, 1937a). 그녀는 또한 "사랑은 인종을 가리지 않는다"(Buck, 1935)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인종 불평등은 종교, 법, 문화와 상당한 상호작용을 하는 독립적인 윤리적 개념이다.

펄 벅의 작품 속 여성의 권한 강화

오늘날 사회에서 여성은 다른 지표로 평가받는다. 여성 역량 강화는 여성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 역량 강화는 인종 및 성 불평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이다. Bob John H. Koroma 대주교(2008)가 지적했듯이, 여성은 종종 "2등 시민처럼, 마치 방관자처럼"(10쪽) 소외된다. 그러나 펄 벅의 저술은 특정 이념적 의제와 일치하지 않는다. 오히려 여성의 사회 문제에 대한 그녀의 뚜렷한 견해는 그녀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형성되었다. 여성 역량 강화는 법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정당성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펄 벅의 『여인의 저택(Pavilion of Women)』(Buck, 1946)에서 주인공 우부인은 중국 부유층 가문의 대저택의 안주인이다. 개인적인 자유를 추구하던 그녀는 마흔 번째 생일을 맞아 남편이 첩을 데려오는 것을 허락함과 동시에 자신은 그 속박에서 벗어난다.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그녀는 금서(禁書)를 읽고 영어를 배우는 등 지적이고 개인적인 성장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이 소설은 "성(性)에 대한 우화"로서, 자유로운 사고의 변혁적인 힘을 보여준다(Buck, 1946).

마찬가지로, 『대지(The Good Earth)』(Buck, 1937)에서 오란의 여정은 노예 생활로 시작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그녀의 가치와 은은한 힘을 즉각적으로 드러낸다. 낮은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는 발이 묶이지 않은 노예로 등장하지만, 그녀는 곧 왕릉에게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임을 증명하며 밭에서 쉴 새 없이 일한다. 그녀의 실용적인 기술과 강한 직업 윤리는 가족의 생존과 번영에 필수적이다. 오란은 수동적인 인물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 적극적인 원동력이다. 이 묘사는 남성의 역량에 필적하는, 여성의 강력한 끈기와 포괄적인 능력을 강조한다.

『여인의 저택(Pavilion of Women)』(Buck, 1946)의 우 부인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안드레 신부에게 정식으로 학업을 시작한 후부터 나타난다. 그녀의 여정 중 이 부분은 교육과 지적 호기심이 어떻게 여성을 전통적인 제약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펄 벅의 소설에 등장하는 모든 주인공의 등장은 선하고 진실하며 인간적인 것을 지향하는 윤리적 틀을 시사한다.

펄 벅의 윤리적 주제

『숨은 꽃(The Hidden Flower)』(Buck, 1952)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에서 일본인 학생 조스이와 미군 병사 앨런 사이의 복잡하고 금기시되는 관계를 탐구한다. 두 사람의 결합으로 아이가 태어나지만, 두 사람은 엄청난 사회적, 가족적 편견에 직면한다. 이 소설은 "아메라시안" 아이들(펄 벅이 미군과 아시아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지칭하기 위해 직접 만든 용어)의 곤궁한 삶을 파헤친다. 이 책에서 드러나는 윤리적 딜레마는 인종차별, 편견, 그리고 정체성과 소속감의 추구이다. 버려지고 방치된 아메라시아 아동을 돕고자 했던 펄 벅의 깊은 헌신과 따뜻한 마음과 그녀의 강력한 윤리적 시도는 1949년 설립한 웰컴 하우스(Welcome House)에서 잘 나타난다. 이러한 행동은 실천적인 덕 윤리의 모범이라고 평가된다.

『어머니(The Mother)』(Buck, 1934)는 모성애의 원초적이고 모든 것을 소모하는 본질과 가장 잔혹한 상황도 견디고 극복하는 그 힘을 증명한다. 이 작품은 빈곤, 사회적 억압, 그리고 이타적인 노동으로 바쳐진 삶의 보편적이지만 종종 간과되는 존엄성이라는 주제를 탐구한다. 이 소설에 묘사된 모성은 객관적인 도덕적 진실에 기반한 도덕적 현실주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결론 및 제언

펄 벅의 윤리적 관점은 이중적 문화 이해, 도덕적 실재론, 그리고 덕 윤리에 기반을 둔다. 논문의 저자는 약 6권의 서사 윤리를 바탕으로 펄 벅의 윤리적 관점이 다면적인 접근과 원칙, 즉 도덕적 실재론, 덕 윤리, 그리고 법, 종교, 문화와 무관한 객관적인 도덕적 진리들의 상호작용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펄 벅의 윤리적 관점은 도덕적 딜레마에서 시작하여 자유, 그리고 오란과 우 부인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 존엄성과 객관적인 도덕적 주장으로 확장된다.

펄 벅의 윤리적 관점이 어떻게 다문화 공존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다문화 공존 프로그램의 지속성은 정책적 지원, 제도적 안정화, 그리고 상호 존중의 가치 내면화를 통해 확증 및 보장되며 이 논문에 제시된 펄 벅의 윤리

적 관점을 옹호하는 것 역시 유효하다.

진실, 정직, 인간성에 기초한 이러한 윤리적 관점은 시간의 틀을 넘어서서 연화 된 에너지 경험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다.

수십 년간 인종 불평등이 심화되어 온 상황에서, 펄 벅의 '사랑은 인종을 가리지 않는다'는 관점은 처방약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남녀 모두에서 펄 벅의 평등 윤리를 하나로 모으고, 지지하고, 안심시켜 줄 수 있는 보편적인 개념이 된다.

여성의 권한 강화는 펄 벅의 유산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여성 투쟁의 냉혹한 역사에 빛을 가져다 줄 것이다.

다문화 공존은 다가올 수십 년 동안 사회의 다변화를 예견한다. 따라서 펄 벅의 윤리적 주제는 냉혹한 사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공고히 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야 하며, 그들이 창의성을 발휘하고 선한 본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펄 벅의 윤리적 관점이 하나의 다리가 될 때 다문화 공존이 비로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Buck, P. S. (1935). *A house divided*. John Day Company.
- Buck, P. S. (1937a). *The good earth*. John Day Company.
- Buck, P. S. (1937b). *The mother*. John Day Company.
- Buck, P. S. (1941). *Of men and women*. John Day Company.
- Buck, P. S. (1946). *Pavilion of women*. John Day Company.
- Koroma, B. J. H. (2008). *Women on the sideline*. Freetown Publishers.
- Buck, P. S. (1934). *The mother*. John Day Company.
- Buck, P. S. (1952). *The hidden flower*. John Day Company.
- Conn, P. (1998). *Pearl S. Buck: A cultural biograph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bermas, J. (1984).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Beacon Press.
- MacIntyre, A. (1981). *After virtue*. Duckworth.
- Mong, A. I. (2016). *Guns and gospel: Imperialism and evangelism in China*. James Clarke & Co.
- Swensen, E. (2024). *The courage of truth: Pearl S. Buck's legacy of honesty and humanity*. [Publisher name, if known].
- Albert, E. (n.d.). *Christianity in China*.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Retrieved from <https://www.cfr.org/background/christianity-china>

LitCharts. (n.d.). *The Good Earth* characters: O-lan. Retrieved from_ <https://www.litcharts.com/lit/the-good-earth/characters/o-lan#>

PEARL S. BUCK'S ETHICAL PERSPECTIVE: THE BRIDGE OF
MULTICULTURAL COEXISTENCE

Abraham B. Latoza
Our Lady of Fatima UNiversity, Quezon City, Philippines

Abstract

This paper delves into the ethical perspective of Pearl S. Buck that resonates in her writings. It is culled by examining the intersection of her moral claim and bifocal sensitivity. Through a sociological and critical analysis and narratives ethics of Buck's seminal novels, "The Good Earth," "Pavilion of Women," "Of Men and Women," "The Hidden Flower," "The Mother," and "My Several Worlds," this study uncovers the author's nuanced exploration of ethical dilemmas and the responses coming from a conscious, responsible and willful acts of man. The focal point gears towards the important pillars of her ethical perspective that includes social justice, truth, honesty, humanity, racial inequality, women empowerment, education of Amerasian children, family and cultural diversity. Ethical perspective is Buck's moral compass, used consistently in her characters, or situations that require a moral decision. It gives an indication of her moral disposition and eventually to her advocacy. What is the truth and freedom? What is the driving force that makes her characters overcome their moral dilemmas? What is the ethical standard in her claims on racial inequality, social justice, children's education, and care for the Amerasians? Being able to ask these questions may lead to the focal point of her ethical perspective. In Ethics, moral valuation begins from determining the sources of authority. The sources of authority come from external and internal sources. External sources are Law, Religion and Culture. Internal sources originate from individual values, conscience, and sense of morality. It influences and guides human behaviour based on personal convictions, moral values, and ethical beliefs, driven by an internal compass, (Beauchamp and Childress, 1994). This paper will also identify if Buck's ethical perspective is coming from external or

internal sources of authority. Buck was well-known for being a prolific writer, an award-winning author, and the first American woman to receive the Nobel Prize and also a recipient of Pulitzer awards. Those accolades had brought her fame and made her an influential figure. But in retrospect, she was the daughter of a Presbyterian missionary. She was a woman who, by the dictates of society, had to use a male pseudonym to make her narrative worthy of attention. As a mother of Carol, who lived her life in 'several worlds,' linking the east wind and west wind [cultures], yet ceaselessly providing the readers the thought of enormous yet balanced and objective moral decisions out of moral dilemmas and thus, proposes on how to handle life's most compelling thought to act morally. Readers found themes and value-laden stories that they might have viewed as extremely crucial, that need a keen mind to decide what these ethical perspectives suggest. Her characters in most of her collection of published books, the protagonists and villains, carry with them their moral standard. The task in this paper is to unravel the ethical perspective laid down in the narratives. This study hopes to contribute and to share in the ongoing discourse on literary ethics, cultural studies, and philosophical inquiry providing a 'passing bridge' to multicultural co-existence.

Keywords: ethics, cultural sensitivity, moral standard, passing bridge, multicultural coexistence

Introduction

Pearl S. Buck's literary prowess, spanning over fifty years, has bequeathed an indelible mark in world literature. Her bestselling opus, encompassing novels, short stories, and essays, continues to captivate audiences worldwide. Buck's mastercrafts, distinguished by their thematic prose, nuanced characterization, and cross-cultural banners, went beyond temporal and spatial boundaries. This Nobel laureate's writing embodies a profound exploration of the human condition, navigating the complexities of cultural identity, moral consciousness, and universal values and ethics.

In 2024, when I presented my paper at PSBI in Pennsylvania, I got the chance to listen to and share thoughts with authors and researchers from Japan, China, South Korea, and America about Pearl S. Buck's legacy. But my desire to hear something that would shed light to my quest as an Ethics professor remained unfulfilled. Julie Henning, whose book *A Rose in a Ditch*, 2024 has indicated valuable ideas, which for me had offered a thread to follow.

The ethical perspective is a new concept born into the proponent's mind. It is a philosophical approach to reading literature by Pearl S. Buck with the magnifying glass of ethics. This work aims to provide information and reflection about the legacy of Pearl S. Buck for the younger generation, children's advocates, social workers, students, sponsors, sponsored children, volunteers, academicians, and partners around the world. The tools used in this study come from Sociological and Cultural Analysis and Narrative Ethics: Since Buck's writing is well-rooted in a specific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xt, it's important to analyze her works through a sociological lens and narrative ethics. Narrative Ethics as a tool focuses on the ethical dimension of storytelling itself.

As it unfolds in this work, may the reflection bring to light the questions about Pearl S. Buck's ethical perspective on why she was consistent on women's empowerment, social justice, racial inequality, and children's education. There should be a compelling reason available to readers and curious researchers to verify or nullify this claim.

Contextualizing Buck's Ethical Perspective

Pearl S. Buck's life experiences, bridging Eastern and Western cultures, profoundly influenced her ethical perspectives. Pearl S. Buck's upbringing in China exposed her to Confucianism and Taoism, (*The Good Earth*, 1937 and *My Several Worlds*, 1954), and later, as an American receiving an American education fostered a unique blend of moral and literary sensibilities. This bifocal cultural view resonates throughout her works, inviting readers to ponder which ethical perspective serves as a standard bearer in her writings.

Methodology

This paper employs sociological and cultural analysis and narrative ethics.

A sociological and cultural analysis of Buck's work involves examining how a specific historical and cultural milieu, particularly its social structures, economic conditions, and traditional values, shapes the ethical choices and moral development of her characters, (W. E. B. Du Bois, 1903). This approach is essential given the sociological context of her writing. Narrative ethics, on the other hand, provides a framework for analyzing the ethical dimensions inherent in the act of storytelling, (Alasdair MacIntire, 1981). He argues that we can only understand a person's moral actions by understanding their place in a narrative and the goals they are striving to achieve. Pearl S. Buck's adoption of a simple, objective prose style, influenced by Chinese literary traditions, exemplifies this. This narrative choice enables readers to confront the ethical realities of her characters' lives directly, free from didactic moral commentary.

Definition of Terms

Buck's Ethical Perspective- in this paper it refers to Pearl S. Buck's moral compass of her characters in her books, her moral standard herself as an author and as an advocate for social change.

Moral standard- refers to principles that guide human behavior, distinguishing between right and wrong actions that impact human welfare.

External sources-or external sources of authority in ethics simply come from law, religion and culture.

Internal Sources-Internal sources originate from individual values, conscience, and sense of morality.

Law- is a system of rules and principles that guide human behavior

Religion-provides a framework for moral decision-making, often rooted in divine commands or interpretations of sacred scriptures

Culture- in the language of ethics shapes and influences moral

values, norms, and behaviors within a society.

Cultural relativism- is the view that ethical and moral standards are specific to a particular culture and that no universal standard exists to judge them

Moral realism- the view that there are objective moral facts and values that exist independently of human opinion or belief.

Virtue ethics- the focus is on developing these traits as a means to achieving a "good life" or eudaimonia (human flourishing)

Human Dignity and Autonomy- emphasizes the inherent worth and dignity of every individual. It champions personal freedom, autonomy, and the right of people to make their own choices, so long as those choices do not infringe on the rights and well-being of others.

Multicultural Coexistence- in this paper refers to harmonious partnership by having one foundational advocacy growing and expanding within a diverse cultural root.

Discussion

On Truth, Honesty, and Humanity

These interwoven ideas are central to Pearl S. Buck's (1941) work, *Of Men and Women*. A key element of her ethical framework is the call for self-honesty and honesty in relationships. Buck (1941) argued that "for men and women to live together happily and productively, they must interact with complete freedom, which requires absolute honesty with each other and with themselves" (p. 25). Such ethical concepts resonate throughout her books and align with both virtue ethics and moral realism.

Racial Equality and Social Stigma

Racial inequality has been a persistent issue throughout history. In both African-American and Eastern-Western contexts, it has created a painful and lasting stigma. Buck approached racial inequality from a multi-faceted perspective, promoting understanding and common humanity as core concepts (Buck, 1937a). This approach mirrors the philosophies of Epictetus and Marcus Aurelius. Buck believed that a

person's rights and dignity should be determined by their humanity, not by their race (Buck, 1937a). She also introduced the concept of "love is color blind" (Buck, 1935). Racial inequality is an independent ethical concept with significant interplay from religion, law, and culture.

Women's Empowerment in Buck's Works

Women are seen today with different metrics in society. Women empowerment is failing women. Women's empowerment is a theme closely related to both racial and gender inequality. As Most Rev. Bob John H. Koroma (2008) observed, women are often "on the sideline, like a second class citizen" (p. 10). Buck's writings, however, do not align with a specific ideological agenda. Instead, her strong views on women's social issues were shaped by her personal experiences. While women's empowerment has legal justifications, it is not limited to them.

In *Pavilion of Women* (Buck, 1946), the protagonist, Madame Wu, is a respected wife in a Chinese upper-class family. On her 40th birthday, she seeks personal freedom and arranges for her husband to take a concubine so she can move to separate quarters. This decision allows her to pursue intellectual and personal growth, including reading forbidden books and learning English. The novel serves as a "parable about the sexes," illustrating the transformative power of free thought (Buck, 1946).

Similarly, in *The Good Earth* (Buck, 1937b), O-lan's journey begins in servitude, but her actions immediately highlight her value and quiet strength. Introduced as a slave with unbound feet, signifying her low social status, she quickly proves to be an indispensable partner to WangLung, working tirelessly in the fields. Her practical skills and strong work ethic are crucial to the family's survival and prosperity. O-lan is not a passive figure; she is an active force in building their new life. This portrayal emphasizes the formidable persistence and encompassing skills of women, paralleling the capabilities of men.

The most significant changes for Madame Wu in *Pavilion of Women* (Buck, 1946) occur after she begins her formal studies with

Brother Andre. This part of her journey is a powerful representation of how education and intellectual curiosity can liberate a woman from traditional constraints. The emergence of every protagonist in Pearl S. Buck's novels suggests an ethical framework that aims to lean toward what is good, true, and humane.

Pearl S. Buck's Ethical Themes

The Hidden Flower (Buck, 1952) explores the complex and taboo relationship between a Japanese student, Josui, and an American soldier, Alan, in post-World War II Japan. Their union results in a child, but they face immense social and familial prejudice. The novel delves into the plight of the "Amerasian" child—a term that Pearl S. Buck herself is credited with coining to describe children born of American servicemen and Asian women. The ethical dilemmas brought to light in this book are racism, prejudice, and the search for identity and belonging. The establishment of Welcome House in 1949 was a powerful ethical initiative, demonstrating Buck's deep commitment and passionate motivation for helping abandoned and neglected Amerasian children. This action exemplifies virtue ethics in practice.

The Mother (Buck, 1934) is a testament to the primal, all-consuming nature of maternal love and its power to endure and overcome the most brutal of circumstances. It explores themes of poverty, social oppression, and the universal, yet often overlooked, dignity of a life spent in selfless labor. Motherhood, as portrayed in this novel, can be viewed through the lens of moral realism, grounded in objective moral truths.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

The ethical perspective of Pearl S. Buck is based on bifocal cultural understanding, moral realism and virtue ethics. From the narrative ethics of about 6 books, the presenter concludes that Pearl S. Buck's ethical perspective comes at a multi-faceted approach and principles: namely, moral realism, virtue ethics and an interplay of objective moral truths independent from law, religion and culture.

The characterization emerges at one time from moral dilemmas to freedom, to human dignity and objective moral claim as seen in O-Lan and Madam Wu.

How can this collection of Buck's ethical perspectives become a bridge of multicultural coexistence?

Multicultural Coexistence affirms and assures the continuity of the programs. It still believes in the advocacy of Pearl S. Buck with her ethical perspectives identified in this paper.

Based on truth, honesty and humanity, these ethical perspectives can bind the mellowing energy experience, going beyond the time frame.

Racial inequality in decades, Buck's 'love is color blind perspective serves as a prescriptive medicine. It is a universal concept that can unite, uphold and reassure men and women of the equality ethics of Buck.

Women empowerment will not only preserve Pearl S. Buck's legacy, it will also bring sunshine to the stark history of the struggle of women.

Multicultural coexistence anticipates the diversified society in the coming decades, thus, Buck's ethical themes will have to include individuals who are struggling to find a place in society, enabling them to express their creativity, and good nature to be shared. This will happen and it is possible when Buck's ethical perspective becomes a passing bridge.

References

- Buck, P. S. (1935). *A house divided*. John Day Company.
 Buck, P. S. (1937a). *The good earth*. John Day Company.
 Buck, P. S. (1937b). *The mother*. John Day Company.
 Buck, P. S. (1941). *Of men and women*. John Day Company.
 Buck, P. S. (1946). *Pavilion of women*. John Day Company.
 Koroma, B. J. H. (2008). *Women on the sideline*. Freetown Publishers.
 Buck, P. S. (1934). *The mother*. John Day Company.
 Buck, P. S. (1952). *The hidden flower*. John Day Company.
 Conn, P. (1998). *Pearl S. Buck: A cultural biography*. Cambridge University Press.

Habermas, J. (1984).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Beacon Press.

MacIntyre, A. (1981). *After virtue*. Duckworth.

Mong, A. I. (2016). *Guns and gospel: Imperialism and evangelism in China*. James Clarke & Co.

Swensen, E. (2024). *The courage of truth: Pearl S. Buck's legacy of honesty and humanity*. [Publisher name, if known].

Albert, E. (n.d.). *Christianity in China*.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Retrieved from <https://www.cfr.org/backgrounder/christianity-china>

LitCharts. (n.d.). *The Good Earth characters: O-lan*. Retrieved from <https://www.litcharts.com/lit/the-good-earth/characters/o-lan#>

Pearl Buck's Enduring Legacy as an Advocate for Intellectual
Disability

Dr. Sophia Geng
Saint Vincent College

Abstract

The publication of *The Child Who Never Grew* in 1950 broke the stifling silence on mental disability. It signifies the incipience of Pearl S. Buck's advocacy for the intellectually disabled in the public arena. This paper zooms in on Buck's continuous efforts in increasing public awareness of mental disability. Additionally, she strove to acquire more resources for the diagnosis, research, and treatment of mental disability in order to allay the challenges faced by the disabled children and their struggling families. Pearl S. Buck's writings and activism inspired women leaders who themselves grew into trailblazers in the field of special education for the mentally disabled. Pearl Buck's legacy as a tireless advocate for the mentally disabled is live and strong through her writings as well as the continuous contributions made by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touched and inspired by her.

Introduction: Pearl Buck's Continuous Advocacy for the Mentally Disabled

In the 1950s, Pearl Buck had a keen awareness of the minimal support available for the intellectually disabled children and their struggling families. For example, in her memoir, *My Several Worlds*, Buck laments that "[f]or the most neglected children in our entire nation are these little ones whose minds have been injured by some accident before, during, or after birth, the ones who cannot grow."

In her words, “[p]ublic schools too seldom carry the classes which would teach them what they could learn, for all of them can learn something and be the better and happier for it, and with what relief to their sorrowing families can scarcely be expressed.” However, despite these apparent benefits, “the Boards of Education are oblivious or hard pressed, budgets are strained, and so nothing, or very little, is done for these American citizens.” Compared with children with physical disabilities, thos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were neglected. As Buck put it, “Children with polio, children with heart disease,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children with cancer, children with every possible handicap have their foundations, their hospitals, their shelters, but not yet the little ones who will always be children and innocent. And when their parents leave them they are left to shift with unwilling relatives and hostile communities, and they live and die in a daze of misery” (Buck 1956, 470).

To alleviate the challenges faced by the disabled children and their struggling families, Pearl Buck made continuous efforts to increase public awareness of and information on mental disability. Buck was one of the early leaders of the parents movement where parents voiced the needs and concerns on behalf of their intellectually impaired children. The Arc Alliance accounts its “humble beginning” and the positive roles that Pearl Buck played in it:

In 1949 eight people responded to a letter written to a Philadelphia newspaper asking parents to meet in Philadelphia to address concerns and ways to handle the community’s fears about people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Bucks County has particular reason to be proud of this humble beginning of a Commonwealth-wide association. This first meeting hosted Pearl Buck, nationally known author from Bucks County, as their speaker. This small group of eight people grew as more and more parents from Philadelphia, Montgomery and Bucks Counties became interested. On October 17, 1949, the Pennsylvania Association for Retarded and Handicapped Children (PARC) was formed. Their goal was to promote the general welfare of children with mental retardation, further education and training for professionals, promote public information, and encourage the formation of local chapters.

(The Arc Alliance n.d.)

In addition to her support for the parents movement, Pearl Buck understood the needs of parents as caregivers and turned to experts and professionals whom she believed could offer much needed guidance to the struggling families. In 1965, John Day published a series called “The John Day Special Education Books.” In its category titled “For Teachers, Professional Workers and Parents of Retarded Children,” John Day presented a wide array of books as follows:

Sing and Learn: Simple Songs and Rhythms That Retarded Children Can Enjoy While Learning Basic Lessons:

Guiding the Retarded Child: An Approach to a Total Education Program:

Readiness and Reading for the Retarded Child: A Teachers Manual and Two Workbooks:

The Child Who Never Grew:

The Gifts They Bring: Our Debt to the Mentally Retarded:

The Teacher of the Mentally Retarded: A Guide to Careers in Special Education—Challenges, Demands, Rewards:

When A Child is Different: A Basic Guide for Parents and Friends of Mentally Retarded Children, Giving Practical Suggestions on Their Education and Training:

Teaching Arithmetic to Slow Learners and Retarded:

Basic Lessons for Retarded Children: Two Workbooks in Academic Skills and Holidays:

The Mentally Retarded Child:

Teaching the Retarded Child to Talk:

Training Children: Curriculum and Procedures:

Then, for the category titled “Children with Reading Problems,” John Day provided three books, which were *Stories for Fun and Adventure: High-Interest Reading Material for Reluctant Readers*; *More Stories for Fun and Adventure: A Second Collection of Stories for Reluctant Readers*; and *Reading Fundamentals for Teen-Agers: A Workbook for Basic Reading Skill*.

Among this impressive series, besides Pearl Buck’s well-circulated *The Child Who Never Grew*, *The Gifts They Bring: Our Debt to the*

Mentally Retarded was co-authored by Pearl Buck and Gweneth T. Zarfoss. Mrs. Zarfoss was a First Lieutenant in Navy intelligence during World War II. A certified psychologist, she co-authored *The Gifts They Bring* with Pearl Buck in the 1960s. *The Gifts They Bring* affirms the unique values that the mentally disabled offer to those around them and to the larger society. Additionally, the book calls for continuing endeavors in preventing mental disabilities as well as in securing opportunities in order for the mentally disabled to develop themselves and have fulfilling lives. In 1987, Gweneth T. Zarfoss received the Distinguished Daughters of Pennsylvania recognition. Since 1949, every year around seven women have received this honor for “bringing loc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distinction to the Commonwealth through their volunteer and professional lives and through their remarkably varied contributions and commitments” (Distinguished Daughters of Pennsylvania 2024, 62).

Pearl Buck’ Committed Efforts to Acquire Resources for Intellectual Disability

Additionally, Pearl S. Buck strove to acquire more resources for the diagnosis, research, and treatment of mental disability, aiming to strengthen the society’s capacity in prevention and care. Pearl Buck’s efforts to acquire Ellis Island for the Training School at Vineland, New Jersey is a compelling example in this regard.

On November 12, 1954, the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closed the detention center on Ellis Island. In March 1955, the federal government declared the property "surplus" and put it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For the next eight years, the island remained abandoned and fell into disrepair as attempts to sell the island for commercial development failed. In 1962, the Subcommittee o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Senate Committee on Government Operations asked state governments and non-profits to submit proposals to make use of the island.

On February 15, 1962, Senator Clifford P. Case introduced S. 2852

to authorize the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to convey the island to the Training School at Vineland, New Jersey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National Diagnostic Center for Mental Retardation. Considering Senator Case’s reputation as a staunch proponent of civil rights and welfare legislation, it was natural for him to sponsor a bill to assist the mentally disabled. Clifford P. Case, the U.S. Senator from New Jersey was a Republican and he served in the Senate from 1955 to 1979. Known for his liberal positions, Senator Case supported Democratic presidents John F. Kennedy and Lyndon B. Johnson's major legislative initiatives. He would play a key role in the passage of the Civil Rights Acts of 1964 and the Voting Rights Act of 1965

At the time, multiple bills were introduced regarding the disposal of Ellis Island. For instance, S. 1867 was introduced by Senator Sparkman on May 15, 1961, to authorize the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to convey the island to the Ellis Island Golden Age Center, Inc., a nonprofit, New York corporation for \$1 million. S. 2596 was introduced by Senator Harrison Williams of New Jersey on September 21, 1962, to authorize the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to convey the island of Ellis Island for Higher Education, Inc., a nonprofit New York corpor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a 4-year liberal arts college (U.S. Congress. Senate. Committee on Government Operations. Subcommittee o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1962, 13-14).

To draw attention to Senator Case’s bill, Pearl Buck served as a witness on December 6, 1962, at the Senate hearing. Senator Edmund Sixtus Muskie, chair of the Subcommittee o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introduced his first witness of the day, Pearl Buck, as a distinguished American. Senator Muskie was an American statesman and a political leader of the Democratic party. At the time of this hearing, he was the senior Senator representing Maine. He would serve in this role until 1980. For 1980 to 1981, He would become the 58th United States Secretary of State under President Jimmy Carter. Senator Muskie stated that for the purposes of this hearing, Pearl Buck came “in a capacity which in many ways is much important. Her appearance here stems from her long-term

interest in the problems of the mentally retarded, and she has a proposal to present to the subcommittee based upon that interest and almost a lifetime of work in that field” (U.S. Congress. Senate. Committee on Government Operations. Subcommittee o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1962, 98).

Pearl Buck joined the witness stand as Chairman of the Board of Trustees of the Training School at Vineland, New Jersey. With her were Dr. Walter Jacob, Director of Vineland, Nelson Kenworthy, Consulting Engineer, and Albert Fulling, Public Relations Adviser. Pearl Buck opened her speech by recognizing the international importance of Ellis Island as a place of hope and despair for the immigrants. She emphasized that she would like to see the island to become a place of hope for “a very important and needy group of citizens” (99). Buck also pointed out that the Training School at Vineland’s proposal was “very careful to keep the landmarks of that island, some of the great buildings, which will add a great deal to the aspect of New York as you come in” (99). Buck underscored that the nonprofit, tax-exempt Training School was one of the oldest schools for the mentally impaired in the States. Buck believed that the research of mental disability was especially important at this juncture of history because “we are on the eve of discoveries, great scientific discoveries, which will mean that many of these children born in the future need not be retarded at all, but will become normal citizens” (99). Buck continued to highlight the Training School’s contributions in the field of mental disability. In her words, “During its three-quarter century of existence, this school has been responsible for more improvement in the field of mental retardation than perhaps any other institution” (100). To support its research, the Training School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a great international diagnostic center on Ellis Island for the purpose of diagnosis, research, the training of teachers and workers in the field of the mentally retarded and to promote worldwid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on this most pressing problem of mankind” (100). Buck pointed out that “our greatest need is a really first-rate diagnostic center, which we do not have in this country, I may frankly say, which would use not only the resources that we have, but would also draw upon the resources of knowledge from other countries”

(100). Repeatedly, she underscored “the need for competent, comprehensive diagnosis as the first step in any program of training or treatment” (102).



Figure 1. Author Pearl S. Buck testifies before a Senate subcommittee on new uses for Ellis Island in December 1962. (*Today* n.d.)

Ensuing, Buck elaborates on the breadth of prospective Ellis Island unit:

The Ellis Island unit of our organization—and it would be a new unit—would be for research, training of medical workers, teachers, social workers, etc., and diagnosis of Americans and their world neighbors on the retarded level.

The unit also would be dedicated to the hope that we may someday prevent the birth of so many of the retarded, which affects, by the way, more or less 10 percent of our population, and thus increase the possibilities that every child in the world can have a

chance to have a fair and normal life.

Approximately 1 out of every 35 Americans is mentally retarded. There are a great number of known causes for retardation, many of which can be eliminated. (U.S. Congress. Senate. Committee on Government Operations. Subcommittee o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1962, 101)

Buck always believed the sufferings of the mentally disabled and their families were not in vain. Their lives could pave the way for advancement in research that would prevent future children from suffering from these illnesses. Buck's argument here once again made her conviction evident.

Next, Buck underlined the importance of cooperation. In her words, "Many organizations, working in the field of the mentally retarded, could cooperate in the proposed Ellis Island program. We most definitely would invite and, indeed, solicit the cooperation of all organizations in the field to promote the maximum benefits to mankind of such a program" (101-102).

Following, Buck broke down the Training School's detailed proposal, for which the school had been working on for more than three years. On August 9, 1960, Pearl Buck participated in the conference on the Disposal of Ellis Island organized by the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and the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in New York City. At that conference, Pearl Buck briefly outlined the Training School's interest in Ellis Island. Over the next three years, the Training School made a complete exploration of the physical, technical and legal problems involved in acquiring this property (105). To recapitulate Buck's major points, the proposal included the following seven aspects:

1. To establish a pilot demonstration center for the development and exposition of efficient methods of diagnosis of mental retardation.
2. To afford clinical study and examination in a comprehensive variety of fields related to mental retardation.
3. To offer training in the understanding of mental retardation for professional workers of many fields.

4. To cooperate in and to initiate research projects. A center like that would bring together specialists from all over the world in this area.

5. To develop strong affiliations with universities and medical schools and other organizations interested in the field.

6. To make these services available on an international scale. And

7. to promote the worldwid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acquired. (103)



Figure 2. Pearl Buck Displaying Artist's Concept for Ellis Island. Photograph. Gettyimages, December 06, 1962.

(Original Caption) Has design for Ellis Island...At a Senate hearing on Ellis Island's future, Nobel author Pearl Buck displays composite airview and artist's conception of a \$5,300,000 diagnostic center for

mentally retarded. Miss Buck, board chairman of Vineland (N.J.) training school, spoke at the hearing at 799 U.N. Plaza. (Bettman 1962)

Buck added that the mentally disabled would come to Ellis Island “for diagnosis and would then go on to their respective communities wherever it was recommended that they be sent, to whatever schools, to whatever appropriate places” (103). Generally, the period of diagnosis would not exceed three months.

Towards the end of her witness statement, Buck reiterated her confidence that “the establishment of a complete service unit for diagnosis for the whole country and for anybody else who wishes to come from abroad, as we contemplate, at Ellis island would provide facilities not equaled in the area-or in the world” (103). She then summarized that the Training School’s cause “is of benefit to mankind, and particularly at this time, when the whole area of mental retardation, its probable causes and certain preventions can be diagnosed” (109). She went on to say that “Ellis Island for generations has been a symbol of the immigrant who entered the free world, and we hope to make Ellis Island a symbol of the entry of the mentally retarded into a world in which he may become a participating and contributing member” (109). Concerned that some would doubt the limited beneficiaries of the Training School’s proposal, Buck answered why Ellis Island could and should be used only for the mentally retarded in threefold:

1. We have great areas to explore in this field. We should be able in the future to convert a majority, at least, of the mentally retarded into taxpaying, rather than tax-consuming, individuals.

I cannot overestimate to you, sirs, the immense cost of the mentally retarded, both to the Federal Government and to the State governments. I happen to be chairman of the Governor's committee for the handicapped in Pennsylvania, and, in visiting our institutions only, although I have visited them in other States, it is appalling to see the number of young, retarded people or older, retarded people who are there because no one has determined whether they can

work or not.

Very few of them get proper diagnosis, and I have seen cases where a mentally retarded person trained even after he was 15 was able to undertake a simple, repetitive job in industry and support not only himself but take his old parents off the relief rolls, not to mention the satisfaction that he gets as a human being.

2. There is the matter of the rights of this mentally retarded group. They deserve and are entitled to opportunities in training, education and jobs within the limits of their varying capacities. They do not cease to be citizens of our country and of our Republic because they are mentally retarded.

3. Experience over the past 75 years at The Training School has proved that much of the knowledge we have gained, in working with the mentally retarded, as I have said, has helped the normal individual. Untold benefits to the normal are derived from the study of the subnormal. (109-110)

The Senate Subcommittee o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wrapped up its hearing on the disposal of Ellis Island on December 7, 1962. The next day, journalist David Anderson from *The New York Times* reported that the island would “remain abandoned and forlorn for the foreseeable future, it was indicated yesterday at the end of a Congressional hearing here. None of the proposals made for use of the 27-acre island in Upper New York Bay aroused notable interest in the Senate Subcommittee o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David Anderson rated the Training School’s proposal one of “the leading proposals” that had “real merit.” However, as Anderson reported, “Near the end of the hearing, the chairman, Senator Edmund S. Muskie, Democrat, of Maine, said that ‘no one disposition commends itself to us’” (Anderson 1962).

Notwithstanding the Subcommittee’s indecision, Senator Edmund S. Muskie thought highly of Pearl Buck’s presentation. In his letter to Senator Clifford P. Case dated March 11, 1963, Senator Muskie wrote:

You will be pleased to know that Miss Buck and Dr. Jacob made a very effective presentation at our New York City hearings in behalf

of the proposed disposal of the island to the training school at Vineland, N.J. Certainly, the Vineland plan is one of the best developed proposals which has been presented to the subcommittee and it has the added advantage of emanating from a long-established institution which enjoys an outstanding reputation in the field of mental retardation. I assume that the subcommittee will decide to give further study and consideration to the matter of the disposition and future utilization of Ellis Island. If that is the case, I am confident that the plan presented by the training school at Vineland will be carefully examined. (U.S. Congress. Senate. 1963, 3886)

In 1963, Senator Clifford Case, together with his allies, kept pushing for the disposal of Ellis Island to the Training School at Vineland and used Pearl Buck's compelling presentation as evidence of the strength of his reintroduced bill. Unfortunately, the fate of Ellis Island would remain in limbo for years until it was finally turned into Ellis Island Immigration Museum in 1990. Nevertheless, Pearl Buck's leadership in the Training School's efforts to acquire Ellis Island elevated the school's national visibility and raised public awareness on mental disability as a social issue that needed support from Federal and state governments. Pearl Buck's testimony at the Senate hearing was especially informational with reference to the importance of diagnosis and the urgent need for diagnostic facilities.

Pearl Buck as an Inspiration for Other Pioneers in Special Education

In 1971, Bartholomew House published *Pearl Buck's America*. In this non-fiction, a well-travelled Pearl Buck shared with her readers what she found beautiful, noteworthy, or extraordinary in many of the states of the U.S. When introducing Oregon, Pearl highlighted its beautiful coastal scenery, delicious fruits, and picturesque national parks. At the end of her introduction to Oregon, Buck writes, "I have left until the last my own private, personal, deepest concern in Oregon. In the town of Eugene there is one of the finest schools in the world for retarded children. The school bears my name. I

consider this the highest honor of my life" (Buck 1971, 233).

In 1953, Elisabeth Waechter founded Pearl Buck School in Creswell, which was a small city in the Willamette Valley of Lane County, Oregon. Waechter saw the need for a school specialized in supporting the intellectually disabled children and their families as the public schools of the time offered null or nominal support and accommodations for them. Waechter named the school after Pearl Buck as she was so inspired by the Nobel Laureate's efforts to remove the stigma of mental retardation (Pearl Buck Center 2025). The 320-page *Pearl Buck's America* is not the only place that Buck appreciated and promoted Pearl Buck Center. Based on materials prepared by Elisabeth Waechter, Pearl Buck wrote *A Community Success Story: The Founding of the Pearl Buck Center*, which was published by John Day in 1972, a year before Buck's pass away (Buck and Waechter 1972).



Figure 3. Elisabeth “Lisl” Waechter, founder of Pearl Buck Center (Pearl Buck Center n.d.)

Like Pearl Buck, Elisabeth Waechter lived in and traversed multiple cultures and dedicated decades of her life as an advocate for the intellectually disabled. Elisabeth Waechter was born in 1911 and trained as a nursery schoolteacher. During WWII, Elisabeth, at the time a kindergarten teacher, and her husband, Heinrich Waechter, escaped the Nazis’ persecution. They first fled to Sweden, stayed for a short period in Japan, and eventually landed in California. Unfortunately, Elisabeth’s father, Dr. Siegfried Schloß, an accomplished lawyer, was murdered in one of Nazis’ death camps (Biographizes Redenbach [Biographical Memorial Book] n.d.). After Heinrich was offered a position as an architecture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Oregon, the couple moved to Eugene. Elisabeth Waechter served as executive director of Pearl Buck School, which was later renamed Pearl Buck Center Incorporated, for 38 years in total (Pearl Buck Center 2025). In 1998, the center honored its founder with the Lifetime Achievement Award. Upon Waechter’s passing away in 2001, many expressed appreciation and admiration to her decades-long contribution as a pioneer and leader in the field of special education for the intellectually disabled. For instance, *Corvallis Gazette-Times* published “Pearl Buck School Founder Dies in Eugene,” where it commends that “Elisabeth Waechter was a respected educator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Over the years, Waechter steered her organization to the changing needs of a maturing clientele: first children, then adults seeking jobs, then the families of par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finally, helping those with profound challenges to develop personal and social skills in a community setting instead of an institution. Waechter also helped found the local chapter of the Association for Retarded Citizens” (*Corvallis Gazette-Times* 2001, 6).

Today, Pearl Buck Center remains a vibrant hub for individuals with a wide range of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their families by offering programs such as Pearl Buck Preschool & Family Supports, Supported Living, Community Employment and more. *The Chronicle*, founded in 1909, is a locally owned newspaper in the Southern Willamette Valley. In June 2024, Amanda Lurey, a journalist from *The Chronicle*, published an article titled “Buck Center Still Providing Opportunities.” Amanda Lurey reported that “Pearl Buck Center annually supports about 700 children and adults with disabilities in the Eugene-Springfield area through its five programs: Preschool, Life Enhancing Activities Program (LEAP), Supported Living, Community Employment, and Vocational Academy” (2024). Although Elisabeth Waechter and the woman who had inspired her into action have both passed away, their legacies continue to live on through the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that believe in their causes.

Reference List

- Amanda Lurey, Amanda. 2024. "Buck Center Still Providing Opportunities." *The Chronicle*, June 19, 2024.
<https://www.chronicle1909.com/2024/06/19/buck-center-still-providing-opportunities/>
- Anderson, David. 1962. "No Plan Favored for Ellis Island; Ideas at Senate Hearing Arouse Little Interest." *New York Times*, December 8, 1962.
<https://www.nytimes.com/1962/12/08/archives/no-plan-favored-for-ellis-island-ideas-at-senate-hearing-arouse.html>
- The Arc Alliance. n.d. "The Arc and The Arc Alliance Through the Decades." Accessed October 10, 2025.
<https://thearcalliance.org/our-history/#:~:text=In%201949%20eight%20people%20responded,the%20formation%20of%20local%20chapters.>
- Bettmann. 1962. *Pearl Buck Displaying Artist's Concept for Ellis Island*. Photograph. Gettyimages. December 06, 1962.
<https://www.gettyimages.com/detail/news-photo/has-design-for-ellis-island-at-a-senate-hearing-on-ellis-news-photo/517364014#:~:text=Has%20design%20for%20Ellis%20Island&text=At%20a%20Senate%20hearing%20on%20Ellis%20Island's,composite%20airview%20and%20artist's%20conception%20of%20a>
- Biografisches Gedenkbuch [Biographical Memorial Book]. n.d. "Personal Data: Waechter Elisabeth." Stadtarchiv Bad Kissingen [Bad Kissingen City Archives]. Accessed October 12, 2025.
https://www.biografisches-gedenkbuch-bk.de/en/database/40239.Database.html?detID=873&page_biografischeshandbuch=35
- Buck, Pearl S. 1956. *My Several World*. Pocket Books.
https://openlibrary.org/works/OL1140282W/My_several_worlds?edition=key:/books/OL24214834M
- Buck, Pearl S. 1971. *Pearl Buck's America*. Bartholomew House.
<https://archive.org/details/pearlbucksameric0000buck/page/233/mode/lup?view=theater&q=retarded>
- Buck, Pearl S. and Elisabeth Waechter. 1971. *A Community Success Story; The Founding of the Pearl Buck Center*. John Day Company.

- Corvallis Gazette Times*. 2001. "Pearl Buck School Founder Dies in Eugene." April 26, 2001.
<https://www.newspapers.com/article/corvallis-gazette-times-elisabeth-waecht/35641009/?locale=en-US2001>.
- Distinguished Daughters of Pennsylvania. 2024. "75th Anniversary Directory of the Distinguished Daughters of Pennsylvania." <https://www.distinguisheddaughtersofpa.org/Resources/1949-to-2008-directory.pdf>
- Pearl Buck Center. 2025. "About Us."
<https://pearlbuckcenter.com/about/about-us/>
- Pearl Buck Center. n.d. *Elisabeth "Lisl" Waechter, founder of Pearl Buck Center*. Photography. Pearl Buck Center. n.d.
<https://pearlbuckcenter.com/about/about-us/>
- Today*. n.d. *Author Pearl S. Buck testifies before a Senate subcommittee on new uses for Ellis Island in December 1962*. Photograph. *Today*. n.d.
<https://www.today.com/popculture/eternal-wonder-newly-found-pearl-s-buck-book-be-published-6c10051714>
- U.S. Congress. Senate. Committee on Government Operations. Subcommittee o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1962. *Disposal of Ellis Island (New York Harbor): Hearings Before the United States Senate Committee on Government Operations, Subcommittee o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Eighty-Seventh Congress, second session, September 26, December 6 and December 7, 1962.
<https://babel.hathitrust.org/cgi/pt?id=umn.31951d02159150a&seq=5>
- U.S. Congress. Senate. 1963. *Disposal of Ellis Island to Training School at Vineland, N.J.-Statement by Senator Case*. By Clifford P. Case. Eighty-Eighth Congress, first session, March 11, 1963. 3886-3887.
<https://www.govinfo.gov/content/pkg/GPO-CRECB-1963-pt3/pdf/GPO-CRECB-1963-pt3-11.pdf>

전장시(鎮江市) 펄 벅 연구와 문화적 소통

卢章平¹, 梁炜²

전장시 펄벅연구회, 장쑤대학교 도서관, 전장시, 중국

초록

펄 S. 벅(Pearl S. Buck)과 전장시 사이에는 깊은 역사적 인연이 있습니다. 그녀는 18년 동안 살았던 전장시를 자신의 ‘중국 고향’으로 여겼습니다. 본 연구는 전장시의 펄 벅 연구와 문화적 소통에 관한 혁신적인 탐구를 세 가지 관점, 즉 자료 구축의 체계적 개발, 문화적 소통의 실천적 경로, 그리고 이론적 혁신의 돌파구라는 관점에서 분류했습니다. 또한 펄 벅 연구의 국제화를 도모하고, 중국과 외국 간의 문화 교류와 대화를 촉진하는 데 전장시가 지닌 고유한 가치를 설명합니다.

키워드: 펄 S. 벅, 전장시, 문헌 자료 개발, 문화적 소통

펄 벅은 생후 4개월 때 부모님과 함께 중국으로 건너가 18년간의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전장시에서 보냈습니다. 그렇다 보니 펄 벅은 전장시를 자신의 ‘중국 고향’으로 여기고, 전장시 사람들도 그녀를 그들의 ‘딸’로 여깁니다. 지금까지 ‘1연구회, 3연구소, 1센터’ 구조, 즉 전장시 펄벅연구회(Zhenjiang Pearl S. Buck Research Association), 전장 지역 3개 대학의 펄벅연구소(Pearl S. Buck Research Association), 펄벅국제문헌자료센터(Pearl S. Buck International Literature Resource Center)를 기반으로 전장시는 펄 벅 연구와 문화를 위한 고유한 장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왔습니다. 동서양 문화 교류의 ‘가교’로 유명한 펄 벅의 작품에 구현된 문화적 평등과 통합이라는 개념은 복잡한 오늘날의 국제 환경 속에서 연구와 소통에 있어 그 가치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전장시의 자료 구축, 문화적 소통 실천,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펄 벅 문화의 대중화를 위한 이론적, 실천적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I. 펄 S. 벅 문헌 자료의 체계적 개발: ‘수집’에서 ‘체계화’로

문헌 자료는 학술 연구와 문화 계승의 초석입니다[1]. 전장시의 펄 벅 문헌 자료 개발은 주로 장쑤대학교 국제 펄 벅 문헌자료센터(이하 ‘문헌자료센터’), 전장시 펄 벅 연구회(이하 ‘시립 펄 벅 연구회’), 그리고 펄 벅의 고택(Former Residence)을 중심으로 한 공동의 노력에 기인합니다. 이들은 힘을 합쳐 전

세계에서 ‘가장 판본이 풍부하고, 가장 범주가 포괄적이며, 가장 범위가 넓은’ 탁월한 펄 벅 문헌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 같은 체계의 확립은 ‘양적 축적’에서 ‘질적 도약’으로, 그리고 ‘산발적 보존’에서 ‘체계적 통합’으로의 중대한 전환을 의미합니다.

1. 다채널 공동 자료 수집 모델

전장의 펄 벅 자료 개발은 펄 벅 문헌 자료 센터를 중심으로 펄 벅 문헌의 ‘발굴, 정리, 보존,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펄 벅 관련 문헌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 보존하기 위해 다차원적인, 지역 간 협력 모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단일 기관이 가진 자원의 한계를 지속적으로 극복하며 ‘국내적 협력, 전문가 공조, 국제적 확장’의 입체적 문헌 수집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습니다.

국내적 협력 측면에서는 중국 국가도서관(National Library of China)과 푸단대학 도서관(Fudan University Library) 등의 유명 장서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희귀 판본을 실질적으로 보완하고, 자료의 빈틈을 메우며 중국 내 펄 벅 문헌의 분포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전문가 싱크탱크 지원 측면에서는 야오시페이(Yao Xipei), 왕펑젠(Wang Fengzhen) 등 펄 벅 연구 분야의 저명한 학자들과 심도 있는 공조가 이루어졌습니다. 개인 소장 원고, 연구 노트, 내부 자료를 확보해 자료의 학술적 가치와 고유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국제적 협력 확대 측면에서는 미국의 웨스트버지니아대학교(West Virginia University), 펄벅 인터내셔널(Pearl S. Buck International)과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문헌 교류와 공동 기구를 통해 귀중한 해외 판본과 연구 성과를 성공적으로 소개함으로써 중국 내 소장 자료에 대한 국제적 시각을 보완했습니다.

또한 센터 직원들은 펄 벅 관련 자료를 심도 있게 탐구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19년에는 월간지 <아시아(Asia)>에 실렸던 펄 벅 관련 글 모음집을 편찬하였고, 2020년에는 중화민국 시대의 펄 벅 관련 정기 간행물과 신문 문헌을 모아 편찬함으로써 국제, 국내 수준에서 각각 부족했던 부분을 채웠습니다. 이러한 다채널 자료 탐구 모델은 자료의 ‘양적’인 축적을 달성할 뿐만 아니라, 원본 문헌에서 연구 결과, 중국어 자료에서 다국어 텍스트에 이르는 자료의 ‘질적’ 다양성을 확보하여 입체적인 문헌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2. 펄 벅 문헌 자료의 구성과 가치

현재 문헌자료센터는 다양한 주요 범주를 아우르는 1,000종 이상의 문헌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펄 벅의 작품으로는 1930년부터 1973년까지의 귀한 판본을 포함해 129종 146권의 원본 작품을 소장하고 있으며, 이는 그녀의 창작 과정과 판본의 변화 과정을 연구할 수 있는 원본 자료들입니다. 또한 펄 벅의 『수호전(All Men Are Brothers)』 영역본과 13개 언어(한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히브리어 등)로 번역된 그녀의 작품 94권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문헌 연구 방면에서도 센터가 소장한 자료는 풍부하고 포괄적입니다. 문헌 비평, 비교 문화 연구, 사회사 등의 분야를 아우르는 52종 85권(공식 출판물과 내부 자료 포함)의 중국어와 영어로 된 연구서, 펄 벅 연구의 학술적 연구 맥락과 화두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2,435편의 학술지 게재 논문과 344편의 논문(국내외 석사, 박사 학위 논문 포함), 그리고 20종 86권에 이르는 일련의 내부 번역 자료를 포함합니다. 센터는 1991년 TV 드라마 버전과 1943년 연극 버전의 『대지(The Good Earth)』 대본 등 원고, 친필 서명본, 영화/텔레비전 대본 등 귀한 기록들도 소중히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 직원들은 펄 벅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탐구하는 데 힘써 왔습니다. 2019년에는 월간지 <아시아>에 실렸던 펄 벅 관련 글 모음집을 편찬하였고, 2020년에는 중화민국 시대의 펄 벅 관련 정기 간행물과 신문 문헌을 모아 편찬함으로써 국제, 국내 수준에서 각각 부족했던 부분을 채웠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펄 벅 관련 연구에 견고하고 포괄적인 문헌적 뒷받침을 제공합니다. 더 나아가 시립 펄 벅 연구회의 열람실은 ‘희소성(scarcity)’과 ‘독점성(exclusivity)’에 초점을 맞춘 펄 벅 자료의 보완이라는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소장 가치가 높은 펄 벅의 친필 서명본을 포함해 펄 벅의 원고를 다수 소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백 권의 <아시아> 오리지널 발행본과 스웨덴 왕립 과학한림원(노벨상 수여 기관)이 기증한 귀중한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펄 벅의 고택은 ‘시나리오 기반 전시’가 특징이며, 그녀의 다양한 작품을 전시하는 특별한 벽이 있습니다. 전시품이 많지는 않지만 ‘고택 시나리오 + 문학 전시’라는 형식이 문학 작품의 가독성과 매력을 높여 펄 벅의 문학이 대중과 만나는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 향후 자료 구축의 방향

현재 문헌자료센터는 ‘글로벌 펄 벅 문헌 자료 공유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문헌 디지털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활성화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의 목적은 귀중한 판본의 고화질 스캔 파일, 다국어 텍스트 교차 검색 기능,

연구 결과의 실시간 업데이트 등을 통해 전 세계 연구자들에게 편리한 ‘원스톱’ 문헌 자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펄 벅 연구의 국제 문헌 허브로서 센터의 위상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시립 펄 벅 연구회는 국내외 젊은 학자들을 펄 벅 연구에 지속적으로 참여시켜 차세대 펄 벅 연구 인재를 양성하고, 펄 벅 연구의 장기적인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또한 펄 벅 고택은 독특한 지리적 위치와 뿌리 깊은 문화유산을 활용해 체험 학습 중심의 다양한 활동을 개발한다면, 사람들이 개인적 체험을 통해 펄 벅의 문화적 함의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는 청중 기반을 확대할 뿐 아니라 펄 벅의 문화적 소통의 영향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II. 문화 소통의 실천: ‘학계’에서 ‘대중 공유’로의 경로 혁신

풍부한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전장시는 전통적인 학술 연구의 한계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틈새 연구를 확장해 왔습니다. 시립 펄 벅 연구회와 문헌자료센터는 공동의 노력을 통해 ‘방문 및 교류, 교육적 체험, 예술적 소통’이라는 세 가지 차원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소통 시스템을 구축하여 펄 벅 문화의 대중화와 국제화를 효과적으로 진척시켜 왔습니다. 시립 펄 벅 연구회와 문헌자료센터는 모두 ‘장쑤성 사회과학 대중화 거점(Jiangsu Provincial Social Science Popularization Base)’라는 타이틀을 얻었는데, 이는 소통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이들이 공기관과 사회 각계각층 모두의 인정을 받았음을 나타냅니다.

1. 방문과 교류: 문화 간 대화 네트워크 구축

전장시에서 펄 벅 문화를 나누는 데 있어 방문과 교류는 문화 간 대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핵심 접근방식으로서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전장시 펄벅문화광장(Zhenjiang Pearl S. Buck Cultural Square), 펄 벅 고택, 펄벅기념관(Pearl S. Buck Memorial Hall)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공간 역할을 하며, 다양한 배경과 분야의 방문객을 끌어들이며 펄 벅 문화를 탐구하고 소통하게 합니다[2].

이러한 장소는 역사적 기억의 전달자일 뿐 아니라 문화적 대화의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템피(Tempe)시에서 온 학생들은 펄 벅의 작품에 표시된 동양 세계에 직접 ‘닿기(touch)’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미국 유타 청소년 무용단(Utah Youth Dance Troupe)은 보디랭귀지를 통해 한 세기 전의 문학적 영혼과 시간을 초월한 대화를 나눕니다. 시인 지디 마지아(Jidi Majia)가 이끄는 문학 기행단은 이 땅에서 영감을 얻어 동서양의 정서적 공명

을 시로 연결시키려고 노력합니다. 한편 장쑤성 인민대표회의(Jiangsu Provincial People's Congress)의 연구팀도 이곳에서 특별 연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장쑤대학교의 방대한 플랫폼을 바탕으로 문헌자료센터는 설립 이후 지금까지 6,000명이 넘는 방문객, 연구자, 교류 참가자를 맞이하며 국내외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학술 및 문화 교류 네트워크를 서서히 구축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교부 정책기획부국장 황정(Huang Zheng) 등 정부 관계자들의 연구 방문, 케임브리지대학교 학장 부부, 독일의 중국학자, 노벨문학상 심사위원 볼프강 쿠빈(Wolfgang Kubin) 등 국제 학계 주요 인사들의 방문이 있었고, 무엇보다 의미 있었던 방문은 펄 벅과 평생을 함께했던 친구들의 후손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뿌리 찾기 교류였습니다.

학계, 예술계, 청년회, 정부 부문을 아우르는 국내외 손님들의 방문이 다양하고 상호 연결된 문화 교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펄 벅의 정신적 유산이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지속적이고 새로운 활력을 발산하게 하였습니다. 이같이 풍부하고 다채로운 교류는 전장시에서의 펄 벅 연구에 대한 학문적 영향력과 국제적 명성을 크게 드높였을 뿐 아니라 문화의 연결자라는 펄 벅의 독특한 지위를 더욱 심층적으로 강화함으로써 펄 벅의 다문화 정신을 실질적인 대화의 기회로 전환하고, ‘문학을 매개로 문명적 상호 학습을 증진한다’라는 개념을 실천했습니다.

2. 교육적 체험: ‘청소년 친화적’인 ‘양방향’ 소통 증진

문화적 소통 방식 업그레이드

전장 펄 벅 문화소통센터(Zhenjiang Pearl S. Buck Cultural Communication Center)는 주로 어린 학생과 해외 방문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체험 활동을 통해 청소년 친화적인 양방향 소통 방식으로 개선했습니다. 대학과의 협력 측면에서는 지역 대학 자원을 활용해 일련의 연구 활동을 설계, 실행하여 전통적인 정적 전시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국-미국(Sino-US)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참여 학생과 국제 교육대학(School of International Education)의 국제 학생 등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방문객과 학습자를 유치했습니다. 2025년까지 장쑤대학교는 펄 벅 연구 성과를 학술 교육 시스템에 통합하고, 학부 교양 과정으로 <펄 벅과 중국(Pearl S. Buck and China)>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은 센터의 문헌자료와 전장시 펄벅기념관을 융합해 ‘독자적 자료의 개발과 활용(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Distinctive Resources)’, ‘작품 해석(Interpretation of Works)’, ‘지역 문화가 도시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Influence of Local Culture on Urban Image)’, ‘중국과 서양 문화의 조화

와 공존(Integration and Coexistence of Chinese and Western Cultures)', 네 개 교육 모듈을 개발해 파편화된 문화적 소통에서 체계적인 학문 교육으로의 전환을 실현할 것입니다.

체험 활동 설계에서는 다양한 주제별 활동을 통해 문화적 인식을 지속적으로 심화해 왔습니다. 시립 펄 벅 연구회는 무대 연극 공연, 펄 벅 아동 문학 교실, '지구에 대한 감정(Feelings for the Earth)' 시 낭송 대회, 펄 벅 탄신 129주년을 기념하는 서화 소장품 전시회 등의 활동을 개최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펄 벅의 예술적 요소를 소통 시나리오에 접목해 그녀의 문화적 이미지를 '지식의 상징'에서 '지각할 수 있는 정신적 경험'으로 전환하고, 젊은 세대의 문화적 정체성을 크게 강화합니다. 2025 독서절(Reading Festival)에서 장쑤대학교 도서관은 여러 학과 및 단과대와 협력해 <대지> 서평집을 전시하고, 창작시 경연 대회를 열었습니다. 양방향의 혁신적인 형식을 통해 교사와 학생의 참여 열정을 자극해 문화적 소통의 깊이와 폭을 넓히는 데 기여했습니다. 형제애와 박애의 정신을 전하는 일도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일입니다. 시립 펄 벅 연구회는 전장 특수교육센터(Zhenjiang Special Education Center)에 '펄벅교실(Pearl S. Buck Classes)'을 세우고, 실험 학교들에 '펄벅협회(Pearl S. Buck Societies)'를 설립했으며, 펄벅예술단(Pearl S. Buck Art Troupe)을 조직해 사회 공헌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이 같은 실천을 통해 문화 정신과 사회봉사의 유기적인 통합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시대의 소통 요구에 발맞춰 문헌자료센터와 시립 펄 벅 연구회는 새로운 미디어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적용해 '온라인' 입체 소통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틱톡, 위챗, 레드노트와 같은 인기 소셜 플랫폼에서 '짧고, 수평적이고, 빠른' 콘텐츠 형식을 통해 젊은 층을 끌어들이면서 다방면에 걸친 다층적 온라인 소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세심하게 설계된 가볍고 양방향성이 높은 콘텐츠 형식을 통해 좀 더 폭넓은 세대를 성공적으로 유인하여 효과적인 정보 전달과 상호 작용을 달성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접근방식을 결합한 이 같은 소통 전략은 문화적 소통의 범위와 영향력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상호 작용과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새로운 소통 패턴을 형성해 문화의 계승과 혁신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3. 예술적 소통: '지역적 발자취'에서 '세계적 발자취'로의 혁신

전장시는 예술적 표현을 매개체로 펄 벅 문화 브랜드 구축에 전념하여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오늘날 전장시는 두 가지 획기적인 문화적 성취를 이루어 냈습니다. 하나는 대규모 무대 연극의 창작과 공연이고, 또 하나는 펄 벅을 주제로 한 시, 서예, 회화 순회 전시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펄 벅 문화의 소통을 촉진하여 지역적 영향력에서 세계적 영향력으로의 도약을 현실화했습

니다.

무대 연극 분야에서는 2015년 8월, 뉴욕의 링컨센터(Lincoln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에서 <춘강화월야: 펄 S. 벅(Moonlit Night on the Spring River: Pearl S. Buck)>이 초연됐습니다. 나흘간 1만여 명의 관객이 작품을 관람했습니다. 탁월한 예술성과 긍정적인 시장 반응으로 '뉴욕 타임스(The New York Times)'와 '워싱턴 포스트(The Washington Post)' 등 국제 주류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펄 벅을 주제로 한 시, 서예, 회화 순회 전시는 그 소통 경로가 확장되는 추세가 확연히 보입니다. 2015년부터 전장시 펄 벅 연구회와 문헌자료센터는 전장, 난징(Nanjing), 화이안(Huai'an), 루산(Lushan) 등 펄 벅의 생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에서 순회 전시를 개최해 왔습니다. 서예와 회화 등 전통적인 중국 예술 형식을 통해 펄 벅과 중국 농촌 지역 간의 깊은 유대감과 인도주의 정신이 생생하게 드러나는 이 순회 전시는 수만 명의 관객이 다녀갔습니다. 2019년부터는 국제 무대로 확장해 미국의 펄벅인터내셔널, 웨스트버지니아 대학교, 이탈리아의 밀라노 대학교(University of Milan), 대한민국의 부천펄벅기념관(Pearl S. Buck Memorial Hall in Bucheon) 등 여러 기관과 순회 전시 협약을 체결하여 소통의 범위를 세계 수준으로 확대했습니다. 2024년 9월, 미국 버지니아주 머내서스(Manassas)의 마스 클라우드 미술관(Mars Cloud Art Museum)에서 '찬란한 진주 - 중국 전장에서 온 펄 S. 벅 테마 서예·회화 전시(Brilliant Pearl—Pearl S. Buck Themed Calligraphy and Painting Exhibition from Zhenjiang, China)'가 개최되어 '펄 벅의 세계적 발자취를 따라가는 서예·회화 순회 전시'를 공식적으로 알렸으며, 이는 문화적 소통에 있어 '중국적 발자취'에서 '세계적 발자취'로의 중대한 도약을 달성한 것입니다.

더불어 전장시는 만화 <전장의 펄 벅(Pearl S. Buck in Zhenjiang)> 제작, 펄 벅을 주제로 한 영화와 TV 작품 촬영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예술적 소통의 기반을 더욱 풍부하게 다지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언어인 예술은 언어 장벽을 효과적으로 극복하여 펄 벅 문화가 '아름다움을 가교 삼는' 접근방식을 통해 문화 간 소통을 달성하고, 펄 벅 문화 연구와 홍보에 혁신적인 경로를 제공했습니다.

III. 문화 소통론: '자료 축적'에서 '이론적 혁신'으로의 약진

펄 벅 관련 역사적, 문화적 자료를 연구의 핵심으로 삼아 전장시는 학술 대회 개최를 통해 대화와 교류의 가교를 구축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학술 성과 출판을 통해 연구 기반을 공고히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 연구 프로젝트 수행은 심층적 탐구를 더욱 촉진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바탕으로 펄 벅 연구를 위한 체계적인 학술 교류 플랫폼이 구축되었고, 이를 통해 펄 벅 연구는 활

어진 자료를 정리하는 단계에서 체계적인 이론 구축의 단계로 한층 심화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이 뒷받침하고, 연구를 통해 움직이며, 소통을 통해 달성되는 긍정적인 순환 생태계가 점진적으로 형성되어 도시 문화 브랜드 구축과 국제 문화 교류[3]에 지속적인 추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교류 플랫폼 구축

지식 교류와 사상 담론의 핵심 플랫폼으로서 학술 대회는 펄 벅 연구 자원을 활성화하고 전장시에 세계적인 연구 인력을 집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장시는 다양한 주제와 규모의 수준 높은 학술 대회를 주최하고 진행하며, 펄 벅 연구의 심층적이고 광범위한 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글로벌 현장에서 펄 벅 연구의 핵심적인 위치를 점진적으로 공고히 해 왔습니다.

1991년, 전장시는 펄 벅 문예 창작 세미나(Pearl S. Buck Literary Creation Seminar)를 개최해 펄 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시도한 중국 최초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펄 벅 연구회는 2003년에 공식 출범했습니다. 2005년 6월, '펄 벅 탄신 113주년과 중국 항일전쟁 승리 60주년을 기념하며 (Commemorating the 113th Anniversary of Pearl S. Buck's Birth and the 60th Anniversary of China's Victory in the War of Resistance Against Japanese Aggression)'라는 주제로 국제 펄 벅 학술 세미나가 전장시 벽유원(Biyu Garden)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습니다. 이 세미나는 펄 벅의 문예 창작과 그 역사적 가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펄 벅의 대지 여행(Pearl S. Buck's Journey of the Earth)' 관광 협력 교류 회의를 개최하여, 학술 연구와 문화 관광 자원 개발을 융합한 최초의 세미나였습니다. 지역 대학교의 적극적인 참여로 펄 벅 학술 대회의 전문성이 크게 향상되고, 그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펄 벅 연구 분야에서 전장시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2015년 장쑤대학교가 국제 펄 벅 학술 세미나를 주최했고, 2019년에는 전장대학(Zhenjiang College)가 국제 펄 벅 학술 세미나를 주최했습니다. 특별히 2022년에는 펄 벅 탄신 130주년을 맞아 장쑤대학교가 '상호 이해, 융화, 미래로 나아가기(Mutual Understanding, Integration, and Moving Towards the Future)'라는 주제로 국제 펄 벅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칭화대학교, 베이징대학교, 푸단대학교, 미-중 연구소(US-China Institute), 이탈리아 밀라노대학교 공자학원(Confucius Institute) 등 국내외 대학교와 연구 기관에서 200명이 넘는 전문가와 학자가 온오프라인으로 학술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장시는 10회 이상의 국제 학술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또한 펄 벅 연구 분야의 새로운 인재 육성을 위해 시립 펄 벅 연구회는 젊은 학자들을 위한 여름 연구 캠프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여름 연구 캠프

프로그램은 전문가 강연, 현장 답사, 학술 살롱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전 세계의 젊은 연구자들에게 소통과 학습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펄 벅 연구의 세대 간 계승과 혁신적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 학술 연구 심화

펄 벅 자료와 학술 연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장기적 관행을 통해 전장시는 일련의 다층적 연구 성과를 점진적으로 쌓아 오면서, '실질적 탐구'에서 '이론적 정교화'로 전환하는 역량을 충분히 입증하고, 펄 벅의 학술 담론 체계 구축을 위한 탄탄한 경험적 토대를 제공했습니다[4].

지역의 대학 저널과 문화 간행물은 펄 벅 연구의 핵심 플랫폼이 되어 다각화된 학술 플랫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장쑤대학교 저널, 사회과학호(Journal of Jiangsu University, Social Sciences Edition)>, <전장대학 저널(Journal of Zhenjiang College)>, <장쑤과학기술대학교, 사회과학호(Journal of Jiangsu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al Sciences Edition)>, <금산(Gold Mountain)> 등 학술 간행물은 모두 펄 벅 연구 관련 칼럼이나 특집 기사를 게재하며 수준 높은 연구 논문을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학자들이 성과를 발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채널을 제공하며, 연구 작업의 표준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전장시는 사회과학 응용 연구를 위한 '펄 벅 연구 특별 프로젝트(Pearl S. Buck Research Special Project)'를 시작했습니다. 과학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심층 연구를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지역 대학교와 연구 기관을 유치해 펄 벅과 전장시의 역사적 연관성, 펄 벅 작품에 드러난 문화 간 소통, 펄 벅 정신의 현대적 가치 등을 주제로 한 특별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학 연구 프로젝트와 학술 논문은 펄 벅과 그녀의 작품에 대한 미시적 해석을 심화할 뿐만 아니라 문화간 연구, 역사학, 사회학 등 다학제적 각도에서 연구 관점을 확장하여 지역적 맥락에 맞는 펄 벅 학술 담론 체계 구축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학술 연구서 측면에서 전장시는 펄 벅 연구선집과 기념선집의 편찬과 출판을 끊임없이 진행하며 국내외 학자들의 최신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펄 벅 연구의 발전적 맥락을 정리해 왔습니다. 대중화와 소통의 측면에서는 펄 벅의 생애와 문화적 가치를 간결하고 명료한 언어로 많은 사람에게 알리며 그녀에 대한 대중의 이해의 문턱을 낮춘 <문화 가교 - 펄 벅(Cultural Bridge-Pearl S. Buck)>과 같은 대중서를 발간했습니다. 학제 통합적인 측면에서는 <대지의 진주(Pearls of the Earth)>가 2015년에 출간되었습니다. 펄 벅을 주제로 한 시, 서예, 회화 순회 전시의 작품집으로 시, 서예, 회화 예술을 펄 벅의 문화적 함의와 깊게 통합하여 '대지의 진주'라는 숭고한 의미를 포괄

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내용이 훌륭하고 장정이 아름다워 장쑤성 도서 제본상 (Jiangsu Provincial Book Binding Award)을 수상했습니다.

3. 소통 경로 구축

펄 벅 연구와 문화적 소통은 ‘성과의 양방향 확장’을 가치 논리로, ‘역할 전환’을 뒷받침하는 주체로, ‘입체적 전환’을 실질적 경로로 삼습니다. 이는 학술 연구, 사회적 요구, 정신세계 간의 깊은 상호 작용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여 펄 벅 문화가 ‘이론적 해석’에서 ‘대중 공유’와 ‘가치 공동 창조’로 발전하도록 장려합니다(그림 1 참조).

(1) 학술 성과의 양방향 확장 메커니즘

펄 벅의 연구 성과는 ‘논문/연구서’를 핵심 매개체로 하여 ‘수요-생산-응용’의 양방향 가치 사슬을 구축합니다.

① 전방 확장: 정신적 요구와 사회적 요구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학문적 생산이 더 이상 이론적 자기일관성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의 정신적 물음에 응답하고 사회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출발점 삼아, 연구의 문제 인식과 실질적인 관심을 강화합니다.

② 후방 확장: 정책 자문과 대중 소통 채널의 돌파구를 찾아 학술 성과가 전문 영역을 넘어 공공 정책 형성과 사회 문화 소통 영역으로 들어가게 함으로써 지식의 사회적 효용을 실현합니다.

(2) 학술 연구자의 역할 변환 경로

학술 연구 영역에서 펄 벅 연구자의 전통적인 역할 경계는 크게 확장되고 있으며, 점차 ‘문화 매개자’의 역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연구자의 작업은 더 이상 학문적 성과의 산출에 국한되지 않고, ‘정신적 요구와 대중적 소통’, 그리고 ‘사회적 요구와 정책 자문’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가교 역할로 변화하였습니다. 연구자들은 문화적 이슈를 깊이 탐구하고, 이를 대중적 소통에 적합한 자료로 변환하는 데 전념합니다. 이와 동시에 연구자들은 사회적 요구 이면에 있는 정책 논리를 분석하고, 정책 자문 과정에서 학문적 통찰을 지적 자원으로 탈바꿈합니다. 본질적으로 이러한 역할 변환은 연구 주체와 사회적 기능 간의 심층적 통합을 촉진하여 학술 연구가 고립된 자기만족에서 사회와의 조화로운 발전으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합니다.

(3) 학술 성과의 입체적 전환 전략

앞서 언급한 학문적 소통 확장 및 전환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재구성, 서사 전환, 그리고 기술 역량 강화 등 전환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① 미디어 재구성 측면에서는 학문적 소통과 대중적 소통 간의 미디어 장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플랫폼 통합과 채널 통합을 실현함으로써 학술 성과가 전통적인 ‘전문 저널/저작’에서 ‘대중 미디어 상품’으로 전환되도록 촉진하고, 이를 통해 지식 소통의 범위를 확장해야 합니다.

② 서사 전환 측면에서는 전통적인 ‘학술 서사’에서 ‘감성 서사’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진해야 합니다. 학술 서사는 전문성, 표준화, 과학성, 논리를 강조하는 반면 감성 서사는 묘사성, 상황성, 디테일, 생생함에 중점을 둡니다. 서사 기반, 감성 서사 논리를 통해 학술적 내용을 재구성하면 대중의 학술 성과 수용도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③ 기술 역량 강화 측면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콘텐츠 생성, 데이터 마이닝, 커뮤니케이션 최적화, 영상 제작 등 포함)을 활용해 연구 결과를 해독, 재조직, 재구성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기술 역량 강화는 성과 전환 과정에서 효율성을 향상하고 콘텐츠를 풍부하게 만들어 기술과 인문학적 연구의 심층적 융합을 실현하는 데 일조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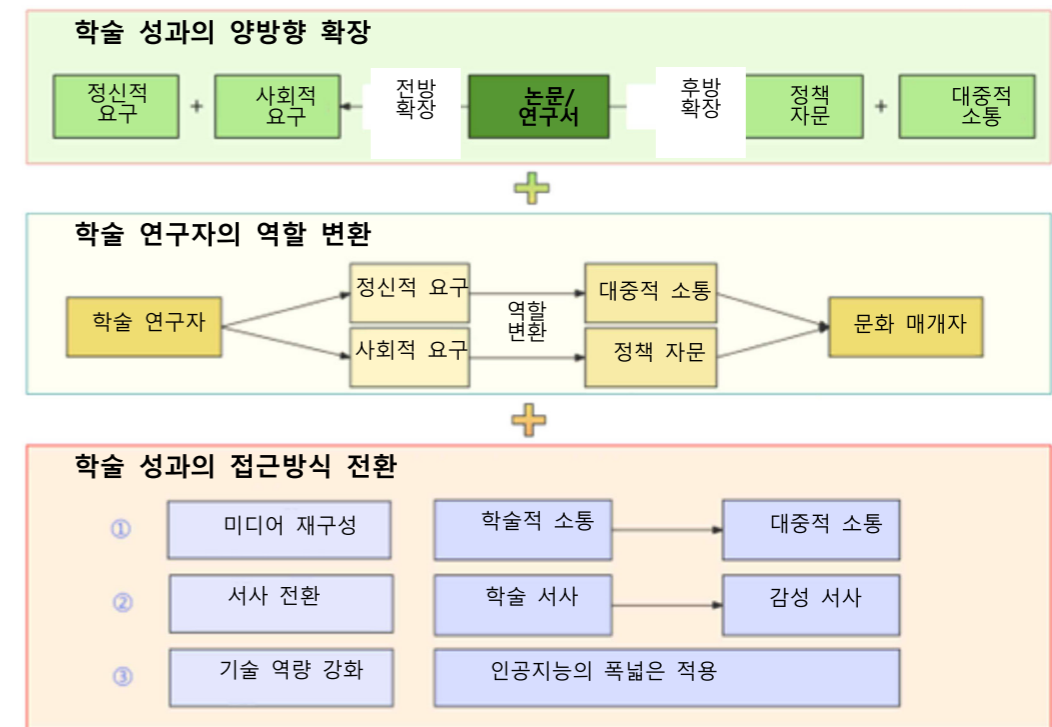


그림 1: 학술 성과의 대중화 경로 다이어그램

IV. 결론

펄 벅 연구와 문화적 소통에 있어 전장시의 실천 사례는 문헌 자료의 '체계적 구축'을 기반으로, 문화적 소통의 '대중적 돌파구'를 경로로, 그리고 학술 연구의 '이론적 고도화'를 목표로 삼아 고유한 개발 모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전장시를 세계 펄 벅 연구의 '문학의 중심지'와 '소통의 고지'로 만드는 것은 물론, 다문화의 상징인 펄 벅을 도시 문화 브랜드의 핵심 요소로 탈바꿈해 문명 간 상호 학습을 장려하고, 도시의 문화적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는 강력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앞으로 전장시의 펄 벅 연구 및 문화적 소통 활동은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펄 벅 연구가 '지역화'에서 '세계화'로 확장되도록 장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문화를 문화관광 및 교육과 깊이 융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펄 벅 문화가 대중의 삶에 진정으로 스며들고, 중국과 외국을 연결하는, 마음을 소통하는 항구적 가교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룰 때까지 전장시는 펄 벅 연구와 문화 교류를 기회로 삼아 도시의 문화적 소프트 파워와 국제적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고, 이 유명한 역사 문화 도시가 새로운 시대에 더욱 찬란히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참고문헌

- [1] Liu Jing, Zhang Tianyi, Yang Zhigang, et al. Research on the Embedded Service System of Celebrity Special Collections in University Libraries [J]. Library, 2023(01): 104-110.
- [2] Li Jiangyang, Gu Zhengtong, Lu Zhangping. Research on the Design of Virtual Display System for Pearl S. Buck Cultural Park [J]. New Media Research, 2023, 9 (04): 19-22+36.
- [3] Liu Jing, Cui Xinhui, Lu Zhangping. Analysis of the Academic Communication Model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of Pearl S. Buck Research Based on English Literature [J]. Journal of Jiangsu University (Social Sciences Edition), 2021, 23 (03): 54-62+72.
- [4] Lu Zhangping, Guo Xinchun, Su Wencheng. Analysis of the Thematic Evolution of Pearl S. Buck Research in China from the Perspective of Multivariate Data [J]. Journal of Jiangsu University (Social Sciences Edition), 2020, 22 (01): 49-59.

Pearl S. Buck Research and Cultural Communication in Zhenjiang

Lu Zhangping¹, Liang Wei²

Zhenjiang Pearl S. Buck Research Association, Library of Jiangsu University, Zhenjiang, China

Abstract

There exist profound historical ties between Pearl S. Buck and Zhenjiang. Her 18-year life experience in Zhenjiang led her to regard this city as her "Chinese hometown". This study systematically sorts out Zhenjiang's innovative explorations in Pearl S. Buck research and cultural communication from three dimensions: the systematic development of resource construction, the practical path of cultural communication, and the breakthrough in theoretical innovation. It also reveals Zhenjiang's unique value in advancing the internationalization of Pearl S. Buck research and promoting cultural exchange and dialogue between China and foreign countries.

Keywords: Pearl S. Buck; Zhenjiang; literature resource development; cultural communication

Pearl S. Buck moved to China with her parents when she was only four months old and spent 18 years of her childhood and adolescence in Zhenjiang. Consequently, Zhenjiang is regarded by her as her "Chinese hometown", and the people of Zhenjiang also consider her their "daughter". Up to now, relying on the structure of "one association, three institutes, and one center"—namely the Zhenjiang Pearl S. Buck Research Association, Pearl S. Buck research institutes at three local universities in Zhenjiang, and the Pearl S. Buck International Literature Resource Center—Zhenjiang has successfully built a unique field for Pearl S. Buck research and culture. Known as a "human bridge" for cultural exchange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the concepts of cultural equality and integration embodied in Pearl S. Buck's works have become increasingly valuable for research and communication against the backdrop of the complex current international environment. This

study aims to systematically sort out Zhenjiang's efforts in resource construction, cultural communication practice, and theory, so as to provide theoretical and practical guidance for the popularization of Pearl S. Buck culture.

I. Systematic Development of Pearl S. Buck Literature Resources: From "Collection" to "Systematization"

Literature resources form the cornerstone of academic research and cultural inheritance ^[1]. The development of Pearl S. Buck literature resources in Zhenjiang is mainly attributed to the joint efforts of the International Pearl S. Buck Literature Resource Center of Jiangsu University Librar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iterature Resource Center"), the Zhenjiang Pearl S. Buck Research Associ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unicipal Pearl S. Buck Research Association"), and Pearl S. Buck's Former Residence. Together, they have built a distinctive Pearl S. Buck literature system that is "the most abundant in versions, the most comprehensive in categories, and the widest in coverage" worldwide. The establishment of this system marks a crucial transformation from "quantitative accumulation" to "qualitative leap" and from "scattered preservation" to "systematic integration".

1. Multi-Channel Collaborative Resource Collection Model

With the Literature Resource Center as the core, Zhenjiang's Pearl S. Buck resource development focuses on the "rescue, organization, preservation, and research" of Pearl S. Buck literature. It adopts a multi-dimensional and cross-regional collaborative model to systematically collect, organize, and preserve literature resources related to Pearl S. Buck. The center constantly breaks through the resource limitations of a single institution and has built a three-dimensional literature collection network consisting of "domestic collaboration, expert cooperation, and international expansion".

In terms of domestic collaboration, through on-site investigations of well-known collections such as the National Library of China and

Fudan University Library, the center has systematically sorted out the distribution of domestic Pearl S. Buck literature, effectively supplementing rare versions and filling gaps in its collection. In terms of expert think-tank support, in-depth cooperation has been carried out with renowned scholars in the field of Pearl S. Buck research, such as Yao Xipei and Wang Fengzhen. Private collections of manuscripts, research notes, and internal materials have been obtained, greatly enhancing the academic value and uniqueness of the resources. In terms of international collaborative expansion, long-term cooperative relationships have been established with institutions such as West Virginia University (USA) and Pearl S. Buck International. Through literature exchange and joint organization, precious overseas versions and research results have been successfully introduced, filling the gap in the international perspective of domestic collections.

In addition, the center's staff have continuously committed to in-depth exploration of Pearl S. Buck-related resources. In 2019, they completed the Pearl S. Buck-themed compilation of *Asia*, and in 2020, they finished the compilation of Pearl S. Buck-themed periodicals and newspaper literature from the Republic of China era, filling gaps at the international and domestic levels respectively. This multi-channel resource exploration model not only achieves the "quantitative" accumulation of resources but also ensures the "qualitative" diversity of resources—from original literature to research results, and from Chinese materials to multilingual texts—building a three-dimensional literature ecosystem.

2. Composition and Value of Pearl S. Buck Literature Resources

Currently, the Literature Resource Center houses more than 1,000 types of literature, covering multiple key categories. In terms of Pearl S. Buck's works, the collection includes 129 types and 146 volumes of original works, including precious versions from 1930 to 1973, which provide original materials for studying her creative process and version evolution. At the same time, it collects Pearl S. Buck's translation of *<All Men Are Brothers>* and 94 volumes of multilingual translations involving 13 languages (including Japanese,

Korean, French, German, Spanish, Italian, Hebrew, etc.).

In the field of research literature, the center's collection is equally rich and comprehensive. It includes 52 types and 85 volumes of Chinese and English monographs (including publicly published works and internal materials), covering fields such as literary criticism, cross-cultural studies, and social history; 2,435 journal papers and 344 dissertations (including master's and doctoral theses at home and abroad) systematically reflect the academic research context and hot topic changes of Pearl S. Buck studies; and 20 types and 86 volumes of internal translated series materials. The center also treasures precious archives such as manuscripts, signed copies, and film/television scripts, such as the scripts of the 1991 TV drama version and the 1943 stage play version of *<The Good Earth>*.

In addition, the center's staff have been committed to organizing and exploring Pearl S. Buck-related resources. In 2019, they completed the Pearl S. Buck-themed compilation of *<Asia>*, and in 2020, they finished the compilation of Pearl S. Buck-themed periodicals and newspaper literature from the Republic of China era, filling gaps at the international and domestic levels respectively. These resources provide solid and comprehensive literature support for Pearl S. Buck-related research. Furthermore, the reference room of the Municipal Pearl S. Buck Research Association serves as a distinctive supplement to Pearl S. Buck resources, focusing on "scarcity" and "exclusivity". The reference room not only collects a large number of Pearl S. Buck's original works, including many signed copies of great collection value but also houses hundreds of original issues of *<Asia>* and precious materials donated by the Royal Swedish Academy (the institution that awards the Nobel Prize). Pearl S. Buck's Former Residence features "scenario-based presentation" and has a special wall displaying various works by Pearl S. Buck. Although the quantity is limited, the form of "former residence scenario + literature exhibition" enhances the readability and appeal of the literature, serving as an important window for the public to access Pearl S. Buck's literature.

3. Future Directions of Resource Construction

At present, the Literature Resource Center is committed to promoting the digitization of literature and the construction of a database, aiming to build a "Global Pearl S. Buck Literature Resource Sharing Platform". The construction goals of this platform include realizing high-definition scanning of precious versions, cross-search functions for multilingual texts, and real-time updates of research results, thereby providing convenient "one-stop" literature resource services for researchers worldwide. This initiative is expected to significantly enhance the center's status as an international literature hub for Pearl S. Buck research. Meanwhile, the Municipal Pearl S. Buck Research Association plans to continuously attract young scholars at home and abroad to participate in Pearl S. Buck research, committed to cultivating a new generation of Pearl S. Buck research talents and injecting new vitality into the long-term development of Pearl S. Buck research. In addition, Pearl S. Buck's Former Residence will leverage its unique geographical location and profound cultural heritage to develop more experiential learning activities, allowing participants to appreciate the cultural connotation of Pearl S. Buck through personal experience, thereby expanding the audience base and enhancing the influence of Pearl S. Buck cultural communication.

II. Cultural Communication Practice: Path Innovation from "Academic Circle" to "Public Sharing"

Based on rich literature resources, Zhenjiang has successfully broken through the limitations of traditional academic research and expanded niche research. Through the joint efforts of the Municipal Pearl S. Buck Research Association and the Literature Resource Center, a comprehensive communication system covering three dimensions—"visit and exchange, educational experience, and artistic communication"—has been built, effectively promoting the populariz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of Pearl S. Buck culture. The Municipal Pearl S. Buck Research Association and the Literature Resource Center have both been awarded the title of "Jiangsu

Provincial Social Science Popularization Base", which indicates that their communication practices have received dual recognition from official institutions and all sectors of society.

1. Visit and Exchange: Building a Cross-Cultural Dialogue Network

In the communication of Pearl S. Buck culture in Zhenjiang, visit and exchange play an indispensable role as a key approach to building a cross-cultural dialogue network. Zhenjiang Pearl S. Buck Cultural Square, Pearl S. Buck's Former Residence, and Pearl S. Buck Memorial Hall, as public cultural spaces, serve as core venues for undertaking this function, attracting visitors from different backgrounds and fields to explore and communicate ^[2].

These venues are not only carriers of historical memories but also platforms for cultural dialogue. For example, students from Tempe (USA) come here to "touch" the oriental world depicted in Pearl S. Buck's works; the Utah Youth Dance Troupe (USA) engages in a cross-time dialogue with the literary soul of a century ago through body language; a literary tour group led by poet Jidi Majia draws inspiration on this land, attempting to connect the emotional resonance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with verses; meanwhile, the research team of the Jiangsu Provincial People's Congress also chooses to conduct special research here.

Relying on the broad platform of Jiangsu University, the Literature Resource Center has received a total of more than 6,000 visitors, researchers, and exchange participants since its establishment, gradually building an extensive academic and cultural exchange network covering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areas. In this process, there have been research visits by government officials such as Huang Zheng, Deputy Director of the Policy Planning Department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visits by important figures in the international academic community, such as the couple of the Provost of the University of Cambridge, German sinologist, and member of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Jury Wolfgang Kubin; and more importantly, roots-seeking exchanges by the descendants of Pearl S. Buck's lifelong friends.

Visits from home and abroad, covering the academic community, art circles, youth groups, and government sectors, have jointly woven a diverse and interconnected cultural exchange network, enabling Pearl S. Buck's spiritual heritage to continuously radiate new vitality in constant dialogue. These rich and colorful exchanges have not only significantly enhanced the academic influence and international reputation of Pearl S. Buck research in Zhenjiang but also strengthened the unique connecting role of Pearl S. Buck as a cross-cultural symbol at a deeper level, transforming Pearl S. Buck's cross-cultural spirit into practical dialogue opportunities and practicing the concept of "taking literature as a medium to promote civilizational mutual learning".

2. Educational Experience: Promoting the "Youth-Oriented" and "Interactive"

Upgrade of Cultural Communication Zhenjiang Pearl S. Buck Cultural Communication Center mainly serves young students and international audiences. Through diversified educational practices and experience activities, it has realized the youth-oriented and interactive upgrade of communication methods. In terms of university cooperation, relying on local university resources, a series of research activities have been designed and implemented, breaking through the limitations of traditional static exhibitions and attracting visitors and learners from diverse cultural backgrounds, including members of Sino-US youth exchange programs and international students from the School of International Education. By 2025, Jiangsu University will integrate the achievements of Pearl S. Buck research into its academic education system and offer the undergraduate general education course <Pearl S. Buck and China>. This course integrates the center's literature resources and the Zhenjiang Pearl S. Buck Memorial Hall, and builds four teaching modules: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Distinctive Resources", "Interpretation of Works", "Influence of Local Culture on Urban Image", and "Integration and Coexistence of Chinese and Western Cultures", realizing the transformation from fragmented cultural communication to systematic academic education.

In the design of experience activities, various thematic activities have continuously deepened cultural perception. The Municipal Pearl S. Buck Research Association has organized activities such as stage play performances, Pearl S. Buck's children's literature entering classrooms, the "Feelings for the Earth" poetry recitation competition, and the calligraphy and painting collection exhibition commemorating the 129th anniversary of Pearl S. Buck's birth. These activities integrate Pearl S. Buck's artistic elements into the communication scenario, promoting the transformation of her cultural image from a "knowledge symbol" to a "perceptible spiritual experience" and significantly enhancing the cultural identity of young groups. During the 2025 Reading Festival, the Library of Jiangsu University, in conjunction with multiple departments and colleges, held the <The Good Earth> book review collection and poetry creation competition. Through innovative and interactive forms, it stimulated the participation enthusiasm of teachers and students, helping to expand the depth and breadth of cultural communication. In addition, the communication of the spirit of fraternity and charity serves as an important supplement. The Municipal Pearl S. Buck Research Association has established "Pearl S. Buck Classes" at Zhenjiang Special Education Center, set up "Pearl S. Buck Societies" in experimental schools, and organized the Pearl S. Buck Art Troupe to conduct public welfare performances. These practices have realized the organic integration of cultural spirit and social services.

At the same time, in line with the communication needs of the digital era, the Literature Resource Center and the Municipal Pearl S. Buck Research Association have actively embraced and applied new media technologies to build a "online" three-dimensional communication network. On popular social platforms such as TikTok, WeChat, and Rednote, they have attracted young audiences through "short, flat, and fast" content forms, building an all-round and multi-level online communication matrix. Through carefully designed lightweight and highly interactive content forms, they have successfully attracted a wider audience, achieving effective information reach and in-depth interaction. This communication strategy combining online and offline approaches not only enhances the coverage and influence of cultural communication but also forms

a new communication pattern of positive interaction and coordinated development, injecting new vitality into the inheritance and innovation of culture.

3. Artistic Communication: Innovation from "Local Footprints" to "Global Footprints"

With artistic expression as the carrier, Zhenjiang has committed to building the Pearl S. Buck cultural brand and achieved remarkable results. At present, the city has successfully created two landmark cultural achievements: the creation and performance of large-scale stage plays, and the touring exhibition of poetry, calligraphy, and painting themed on Pearl S. Buck. These efforts have promoted the communication of Pearl S. Buck culture, realizing a leap from local to global influence.

In the field of stage plays, <Moonlit Night on the Spring River: Pearl S. Buck> premiered at Lincoln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in New York in August 2015. The four consecutive days of performances attracted nearly 10,000 audiences. With its outstanding artistic quality and positive market response, the work received extensive coverage from international mainstream media such as <The New York Times> and <The Washington Post>. In terms of the touring exhibition of poetry, calligraphy, and painting with Pearl S. Buck as the theme, its communication path shows an obvious expansion trend. Since 2015, the Zhenjiang Pearl S. Buck Research Association and the Literature Resource Center have held touring exhibitions in cities closely related to Pearl S. Buck's life, such as Zhenjiang, Nanjing, Huai'an, and Lushan. Through traditional Chinese art forms such as calligraphy and painting, the profound connection between Pearl S. Buck and Chinese rural areas as well as humanistic spirit has been vividly demonstrated, attracting a total of tens of thousands of visitors. Since 2019, this project has further expanded to the international stage, signing touring exhibition agreements with institutions such as Pearl S. Buck International (USA), West Virginia University, the University of Milan (Italy), and the Pearl S. Buck Memorial Hall in Bucheon (South Korea), extending its communication scope to the global level. In September 2024, the

opening of "Brilliant Pearl—Pearl S. Buck Themed Calligraphy and Painting Exhibition from Zhenjiang, China" at the Mars Cloud Art Museum in Manassas, Virginia, USA, marked the official launch of the "Calligraphy and Painting Tour Exhibition Along Pearl S. Buck's Global Footprints", realizing a crucial leap in cultural communication from "Chinese footprints" to "global footprints".

In addition, Zhenjiang has also enriched the matrix of artistic communication through various forms such as creating the comic strip *<Pearl S. Buck in Zhenjiang>* and shooting Pearl S. Buck-themed film and television works. As a borderless language, art has effectively overcome language barriers, enabling Pearl S. Buck culture to achieve cross-cultural communication through the approach of "taking beauty as a bridge" and providing an innovative path for the research and promotion of Pearl S. Buck culture.

III. Cultural Communication Theory: Breakthrough from "Resource Accumulation" to "Theoretical Innovation"

With Pearl S. Buck-related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as the core of research, Zhenjiang has built a bridge for dialogue and exchange through the organization of academic conferences. At the same time, it has consolidated the foundation of research through the publication of academic achievements. Furthermore, the implementation of scientific research projects has further promoted in-depth exploration. Based on these measures, a systematic academic exchange platform for Pearl S. Buck has been built, promoting the in-depth development of Pearl S. Buck research from scattered resource organization to systematic theoretical construction. In this process, a positive circular ecosystem supported by platforms, driven by research, and achieved through communication has been gradually formed, providing sustained impetus for urban cultural brand construction and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3].

1. Building an Exchange Platform

As a key platform for knowledge exchange and ideological collision,

academic conferences play an important role in activating Pearl S. Buck research resources and gathering global research forces in Zhenjiang. By hosting or undertaking a series of high-quality academic conferences with diverse themes and scales, Zhenjiang has continuously promoted the in-depth and extensive development of Pearl S. Buck research, gradually consolidating its core position in the global field of Pearl S. Buck research.

In 1991, Zhenjiang held the Pearl S. Buck Literary Creation Seminar, becoming the first city in China to make an objective evaluation of Pearl S. Buck. The Pearl S. Buck Research Association was formally established in 2003. In June 2005, the International Pearl S. Buck Academic Seminar, themed "Commemorating the 113th Anniversary of Pearl S. Buck's Birth and the 60th Anniversary of China's Victory in the War of Resistance Against Japanese Aggression", was grandly held at Biyu Garden in Zhenjiang. The seminar conducted in-depth discussions on Pearl S. Buck's literary creation and its historical value, and simultaneously held the "Pearl S. Buck's Journey of the Earth" tourism cooperation exchange meeting, marking the initial integration of academic research and cultural tourism resource development. With the active participation of local universities, the professionalism of Pearl S. Buck academic conferences has been increasingly enhanced, and their coverage has been continuously expanded, further strengthening Zhenjiang's influence in the field of Pearl S. Buck research. In 2015, Jiangsu University hosted the International Pearl S. Buck Academic Seminar; in 2019, Zhenjiang College hosted the International Pearl S. Buck Academic Seminar. Particularly in 2022, on the occasion of the 130th anniversary of Pearl S. Buck's birth, Jiangsu University hosted the "Mutual Understanding, Integration, and Moving Towards the Future" International Pearl S. Buck Academic Seminar. More than 200 experts and scholars from domestic and foreign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ions, including Tsinghua University, Peking University, Fudan University, the US-China Institute, and the Confucius Institute at the University of Milan (Italy), participated in the conference both online and offline. Up to now, Zhenjiang has successfully held more than 10 international academic seminars.

In addition, to cultivate new forces in Pearl S. Buck research, the

Municipal Pearl S. Buck Research Association has launched a summer research camp program for young scholars. Through various forms such as expert lectures, field investigations, and academic salons, it provides a platform for communication and learning for young researchers worldwide, thereby promoting the intergenerational inheritance and innovative development of Pearl S. Buck research.

2. Deepening Academic Research

In the long-term practice of systematic organization of Pearl S. Buck resources and academic research, Zhenjiang has gradually built a series of multi-level research results, fully demonstrating its ability to transform from "practical exploration" to "theoretical refinement" and providing a solid empirical foundation for the construction of the academic discourse system of Pearl S. Buck^[4].

University journals and cultural periodicals in the region have become key platforms for Pearl S. Buck research, building a diversified academic platform matrix. Academic publications such as <Journal of Jiangsu University (Social Sciences Edition)>, <Journal of Zhenjiang College>, <Journal of Jiangsu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al Sciences Edition)>, and <Gold Mountain> have all set up columns or special topics related to Pearl S. Buck research, continuously publishing high-quality research papers, providing a stable channel for scholars to publish their achievements, and promoting the normaliz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research work.

Since 2018, Zhenjiang has established the "Pearl S. Buck Research Special Project" for social science application research. Aimed at promoting in-depth research through scientific research projects, it has attracted local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ions to conduct special research on topics such as the historical connection between Pearl S. Buck and Zhenjiang, the cross-cultural communication of Pearl S. Buck's works, and the modern value of Pearl S. Buck's spirit. These scientific research projects and the academic papers produced not only deepen the micro-interpretation of Pearl S. Buck and her works but also expand the research perspective from

multi-disciplinary angles such as cross-culture, history, and sociology, providing theoretical support for the localized construction of the academic discourse system of Pearl S. Buck.

In terms of academic monographs, Zhenjiang has continuously promoted the compilation and publication of Pearl S. Buck research anthologies and commemorative anthologies, systematically collecting the latest research results of scholars at home and abroad and sorting out the development context of Pearl S. Buck research; in terms of popularization and communication, it has published popular reading materials such as <Cultural Bridge—Pearl S. Buck>, which popularizes Pearl S. Buck's life story and cultural value in concise and clear language, lowering the threshold for the public to understand her; in terms of interdisciplinary integration, <Pearls of the Earth> published in 2015, as a selected collection of the Pearl S. Buck-themed poetry, calligraphy, and painting touring exhibition, deeply integrates poetry, calligraphy, painting art with the cultural connotation of Pearl S. Buck, comprehensively interpreting the spiritual connotation of "pearls of the earth". With its exquisite content and binding design, it won the Jiangsu Provincial Book Binding Award.

3. Constructing a Communication Path

The research and cultural communication of Pearl S. Buck takes "two-way extension of achievements" as the value logic, "role transformation" as the supporting subject, and "three-dimensional transformation" as the practical path. It builds a new ecosystem of in-depth interaction between academic research, social needs, and the spiritual world, promoting the advancement of Pearl S. Buck culture from "theoretical interpretation" to "public sharing" and "value co-creation" (see Figure 1).

(1) Two-Way Extension Mechanism of Academic Achievements

With "papers/monographs" as the core carrier, Pearl S. Buck research achievements build a two-way value chain of "demand-production-application".

① Forward extension: Focusing on spiritual needs and social needs, academic production is no longer limited to theoretical self-consistency but takes responding to human spiritual puzzles and solving social practical problems as the starting point, strengthening the problem awareness and practical concern of research.

② Backward extension: Breaking through the channels of policy consultation and public communication, academic achievements enter the fields of public policy formulation and social cultural communication from the professional field, realizing the release of the social effectiveness of knowledge.

(2) Role Transformation Path of Academic Researchers

In the field of academic research, the traditional role boundaries of Pearl S. Buck researchers are undergoing significant expansion, gradually evolving into the role of "cultural intermediaries". The work of researchers is no longer limited to the output of academic achievements but has transformed into a key bridge connecting "spiritual needs and public communication" and "social needs and policy consultation". Researchers are committed to in-depth exploration of cultural issues in spiritual needs and transforming them into materials suitable for public communication; at the same time, researchers analyze the policy logic behind social needs and transform academic insights into intellectual resources in the process of policy consultation. Essentially, this role transformation promotes the in-depth integration between the research subject and social functions, realizing the fundamental transformation of academic research from isolated self-appreciation to coordinated development with society.

(3) Three-Dimensional Transformation Strategy of Academic Achievements

To achieve the aforementioned goals of academic communication extension and transformation, it is necessary to build a transformation system including media reconstruction, narrative transformation, and technological empowerment.

1. In terms of media reconstruction, it is necessary to break the media barrier between academic communication and public communication. Through the realization of cross-border integration of platforms and integration of channels, academic achievements are promoted to transform from traditional "professional journals/works" to "public media products", thereby expanding the communication scope of knowledge.

In terms of narrative transformation, the paradigm shift from traditional "academic narrative" to "emotional narrative" should be promoted. Academic narrative emphasizes professionalism, standardization, scientificity, and logic, while emotional narrative focuses on descriptiveness, situationality, detail, and vividness. By reconstructing academic content through story-based and emotional narrative logic, the acceptance of academic achievements among the public can be significantly improved.

2. In terms of technological empowerment,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including content generation, data mining, communication optimization, video production, etc.) should be used to decode, reorganize, and reconstruct research results. At the same time, technological empowerment provides support for improving efficiency and enriching content in achievement transformation, realizing the in-depth integration of technology and humanistic rese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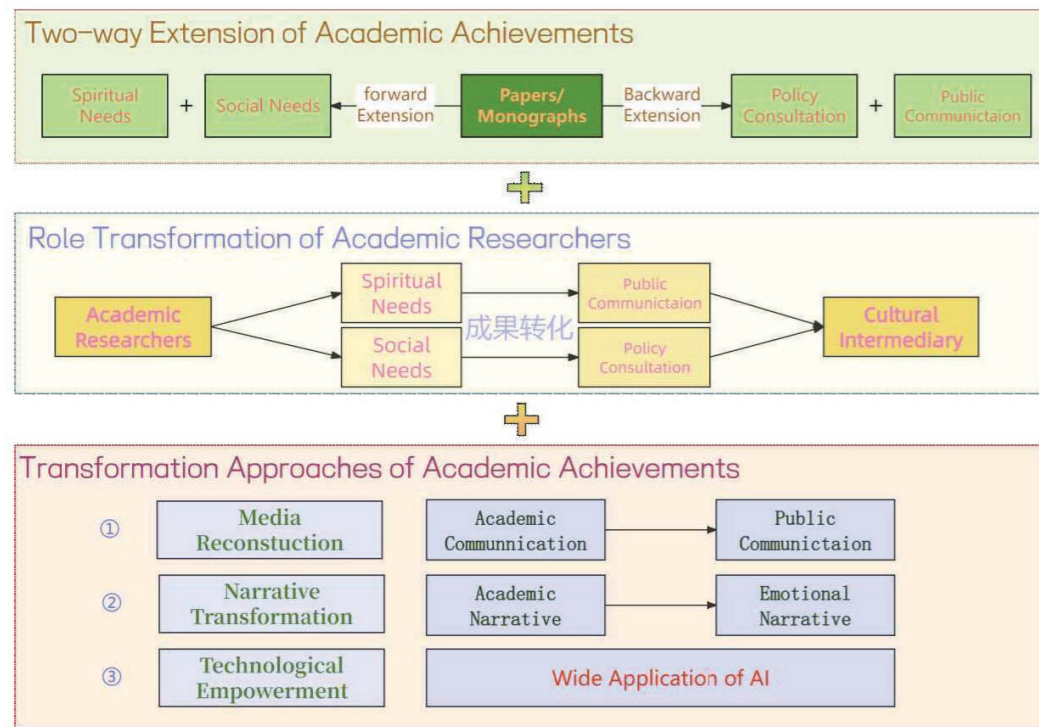


Figure 1: Path Diagram of the Popularization of Academic Achievements

IV. Conclusion

Zhenjiang's practice in Pearl S. Buck research and cultural communication takes the "systematic construction" of literature resources as the foundation, the "popular breakthrough" of cultural communication as the path, and the "theoretical upgrading" of academic research as the goal, forming a unique development model. This model not only makes Zhenjiang a "literature hub" and "communication highland" for global Pearl S. Buck research but also transforms Pearl S. Buck, a cross-cultural symbol, into a core element of the urban cultural brand, providing strong support for promoting mutual learning between Chinese and Western civilizations and enhancing urban cultural soft power.

In the future, Zhenjiang's work in Pearl S. Buck research and cultural communication needs to further strengthen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moting Pearl S. Buck research to extend from "localization" to "globalization";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deepen the integration of culture with cultural tourism and

education, allowing Pearl S. Buck culture to truly integrate into public life and become a lasting bridge connecting China and foreign countries and communicating hearts. Meanwhile, Zhenjiang will also take the opportunity of Pearl S. Buck research and cultural communication to further enhance the city's cultural soft power and international influence, enabling this famous historical and cultural city to radiate more brilliant light in the new era.

References

[1] Liu Jing, Zhang Tianyi, Yang Zhigang, et al. Research on the Embedded Service System of Celebrity Special Collections in University Libraries [J]. Library, 2023(01): 104-110.

[2] Li Jiangyang, Gu Zhengtong, Lu Zhangping. Research on the Design of Virtual Display System for Pearl S. Buck Cultural Park [J]. New Media Research, 2023, 9 (04): 19-22+36.

[3] Liu Jing, Cui Xinhui, Lu Zhangping. Analysis of the Academic Communication Model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of Pearl S. Buck Research Based on English Literature [J]. Journal of Jiangsu University (Social Sciences Edition), 2021, 23 (03): 54-62+72.

[4] Lu Zhangping, Guo Xinchun, Su Wencheng. Analysis of the Thematic Evolution of Pearl S. Buck Research in China from the Perspective of Multivariate Data [J]. Journal of Jiangsu University (Social Sciences Edition), 2020, 22 (01): 49-59.